

영정248호 등록번호
25090-33246-44-001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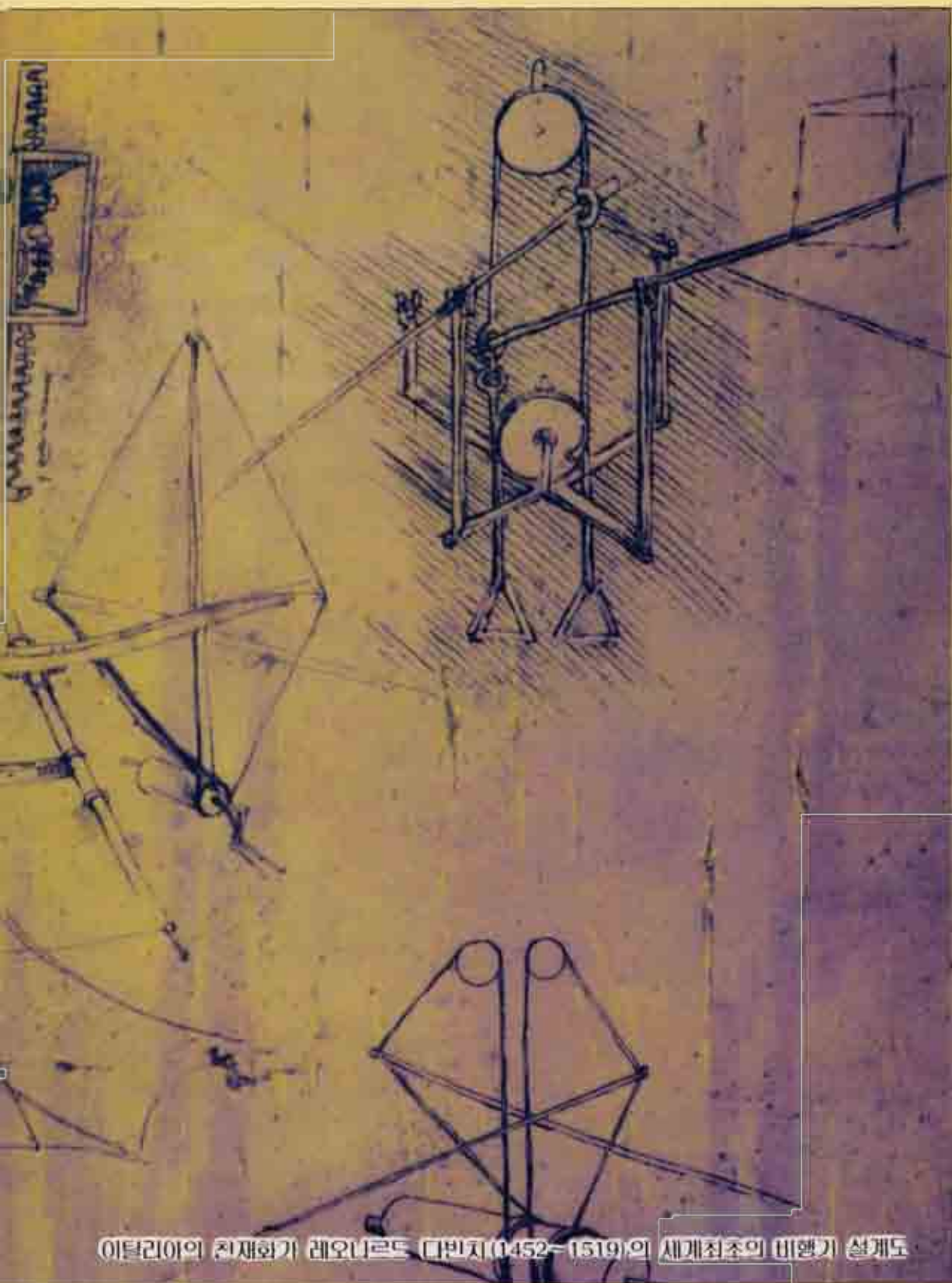
AIR FORCE QUARTERLY

1994년 겨울호(통권 제229호)



공군
패지
제229호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의 세계최초의 비행기 설계도

글 차례

● 화 보	_____	2
● 권 두 언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반추의 시간 /정훈감 대령 김건섭	10
● 보라매칼럼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중령 이석호	12
● 9 5 년 은	乙亥年의 각오/소령 나시중	14
	돼지의 해를 꿈꾸며/소위 최영배	16
	돼지처럼 튼튼한 95년이/원사 이주필	18
	95년의 다짐/상병 김영철	20
	건강, 기쁨, 감사의 95년/9급 성미침	22
● 空軍禮讀文	_____	24
● 「국방제도개선」어떻게 추진되는가?/대령 이정원	_____	26
●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체계 확립방안에 대하여/대령 서홍교	_____	36
● 空軍禮讀文	_____	45
● 공군45년사 제작을 마치고/중령 이남진	_____	46
● 작 전 사 례	진보총 MIG-19 귀순유도기/중령 송명진	50
● 空軍禮讀文	_____	58
● 공 군 논 단	_____	
	군용항공기의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대령 오제상	60
	항전장비의 전자파간섭현상 감소를 위한 제언/소령 박창일	66

글 차례

Simulator Motion System에 의한 Sickness/대위 이창호	77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의 아픈 추억/중위 최희수	85
● 화 보	89
● 병영취미생활 수석사랑/원사 황의철	97
● 만 화 어떤 신세대/고석현	102
● 공 군 문 단	109
— 독후감 — '한국상고군사사'를 읽고/대령 권이현	110
— 수 필 — 아빠 사랑해/소령 이봉길	112
— 시 — 눈오는 날을 기다리며/하사 천사웅	114
— 장병들의 이야기 — Mission First, Safety Always/대위 김기준	115
겨울나기/중위 이기원	118
선택된 나/상사 송영남	120
신병의 다짐/아병 서태민	122
따뜻한 커피한잔/병장 박노태	123
알찬공군/일병 설재훈	124
— 영화감상 — 나와 주위를 돌아보는 계기가/병장 최호준	126
● 독자의광장 신세대 그들과 우리/상병 김호민	129
요즘 산문을 접하며/병장 정동수	132
● 조직인이 지켜야할 에티켓	134
● 글을 기다립니다	136

참 · 모 · 총 · 장 · 동 · 정



▲ 제6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다양한 항공기 전시와 함께 열띤 학술토론이 펼쳐졌다.
김홍래 참모총장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94. 10.7)



◀ 방공포 사격시범에 참석,
단거리 유도무기인 자브린
발사기를 조작하고 있는
김홍래 참모총장
(94. 10. 22)

참 · 모 · 충 · 장 · 동 · 정

▶ '94 군사운영분석
학술대회 참석차 공군
본부를 방문한 이홍구
부총리겸 국토통일위원장을
맞이하여 기념품을 전달
하고있다. (94. 10. 28)



▲ 클라우스 독일합참의장이 공군본부를 방문, 양국 공군간의 우호증진을 다짐하며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94. 11. 23)

'94년도 공군의 이련일, 저련일



① 중형 수송기 CN-235의 도입으로 전술공수작전능력이 비약적으로 신장하게 되었다.



② 사상 유례없는 지난 여름의 가뭄극복을 위해 우리 공군은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원을 동원, 농민들에게 큰 획이 되었다.

'94년도 공군의 이련일, 저련일



- ③ 금년 10월 1일은 공군이 지난 49년 10월 1일 창군된 이래 45주년되는 기념일이었다. 공군본부는 창군 45주년을 맞아 '공군 45년사'를 VTR테이프와 사진책자로 제작하였다. (사진은 10월 1일의 공군 한강변 행사)



- ④ '94. 8. 13 제 3591 부대에서 열린 항공무기체계 전시 및 샌더버드 시범비행은 공군력의 과시와 함께 공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장소가 되었다.

- ⑤ '94년도 공군 군악정기연주회 9개지역을 순회하며 대민 문화행사를 가져 공군의 신뜻하고 세련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사진은 대전시민화관에서 열린 연주회)



'94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거행

— 김흥섭 소령, 최우수 사격 조종사의 영예 —



'94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이 김흥래 참모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12월 14일 제 3526부대 주기장에서 거행되었다. 금년 대회에서는 제 3515 부대의 김흥섭소령이 영예의 탑건으로 탄생 하였으며 제 3526부대의 207대대와 제 3515부대의 162대대가 최우수 대대상을 수상하였다.

- 탑건으로 선정된 김흥섭 소령의 패기찬 모습과 최우수 대대로 선정된 207대대의 수상장면
- 김흥섭 소령은 '84년도에 임관, 총 18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4년 겨울호(통권 제229호)



參謀總長 指揮方針

完璧한 領空防衛 任務完遂

最上의 戰備態勢 確立
現存 戰力 極大化
未來指向的 教育訓練
合理的 指揮管理

공군본부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반추의 시간

창밖으로 뉘엿거리는 붉고 고운 해를 본다. 창으로 고요한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지는 동선의 끝자락에서 주변을 장엄하게 물들이면서 인간에게 시간의 매듭을 일깨워 주려는 때, 그렇게 한해가 가고 다시 새해가 오고 있다.

과도기, 격변기 등 이때 식상해져 버린 단어들이지만, 일 많았던 甲戌年 우리 모두 열심히 뛰었고 또 살았다. 모두 최선을 다해 잘해 주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94년의 시간들은 주 임무완수에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공군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위로하는 온전히 우리들의 시간이다.

장밋게 서로를 마주하는 노을저는 이 시간들을 공군가족은 반추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갖는다. 최선을 다해 질주하는 동안 잊고 있었거나 소홀했던 점, 또 하지 이루지 못한 일들은 무엇이었던가. 정신내면의 모습으로 기억의 이빨을 다듬으며 준비하는 새해.

시간의 퇴적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는 가속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도전과 응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가령과파, 신세대, 소비구조의 변화, 세계경제블락…… 이런 단어들은 한 시대가 거대한 변화의 도상에서 보여주는 최근의 구체적인 현상들을 지칭한다.

김 건 섭
대령/정훈감



우리 공군도 이러한 변화에 무관하지 않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영공방위 임무원수라는 공군본연의 소명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은 이미 부언을 요치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해도 공군의 존재 의미는 변할 수 없는 때문이다.

공군의 존재의미가 있다면 공군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정신자세도 있다. 건강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만든 국민의 군대, 책무앞에서 엄격해짐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하는 강한 군대, 영공을 빈틈없이 방위하는 대한공군의 성원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군은 그러한 정신자세를 기다리는 도야의 장이다.

사회가 군의 모태고 군이 사회의 보루이기에, 공군가족의 정신자세와 그로부터 우리나라는 인격소양은 군을 군답게 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또 나라에서 준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사회를 이끌어 가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들을 정신자세와 인격을 조각하는 훌륭한 도량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신도야의 장을 비추는 세해가 떠오르고 있다. 저녁노을과 새벽여명이 크게 다르지 않듯이 우리의 소명은 변함이 없고, 주임무 위주의 부대관리에 온 공군가족이 열과 성을 한데 모아 성실하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동경하고 열망하는 완벽한 영공방위는 능히 달성되리라 굳게 믿는다.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

지난 늦가을 아침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니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젖어 키를 잠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차 바로 앞의 조그만 단풍 나무의 빨간색 짙은 단풍잎은 이 가을을 한꺼번에 느끼게 하였다. 벌써 가을이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감정이 뉘그러다듯 될 때는 한창 어릴적에 세 판에는 배 곁이 생각 해보았던 실존이니 방황이니 자아실현이니 하는 단어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그 때는 그래도 무언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마치도 아무 생각없이 살고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럴 때는 허탈해진다고나 할까 하는 감정이 쌓이는 것은 나만의 일은 아니겠지 하고 위안을 하기도 한다.

그날 오후에는 사무실의 동료 한 분이 "이 가을에 책 한 권을!" 하면서 가을이면 자주 듣게되는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흔히 하는 멘트를 농담처럼 읊조렸다. 그렇지 않아도 "올 가을에는 책 한권은 읽고 넘어가야지"하고 생각하던 나는 그 소리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무작정 행정자료실로 갔다. 우선 담당 아무 책이라도 한 권 들고 다녀야 그래도 가을을 지내면서 덜 허전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서가를 돌면서 책을 구경하다가 따로 넓은 한 칸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집었더니 "두개

의 군과 하나의 조국"이라는 책이었다. 현재 독일 국방차관으로 재직중인 켈브롬 장군(예)이 쓴 책이라는데 육군 군사연구실에서 번역 발간한 것으로서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독군 인수 및 제창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당시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었다. 우리의 처지도 분단국이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만큼 제목 자체가 관심을 끌었으며 형식이나 내용이 딱딱한 논문도 아니고 차연스럽게 기술한 것이었지만 게으름 때문에 이 겨울이 다 되어서야 끝낼 수 있었다.

서독에서는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한다. 민주사회에서의 군인은 다만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임무수행을 위한 특수제한사항 외에는 전적으로 일반 시민의 그것과 동일함을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군인도 같은 개념 위에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리나 우리의 경우는 민간인들도 군인은 약간 다른 시랑처럼 생각하고, 군인 자신들도 무의식 중에 민간인들과는 약간은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과속운전을 하다가 단속하는 사람에게 걸렸지만 위기를 무사히 모면한 선-후배 혹은 동료의 애기라든가, "걸리면 부대에 급히 가는 길인데 좀 봐 주시구요"하면 봐 주겠지 하며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서독 군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치한 짓일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봐서 봐 줄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데 단속원이 봐 주는 것을 보면 군인은 일반인과는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독의 경우라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대개의 선진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서양에서 군복무 한다는 것을 서비스(Service;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나, 서독의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은 모두 “국민이 되고 이에 더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서독 군대에는 “이념적 지휘”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자유 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군복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병사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군무에 임하도록 하는 독일연방군 특유의 이념교육체계라는 것이다. 이념적 지휘 개념에 의한 교육을 통해서 서독의 군인은 “한 군인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A Soldier can do wrong)는 사실도 그리고 그는 어떤 체제에 기여해도 되고 어떤 전략을 따라도 되며 어떤 임무를 완수해도 되는가를 <그리고 언제 거부해야만 하는가를> 분간할 줄 알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아마도 2차 대전 당시의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인 지시에 대하여도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등 너무나 큰 역사적 과오에 기인된 경험의 산물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역사를 통해서 한층 더 문숙해지는 독일민족의 우수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동·서독 정부의 노력으로 동독이 서쪽으로의 흡수통일이 결정되어 서독은 동독 군대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어떻게 해서 바로 어제까지 총부리를 마주하던 적을 동료로 받아들였을까?”가 궁금하였다. 해를 읽어 나가면서 느낀 것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내로서 그들이 스스로 변하여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특별히 못 된 동독 공산주의 출신분자들을 냉정하게 도태시키는 서독의 군인들은 현명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지휘”라는 개념과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독일국민은 현재도 강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을 반문하여 우리의 처지를 돌아켜 본다.

서독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고 치밀하게 이룬 통일을 보면서 언젠가 들은 말인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귀절이 생각난다. **등3**



이 석 호

중령/공군본부 기획참모부

돼지띠 장병들의 새해맞이

乙亥年の 각오

거대한 역사의 흐름속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희망과 도약의 乙亥年 새해가 찾아왔다.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열두번째 해로 돼지가 주는 후덕함에 편서리 좋은 일들만 있을 듯한 새해 첫장을 흑, 돼지꿈으로 장식한 공군가족은 없는지... 역사적으로 볼때 실이간자의 열두번째인 亥年の 경우, 1983년 남북 이산가족찾기가 처음 실시되었고 1899년엔 경인선이 개통되었으며, 우리 역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창제된 1443년 역시 亥年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번영의 도화선이 되었던 亥年の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와 각오로 첫 행보를 내딛을 것인가? 모두가 원대한 포부와 다짐을 되새기는 이 시점에 조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 선 전투조종사로서 가슴에 새겨자는 각오와 상기할 만한 몇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투조종사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해가 되어야겠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한반도 안보현실은 아무리되지 않은 북한 핵문제와 김일성 사후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정세에 비추어 볼때 심히 불안정한 상태

라 아니할 수 없다.

아직도 몇전에 뱀도는 북측대표 박영수의 '불바다 파문'은 단순한 경악과 분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배가의 용정보복을 결심할 수 있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의 전쟁에서 입증된 공군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전력임을 상기해 볼때 불과 수분 거리에 적과 대치된 즉응전력으로서의 공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완벽한 출격태세 유지와 내 한복순 불사를 수 있는 사명감 고취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군위상 청취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장교 탈영사고와 총기오발 사고 등 다수의 군기관련 사고로 군기강이 헤이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공군 역시 함포총장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으며, 동료 조종사 순직 및 다수의 공군 주력기 손실이라는 비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언론과 외부의 평가에 부화뇌동하는 나약한 집단이었는가? 동료의 순직을 눈앞에 직면했으면서도 여명을



나 시 중

소령/제3591부대 201대대

하지만 1990년 2월 1일, 문묘인 공군사관학교의 정문을 통과해 메추리로서의 첫 발을 내딛을 당시의 최영배는 지금처럼 매기만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1990년 초의 추운 겨울은 나와 같은 날달걀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합성으로 저 멀리 쫓겨가고 드디어 세상에 태어난 작은 메추리는 생도제복의 화려함과 멋진 생활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푸른 색 상의에 박힌 14개의 빛나는 문뿔 단추와 나폴대는 새하얀 견장 수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하얀 깃털...

하지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매력적인 복장과 아울러 주어진 생도 1학년으로써의 생활은 사관학교 참미자로 자처하는 나의 입에서도 결코 즐거운 시기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힘든 것이었다.

있지도 모르는 사이 '어느날 갑자기' '졸업'과 '임관'이라는 두 단어가 나를 찾아왔다. '졸업이라, 드디어 독수리가 날개를 펼칠 때가 된건가?'

포근한 보금자리인 사관학교를 떠난 새끼 독수리의 첫 부임지는 공군 교육사령부.

한달간의 TTC 교육을 마치고 배치를 받은 곳은 장교 12명에 하사관 1명, 사병 1명으로 이루어진 항공병학교 일반학 교관실.

사무실의 전배 장교들의 눈에는 과연 사관학교를 4년간 다닌 지 애송이 소위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하여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느껴듯 하나의 괴물이 되어버렸다.

괴물이 되기 위해 4년동안 예비장교로서 힘든 훈련을 받았던 것인가? 하지만 이견 반대로 생각하면 괴물의 전변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다.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자.

사관학교에서 활태자로서 대우받던 나이 지만 장교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지 알 때까지는 가장 밑바닥의 하참고 귀찮아 하는 일들부터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다.

배울 것은 무궁무진했다.

우물 안 개구리같이 살아 온 내가 세상의 넓음을 배우게 되었고, 일반대학을 나온 장교선배들 곁에서 효율적인 인간관계, 업무 처리법 등을 배웠다.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서 내게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한단계 한단계 준비하는 자세이었다. 사관학교의 다소 경직된 교육과 졸업 후의 고정된 전로 등에 갇들여진 나는 스스로 운명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 내가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쟁자는 내 앞에서 같이 생활했던 동기생들만이 아니라 그 시간 학원을 찾아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땀흘리며 사회에 있던 또 다른 젊은이들이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장차 공군을 이끌 지휘관이 되어 부하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신문, 잡지, 뉴스 등을 통해 시사적인 정보와 기타 여러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나를 바라보던 그들도 점차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점차 비중있는 일을 내가 맡게 되었다.

미족 8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항공병학교는 내가 장교가 무엇인지 또 장차 지휘관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 준 제2의 모교가 되었다.

이제 나는 항공병학교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 고유의 특기인 조종에 맞춰서 비행훈련에 임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같이 지내던 어느 일반장교가 말했던 것처럼 '선택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시작이다. 그 어떤 훈련보다도 힘들다는 비행훈련...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고통을 이겨내어 훌륭한 공군의 조종사가 되는 길,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선택해준 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95년에 새로 태어날 아기 돼지들의 앞날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글쎄**

최 영 배

소위/공군사관학교 212세대



돼지띠 장병들의 새해맞이

돼지처럼 튼튼한 '95년이...

27년, 군생활이 저물어 간다. 그래서 새해는 더욱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낯선 생활로 들어서는 初老의 나는 새로운 인생을 또 꾸려가야 할것이다. 乙亥年을 감정도 여러 갈래, 생활도 좀 분주하게 시작될 듯하다. 27년을 뒤돌아보니 뚜렷한 나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 젊음을 바친 군이기에 한마디 회고가 없을 수 없다. 여기에 회고의 일부인, 후배님들에게 주는 충심어린 몇자를 적어 본다.

군에서도 갖 군에 들어온 몇몇 장병들 사이에 힘든 일과 수월한 일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현역 사병들은 애초에 특기가 부여되어 애하 부대로 배속되지만, 단기사병들은 개개인의 특기를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훈련이 종료되어 각 대대로 배속될 때면, 가장 일하기 싫은 곳이 취사장 근무이다. 단기 사병제도가 도입된 이래 취사장은 거의 단기 사병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매번 반복되는 업무, 새벽부터 밤까지 별다른 휴식없는 근무 시간, 불규칙한 생활로 인하여 지금은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가 되어 버렸다. 과거 배고픈 설움을 달래기 위해 인기가 좋았던 취사장 근무가 호르는 세월속에

어느덧 구석으로 소외된 곳이 될 줄이야!

하루 역을거리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 연중무휴로 쉬지 않고 반복되는 업무에 권태를 느끼기 십상이다. 어느 전역하는 고참병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취사장 근무는 울고 왔다가 웃고 간다"라고. 그 이유는 처음 근무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참이 되어서는 떠나기 싫은 곳이라고 후배들에게 말한다는 것이다. 식당 관리 하사관으로서 과거와 비교해 불배 허무한 심정마저 든다.

군복지향상과 더불어 나날이 변해가는 이곳 취사장. 과거 가마솥에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삼으로 밥을 버 각이 배지하던 시절에는 사병들과 배식병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가림막을 설치하고 적다 팔다는 실태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조리 기구의 보급으로 주부식의 질과 양이 향상되다 보니, 장병들의 기호도 변하여 고기류보다 신선한 야채류를 요구하고 있다. 매일 급식되는 우유와 계란, 주기적으로 다양한 변종류 분식, 계절별 신선한 과일 및 주스류, 햄버거 및 돈가스 등이 급식되고 있는데 이제는 고칼로리 식품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며 신세대 젊은 장병들이 구시대의 배고픈 시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한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요즈음 젊은 사병에게 느낄 수 있는 공통된 것이 있다. 바로 젊음의 패기가 없다는 것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느끼는 현상으로 특히 식사 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군인의 기본자세를 군대 예절과 결부시킬 수 있는데, 식당내에서 배식줄 기다리며 차례를 지키는 자세, 자물배식에 따라 먹음 만큼 식가에 떠남은 함을 조절하는 자세, 식사후 뒷처리 하는 자세 등에서 간혹 나타나는 호트러진 일면은 나약함과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심을 보여준다.

강한 군대는 강한 군인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이치를 새삼 되새겨 봐야겠다.

군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서 고락을 나누고 명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다시 다양한 언행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조직이다. 다른 어느 조직보다 강도높은 육체적 훈련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연습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전우와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이 인격과 인간관계를 성숙시키는,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패기, 협동심, 단결심 등을 군에서 배우게 해야 될 것이다.

정병강군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의 토대위에 육성되듯이 나약한 정신자세를 치운하기 위하여 군대의 기본 예절을 배우고 주어진 식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군생활을 임한다면, 자기 중심이 아닌 전체를 소중히 여기고, 전장한 전우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의 패기는 이런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할과후에는 군생활을 정리하고 젊은 후배에게 이 자리를 넘겨야 한다. 패기에 찬 젊은 시절 군생활을 시작하여 27년간을 군에 몸 담고 보니, 어느덧 구세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 못내 서운하고 못다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젊은 후배들이 있기에 든든한 마음이 든다.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을 엄격히 다스려 최선을 다하는 강한 군인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젊음의 패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지**



이 주 필

원사/제3975부대 지원대



돼지띠 장병들의 새해맞이

95년의 다짐

군 생활의 절반을 보낸 이즈음에 여기서 두번째의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를 맞는 심정은 정말 각별하다. 왜냐하면 헛되이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소중한 시간들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 사회로 나가 흔들림 없이 그곳에 적응하려면 더욱더 올해는 소중한 한 해임을 깨닫게 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갑자기 달라져 버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보낸 한 해였던 것 같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후회의 씨꺼기를 남기게 하듯이 모자람이 많았다.

상반되는 양면의 슬한 감정과 결과를 두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상처를 입었는지 모른다.

그때에는 '후회없는 삶을 살자',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스스로 세워둔 인생 지표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곤 했다.

사시각각 변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건 환경의 탓이라고 치부하고도 싶었지만 언제나 커다란 목표와 각오를 세우지 못한 나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사회에서 맞이할 수도 있었던

올해년, 군에서 맞이하기에 조금은 우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를 군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겐 더없이 보람스러운 시간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나의 해를 맞으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군은 각오와 결의를 새삼 다져보고자 한다.

새해엔 이제껏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타성과 나태함들을 버려야겠다. 조금씩 편해지는 생활에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며 오직 편하고자 하는 게으름과 이런 일들은 저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하며 요령을 피우는 나약함들.

의례껏 이때까지 해왔던 나쁜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생활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깊이 반성하며 새해엔 과감히 그러한 것들을 버리며 군생활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없이 하루하루 앞당겨지는 세태날짜를 끌어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람되고 유익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되겠다.

시간을 아껴 잘 활용하는 것은 나에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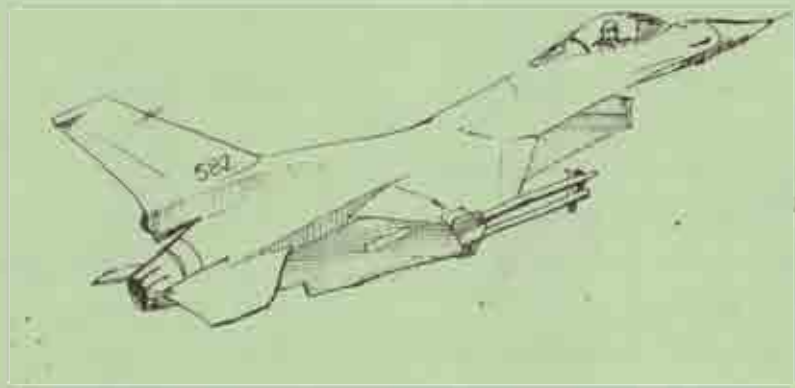
말 절실하다. 반복되는 일상에 실증을 느끼기만 하는 잘못된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다.

시간에 쫓기듯이 살기보다는 내가 주체가 되는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하급자간에 생길 수 있는 불만과 불신을 널리 포용할 수 있는 이해심을 기르고 올바르게 건전한 병영생활이 되는데 상급자로서 한몫을 했으면 한다.

나 하나가 아닌 우리를 먼저 알세우며 개

인주의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작은일부터 꾸준히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나에겐 올해가 아주 뜻깊은 해가 될것이다.

밤아오는 새해의 아침이 군생활의 절정임을 말해주듯이 올해를 기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김영철**



김 영 철

상병/제8196부대 관제중대

돼지띠 장병들의 새해맞이

건강, 기쁨, 감사의 95년

어느새—

이렇게 되뇌이는 독백속엔 얼마간의 목마름과 후수가 나지막히 드러워진다.

“어느새”라는 수식어가 麗期의 앞에서 탄식할기도 하고 흐느낌질기도 한 감상을 동반함은 어인 까닭인가?

그 소중한던 한 해가 이렇듯 빨리 나의 곁을 서둘러 떠나다니,

일년이란 세월이 내게 주는 그 모습들—

나의 스물네번째 365일은 어떤 빛깔, 어떤 내용, 어떤 모양을 한 열매로 표현될 수 있을까.

연평균 가슴 아파 붙어두었던 기억들의 파편들이 가슴 깊숙히 박혀있고 때론 치루함으로 밀려왔었던 시간들의 흔적들도, 저쳐서 허덕이며 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내 삶의 무게를 전가시키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그러나 또 그중에서도 꼭 남에게 준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는가, 조심히 찾아본다. 직장에서 나누었던 동료와의 따뜻한 언어들, 어렵게 만학을 하는 동우들, 나를 정겹게 지켜봐주던 벗들, 내 소중한 식구들의 깊은 마음과 사랑.

아! 아무리 찾아도 난 너무 엄청난 사랑만 받아온 게 아닌가.

참으로 올해엔 다사다난했었던 시간들이 있어.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아니라도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리라. 진장 끝은 더욱 아름다워야 하리라. 이제까지의 삶이 그렇지 못했더라도 더 나 자신을 부추기요, 추스리며 마지막까지 말이다.

또다시 출발의 선상에 올랐다. 한해가 주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긴장을 준다. 만약 출발이 덩거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계절이라면 우리의 생활이 또한 얼마나 느슨하고 이완될까.

그 첫 출발의 냉랭한 기온에 몸을 담그면 형온못할 숙연함에 사로잡힌다. 청결하게 씻은 손으로 읽고 싶던 책의 첫 페이지를 여는 설렘같은 첫 출발.

내 가슴속에서 푸드득 이는 그 어떤 것들, 아무리 고단한 나날일지라도 새해 새날은 까닭 모를 설렘이 솟아나는 그런 시기이다.

인생은 自立自行이요, 自活自樂이라니. 난 또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 어떤 철학으로 95년을 맞이해야 할까?

정월의 문 앞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마

스르에게 타일러 본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세계!
이 문을 나서면서 나와 내 주변을 편안하

오늘 하루 기쁨의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감사의 날이 되게 하소서.

공공



성 미 정
9급/공군본부 행정감실

옛날의 전쟁수행 방법은 항상 적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그 나라의 치명적 중심부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대는 그 중심부 전면에 산개하여 그들의 피와 그들의 육신으로 방어하였다.

그곳에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고, 이 부분을 점령하기 위해선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것은 전장에서의 주목표물은 군대라는 이론에 도달한다.

이제 우리는 이 치명적인 中心部에 空軍力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미래에는 이 치명적인 부분과 산업시설 부분에 아무런 장애 없이 공군을 사용하여 곧바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쟁수행적 이론이다.

-William 'Billy' Mitchell,
1926. 2. 美國회에서 의 증언 중에서 -

1990년 8월 전세계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반응을 보이자, 사담 후세인은 다가올 전쟁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43일간의 주야간 24시간 공격 - 그리고 불과 100시간 동안의 지상전 - 후에 후세인은 굴복하였고, 지상전을 100시간만에 완료시켰던 원동력은 물론 공군력이었다.

- 미 제7공군사령관 Ronald R. Fogleman -

『국방제도개선』 어떻게 추진되는가?

이 정 원

대령/공군본부
국방제도개선연구위원회



본 내용은 금년 3월 국방제도개선 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방제도개선연구결과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공군장병 총보용으로 재정리 작성한 것임.
<편집자 주>

1.배 경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한 문민정부의 출범은 우리 군에 있어서는 신국군 건설을 태동케 하였고 이에 군은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각종 감사 및 포탄 사기사건 발생 등으로 율곡사업에 대한 의혹과, 국방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온 율곡사업의 성과가 파소평가되면서, 향후 적정 국방예산 획득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자칫 국방정책 수행이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제에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 율곡업무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된 것이다.

2. 추진경위

금년 1월 율곡, 군수조달업무에 정통한 전문요원으로 국방제도개선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감사결과와 작년도에 연구위

원회를 구성, 6개월간에 걸쳐 연구했던 기존 연구안 등을 기초로 하고, 여러 실무부서와 방산업체, 그리고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3. 국방제도개선 기본방향

첫째는 울곡의 첫단추가 되는 소요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둘째는 「효율성, 합리성,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의 5대 원칙을 충족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단계 축소와 사업추진절차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대책강구로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며, 부서별 상호견제와 기능분권에 의한 업무추진보다는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분석집단의 기능강화 및 활용 증대, 국방예산 및 국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투명성과 군사보안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넷째는 기업경영의 원칙을 도입,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국방예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섯째는 국방자원 관리상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고 미래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기능 및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4. 주요 개선내용

가. 전력소요 제기의 합리화 및 변경역제
울곡사업의 첫 단추인 전력소요제기는 군

사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 및 각군별 전장운영개념을 정립하고, 전장운영개념에 입각해서 각군과 합참에서 소요를 창출하며, 이렇게 창출된 소요는 과학적인 기법에 의거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합참에서 최종승인하고, 승인된 사업만 소요로 확정하여 국방부에 계획자성을 위한 소요로 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소요제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계획화하기 전에 대상무기체계가 진부화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군에서 개념소요를 제안토록 하고, 년1회 하던 것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한번 결정된 소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일단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소요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 합참, 각군의 실무 국장급으로 구성된 소요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특정인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고 변경되는 소지를 방지하고, 전력정비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지양하고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을 가능케 하였다.

나. 울곡사업의 책임체제 확립

울곡사업에 대한 책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소요에 대한 확정권은 합참이, 획득방법·기종결정은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협상 및 계약은 국방조달본부에서, 그리고 모든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업무를 국방부에서 집중관리 하던 것을 단순무기체계는 각군에 위임하여 각군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울곡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별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책임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하였다.

다. 각종 심의회 전문성/효율성 증대

육국관련 심의회는 합참에 무기체계 심의회, 국방부에 획득심의회와 전력장비사업 추진위원회로 단순화하였다. 무기체계 심의회는 무기체계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채택하며 시험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획득심의회는 무기체계 획득방법 및 기종결정을, 전력장비사업 추진회는 육국사업의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전력화에 필요한 요소의 누락여부와 협상 및 계약의 적절성등을 검토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회 구성은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던 각군 관보부장급을 포함하여 실무국장급과 관계자분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형사업은 정부유관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투명성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종 심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라. 육국사업의 예산편성 및 심의확대

육국사업은 지금까지 약 20여년 동안 방위력 개선이라는 단일함으로 총액만을 예산 편성하여 승인받는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추진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최근 각종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대한 의혹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예산부터 국가안보상 또는 협상전략상 비밀을 요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예산편성하여 경제기획원 심의와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써 국방예산의 합법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육국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 대형사업의 국가계획화 및 안정적 추진 보장

타 정부부처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이나 경부 고속철도와 같이 규모가 큰 대형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극히 드물었다. 앞으로 국방부사업도 1조원 이상되는 대형사업은 국가계획화 하여 정부 유관부처와 합동위원회를 편성하여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인을 득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국가안보를 위한 대형사업은 방정부적으로 노력을 집약하여 공개리에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바. 무기체계 성능결정의 합리화

지금까지는 최초 소요제기 단계에서 부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요구성능을 확정, 추진함으로써 요구성능 자체의 합리성이 부족했고, 과도한 성능요구로 연구개발 및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각군에서는

개념적인 소요만 합참으로 세기하고, 합참에서는 무기체계 전문가와 ADD등 과학기술진에 의해 요구성능을 합리적으로 정량화하며, 개발 및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하여 기종결정 단계에서 최종 확정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따르려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고자 할 경우, 최초부터 요구성능을 확정짓지 않고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서 최종단계에서 확정하는 보편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한국적 특성과 비용-효과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한 요구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부정확한 요구성능을 최초부터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시비요인을 사전 배제함으로써 전력정비 사업을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 획득방법/기종결정 절차개선

지금까지 획득방법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해외구매 중 한가지 방법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함으로서 국내 연구개발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기술도입 생산과 해외지구매의 경우 사전에 기술도입 생산으로 결정하고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기술이전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융통성이 제한되며 또한 협상대안의 폭도 제한을 받고 협상의 주도권도 상실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이외의 기술도입생산/지구매 대상사업은 획

득방법 협상을 단력적으로 복합운영함으로써 기술이전의 실질적 효과와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을 전개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최선의 획득방법과 기종을 동시에 결정하며 아울러 기종결정 후 별도로 채택하였던 무기체계체택과정을 통합함으로써 단계를 간소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업추진 단계를 간소화하여 전역화 시기를 앞당기고,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기술이전의 효과를 추구하며, 국외차원에서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 연구개발 정책의 획기적 개선

현재까지는 모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ADD에서 담당하고 일부는 ADD관리하에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왔으나 이를 개선하여 향후 ADD는 고도정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사업만 담당하게 하여 핵심무기연구개발 위주의 고등연구소로 육성하고, 재래식 통상무기와 통신전자 및 지동장비 등 민수우위 기술분야는 ADD의 관여없이 방산업체 특임하에 개발하게 하고,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업체의 자체개발도 허용하였으며, 연구개발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단절과 불필요한 행정소요시간을 대폭 축소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써 ADD는 명실공히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고등연구소로 발전시키고, 방산업체의 주도적인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향상과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신장하며 연구개발 기간을 2~3년 단축함으로써 적기에 전

력화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자. 시험평가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시험평가 주관부서가 합참과 국방부로 2원화되어 있었고, 시험평가 시행기구도 다원화되어 있으며, 시험평가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도 다소 미흡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험평가에 대한 조정·통제 책임을 합참으로 일원화하고, 합참의 조정·통제하에 기술시험은 개발자인 ADD와 방산업체가 실시하고 운용시험은 각군 책임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시험평가단은 각군 요원과 국방부, 합참, 국과연, 국방품질관리소 요원 등으로 합동 편성하며, 시험평가 결과는 각군의 시험평가 단장이 직접 서명하여 합참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시험평가 단장에게 무한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시험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시험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장토록 하였다.

차. 율곡/군수조달 인력의 전문화

율곡/군수조달 분야에 근무하는 현역장교는 세부직능을 분류하여 전문특기자를 부여함으로써 특기소지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이들 특기소지자는 군내 군사학교 또는 민간대학 위탁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배양하도록 하고, 해당 직위에는 특기소지자만 보직하고 진급선발시는 우대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

편, 이들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을 위해 국방군수관리학교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율곡/군수조달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며 율곡/군수조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카. 군수본부 조직쇄신 및 능력향상

군수본부의 관리계층은 7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처장과 담당관의 2개 계층을 폐지하여 의사결정 소요기간을 단축시켰고, 원가와 계약기능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각 사업부로 통합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또한 생산업체에 현장원가자료 획득요원을 증원하고 법무관실과 감사관실을 보강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케 하였다. 한편 외자처의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 인원을 증원하여 외자부로 승격하는 등, 군수본부 모든 부서는 담당직무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보직하고 근무원 인력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근무원도 직무별 특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였다. (국방군수본부는 금년 8.18부로 국방조달본부로 조직개편 완료하였음)

타. 군납업체 등록 및 보안측정 제도 개선

현재의 군납업체 등록제도는 등록창구의 다원화로 각 기관별로 등록절차 및 요건이 상이하며 일관성이 결여되고,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내자의 일부 업종에 한해서 등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본부 및 각군의 등록절차 및

요건을 통일하고, 조달본부 등록업체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여 각군에는 재등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정기·추가등록 이외에도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시등록제도를 활성화 하였다. 또한 정부 인·허가 품목, 실태조사 생략품목등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여 군납 미등록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외자 전업종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등록제도를 실시하지 않던 시설공사 등은 입찰시마다 동일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행정을 간소화 하였고, 해외업체에 대한 신용확인 및 각종 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보안측정은 모든 군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사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산업체, 방산물자 생산업체, 비밀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무역대리상 포함)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기타 일반 물자 및 상용성 물자 군납업체에 대하여는 보안측정을 폐지함은 물론 보안측정서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군납희망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조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파. 군수조달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

현행 군수조달업무는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사고이월예산이 과다 하게 발생되며 생산업체의 전반기 조업이 불가능하고 가동율의 심한 변동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입찰에 의한 원가 산정제도를 통해 생산업체 임금협상에 관계 없이 예상입찰 수준을 토대로 원가산정을

완료하여 조기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하며, 사전생산준비제도에 의해 계약체결 이전에 업체는 생산준비를 할 수 있고, 품질보증환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산기간을 단축하며, 조달업무 전산화체계를 통해 원가, 계약, 대금지불 등에 관한 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조달청 위탁 구매대상을 확대하여 군수조달의 투명성을 높여 조달본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군수조달업무의 능률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며, 국방부측 으로서는 산정원가 및 계약금액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행정소요기간 단축 및 조기 계약 체결로 납품지연 및 사고이월 예산발생 방지가 가능케 되며, 생산업체에게는 전반기 조업착수로 계획생산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가동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 군수관련 부정비리 및 하자발생 방지

이제까지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국방예산 집행실적을 감사하기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특검단을 활용하였으나 정부조직인 국방부의 감사관실로서는 방대한 국방업무를 감사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르며, 특검단도 설립 당시와는 업무가 상당히 변화되어 역할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조달본부에 대한 국방부 관련국의 참모감독체제도 미흡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검단을 「국방감사본부」로 개편하여 공인회계사와 윤곽/군수조달 전문요원을 보직시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감사기관으로 정예화할 것이며, 앞으로 국방부 본부의 감사관실과 국방감사본부, 각급제대의 각종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부단한 사정/감사활동을 전개하도

록 하였고, 또한 국방본부의 각국에서도 조달본부를 참모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해외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은행과 조달본부간의 약정에 의해 은행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부과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5중 점검체제를 강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수조달 업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정 및 감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부정, 비리를 방지하여 조달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해외구매와 관련한 하자발생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상의 국방제도개선에 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단계별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 현실태/문제점 ◀	▶ 개 선 내 용 ◀
소요 창출 및 제안	· 기획/계획문서 증거기능 미흡 · 기획담당관의 경험적 착상에 의한 소요판단 · 각군의 소요제기 기능 비약 및 기획조직 약화 · 무기위주의 소요작성 · 일시적 집중제한으로 심층검토 및 사전분석 미흡 · 소요변경 과다 소요 불안정 및 집행단계에서까지 소요계론	· 국방기문정례서 발간 · 전장운영개념에 입각하여 체계적 절차에 따라 소요제기 · JSOP에 무기기획 통합 · 각군에 수시소요제한 및 "군 중기전력소요서" 제출 기능 부여 · 전력구조에 소요판단의 중점을 두고 관련 Package소요 창출 · 소요변경 방지를 위한 "소요조정 위원회"를 신설, 운영 논리적 근거에 의한 소요창출 및 안정
무기 체계 선정	· ROC작성과 결정 업무를 전력소요 기획부서에서 담당 ·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해야하는 ROC를 획득 추진단계에서 확정하여 융통성 제한 · 부정확한 ROC 작성 달성곤란한 ROC 제기	· 합참에 무기체계 전담 부서 신설 · 수시 무기체계 소요제한 · 최초 개념ROC를 제기, 단계적으로 정량화, 보완하여 무기체계 제책시 확정 · ROC 정량화 업무의 과학화(ADD 검증 지원) 합리적/과학적인 달성 가능한 ROC 확정
획득 방법 결정	· 획득방법을 기종결장전에 연구개발, 기술도입생산, 해외구매 중 한가지로 결정 · 선진국방과학 기술획득 정책 미흡 사업추진 초기에 획득방법 결정으로 협상력 저하 및 국익 손실	· 「국산무기를 쓴다」는 원칙에 의해 연구개발 우선결정 · 기타 획득방법은 유익한 협상전략에 의해 결정 · 기종결정시 획득방법 동시 결정 · 획득심의회의에 정부 유관부서 실무국장 참석 융통성 있는 획득협상 전략으로 협상력 제고 및 국익도모
연구 개발	· 국과연에서 대군 기술지원, 사업관리 업무 수행 ·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동기미약 및 업체 자체개발 제도 미흡	· 국과연은 고도정밀무기체계 및 핵심기술/부품/소재 개발에 전념 · 인수우위 기술분야 업체 주도로 연구개발 전환 · 업체 자체에서 무기체계까지 개발토록 허용

단계	▶ 현실태/문제점 ◀	▶ 개 선 내 용 ◀
연구 개발	연구개발단계 과다 및 장기소요 (5단계 7~12년) 연구개발 체계가 핵심과제 개발 및 목표지향성 부족	- 연구개발 단계 축소, 적기전력화 보장 (3단계 4~8년) - 연구개발 단계 전환시 비용대 효과 분석 실시 국과연출 국방과학기술의 고등 연구소로 발전
시험 평가	- 시험평가 조정/통제 부서가 회계국과 합참으로 2원화 - DT/OT통합 실시로 전문성결여 및 개발자와 운용자간 의견 상충 - 시험평가 업무처리 단계 복잡 및 중간 검토 과정에서 내용 변경 가능성 내재 시험평가 체계의 책임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	- 조정/통제부서를 합참으로 일원화 - DT/OT, O/T를 구분 각1회 실시 - DT/OT는 개발자가 주관, O/T는 수요군에서 시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 시험평가업무 행정처리 기간 단축 - 평가 결과는 평가일시 부서에서 각군경유(각 군은 의견서만 첨부) 보고 시험평가 책임체계 구축 및 행정소요기간 단축으로 적기전력화 보장
기종 결정 / 무기 체계 채택	- 업무가 유사한 기종결정과 무기체계채택을 분리 단계적으로 처리 -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업무를 국방부/합참에서 전담 - 과도한 행정기간 소요 국방부/합참 업무과중 및 행정기간 장기소요	- 기종 결정과 무기체계 채택 동시 수행 - 단순무기체계는 각군에 기종결정 권한 위임 - 기종결정시 업체대표 의사개진 기회 부여 - 최특심의회에 법률가, 과학/기술자 등 전문가 참여, 의사결정 보좌 단계축소, 기종결정 권한 수요군 위임 및 행정기간 단축
중기 계획	-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방부 사업으로 추진 - 전략정보사업의 과도한 비밀 유지 - 계획사업과다로 전력정보사업 위상 저하 - 국방재원 변동 및 사업 변경 과다 사업수 과다 및 계획사업변경 빈번	- 대형사업 국가계획화 법정부처로 추진 -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국방안보계획 포함 - 전략정보사업 범주 조정 - 운영유지성의 사업을 전환, 핵심 슬롯사업으로 상애화 - 중기계획 사업 선행조치 계획수립, 사업추진 통제 전력정보사업의 소수정예화 및 대형사업 국가계획화
예산 편성	- 음곡예산 미편성 및 공개 제한 - X년도 사업 미확정으로 예산편성 곤란 - 총액으로 편성, 사업간 예산 일의조청 - 예산편성체계 2원화	- 운영유지성격의 사업을 예산편성, 정상적인 심의/공개 - 관여사업은 단계적으로 예산편성, 심의/공개 - 선행조치가 완료된 사업만 X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 결기된 장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예산과목 전용권 확보

단계	▶ 현실태/문제점 ◀	▶ 개 선 내 용 ◀
예산 편성	윤곽사업의 예산편성 및 심의 불가피	·예산편성 체계 일원화 ·전략장비사업의 특성고려, 예산편성 및 심의 /공제는 단계적으로 실시
집행 승인 건의 및 결재	·전정위, 의원의 비전문성 ·무차규모 대항화로 대통령 재가 규모 부적절 (현재 100억원 이상) ·집행승인 건의서 검토 절차 복잡 및 장기소요 ·예산배정/집행계획변경 절차 복잡 (2~4개월 소요) 집행승인 건의/재가 기간 장기간 소요	·전정위 위원들 실무 국장급으로 구성 ·대통령 재가범위 상향 조정, 현실화 (1000억 원 이상) ·집행승인건의서 실무 조정회의 실시 ·예산배정/집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2~4주 소요) ·단가차액 불가상승을 수준으로 탄력 적용 집행승인 소요기간 획기적 단축,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협상 / 계약 및 조달	·신용장 개설은행 결정 기준 불명확 ·외자자금 사후관리 소홀로 하자 입부처리 미흡 ·조달계획 작성기간 부족 ·회계산정 및 계약자간 ·계약업무의 비표준화 ·원가자료 확보 및 관리체계 미비 ·작·중도급 자료 및 용도확인 제출서류 복잡 및 내용확인 곤란 조달계획/계약업무 미흡 효율성 저하	·신용장 개설은행 결정시 경쟁입찰 제도 도입 ·하자처리에 다중검점체제 확립(5단계) ·조달계획 작성의 단계화 및 부대 조달 확대 ·예산압출에 의한 조기 계약 및 사전생산/품질 법적 보장 ·조달청 위탁구매 확대 ·전문협상팀 운용 ·사전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계약업무 표준절차 제정 ·원가자료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 ·KS/사용규격품 조달확대 ·작·중도급 사용계획의 실적신고 업무의 표준화로 효율성 증대 및 다중검점체제 확립
평가 / 감사	·기관별 평가분석 범위, 책임한계 불명확 ·기획/계획 단계별 사전 평가분석 미실시 ·평가분석요원의 전문성 결여 ·감사기관 다원화 및 업무 총괄 조정/통제부서 부재 ·중복감사로 인한 피감사 기관 업무지장 ·특검단의 설치목적 변화로 임무/기능 재정립 필요 정황적, 정성적 평가분석 및 중복 감사	·평가분석업무의 합참/국방부 책임한계 설정 ·기획/계획 단계별 사전 과학적 평가분석후 의사결정 반영 ·평가분석부서에 전문 인력 보장 ·국본감사관실의 조정/통제 기능 강화 ·예방자원의 계획감사 실시 및 중복방지 ·감사 협의위원회 운용 ·특검단을 국방 감사전문 기관으로 개편 과학적 평가분석 정리에 의한 의사결정 및 감사 기관의 전문화

단계	▶ 현실태/문제점 ◀	▶ 개 선 내 용 ◀
전문 인력 확보 / 유지	• 육곡/군수분야 근무장교에 대한 전문성향상 및 유지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 미비 • 장기보직 곤란 • 상위직위 진출을 저조 • 영관장교 및 군무원에 대한 육곡/군수분야 전문화 교육제도 미비 • 정채수립 부서에 민간 인력이 적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미비 육곡/군수조달분야 전문성 결여	• 전병과에 전문특기제도 시행 • 국방 군수관리학교를 창설하고 한교과과정 확충 및 추가과정 신설 • 육곡/군수조달분야 상위전출은 타과기와 동 일비율에 의한 전급공석 할당 및 전급선발 • 국방 민간인력 비율 및 상위직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 군무원 인사관리제도 개선 교육체계 확립 및 동기부여로 전장교/군무원의 자발적인 전문성 노력 유발
방산 업체 활성화 / 규제 완화	• 모든 무기체제/장비의 정부주도 개발로 방산 업체의 수동적 참여 및 기술기반 취약 • 집행승인후 계약 및 품격지연으로 업체생산 파인 가동 곤란 • 국산화 개발 자원제도 미흡 • 업체 등록장구 다원화 및 기관별 요건 상이 • 미등록 군납업체 입찰 자격 제한 • 전 군납업체 보안측정 실시로 업체참여 제한, 의혹 야기 방산업체 기반확대 및 정부행정규제 완화방안 미준수	• 민수기술우위분야 업체주도로 개발 전환 • 예산입출에 의한 계약제도 시행 • 사전생산 및 품집 법적 보장 • 국내 기술향상 및 축적을 위한 국산화 개발 자원 제도 정비 • 군납업체 등록제도 획기적 개선 • 등록요건 통일/제출서류 간소화 •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 보안측정 제도 개선 • 보안측정 대상업체 대폭축소 • 보안측정신청서 제출 서류 간소화 (9-11종 → 3종) 민수기술우위분야 업체주도로 개발전환 및 국방조달 참여기회 확대

5. 결론

이상과 같은 육곡과 군수조달분야의 종합적 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합리적인 소요제기와 무기체제 획득단계의 축소, 의사결정 절차의 간소화로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고 둘째, 유리한 협상전력 수립, 합리적 원가선정·계약·군수품 조달 등의 제도 개선으로 조달소요기간 단축 및 경제적 구매활동을 보장하여 국방예산 운영을 효율화 하며 셋째, 국민에게 의혹과 불편을 준 불곡예산편성과 조달에 관련된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대군 불신감을 불식하고 국방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넷째, 첨단핵심기술 위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신장시켜 21세기에 대비한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급변 제도개선은 일과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제도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공군에서도 「국방제도개선 공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위원장으로 100명의 연구위원이 확보한 신념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당론**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체계 확립방안에 대하여

서 홍 교

대령/공군본부 정훈감실



1. 서 언

최근 국제정세는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세계각국은 국가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실리 위주의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김일성의 사망과 그에 따른 김정일 체제의 구축이라는 변수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안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개방화의 영향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퇴색과 장병들의 정신적 취약요소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종합해 볼 때 국가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 군이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방위임무 완수여지를

다지기 위해 실시하는 정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여건상 우리 군의 정신교육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필승의 신념을 고취할 수 있는 정신교육체계 정립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정신교육의 체계와 현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체계정립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정신전력과 정신교육

가. 정신전력과 지휘관의 역할

정신전력의 총책임자는 지휘관이다. 지휘관은 지휘 및 참모계통을 적절히 활용, 정

정신전력을 지도육성해야 한다.

정신전력의 지도육성은 복합적인 참모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신전력은 신념, 사기, 단결, 군기라는 가치의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발전되는데 이들 요소는 어느 특정참모의 책임이 아니며 지휘관의 사려깊은 관심, 모든 참모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활동이다.

정신전력 지도육성을 위한 활동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듯이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전력의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휘관의 통솔이다. 정신전력 지도활동=지휘통솔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이점에서 정신전력 강화에 대한 지휘관의 역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지휘관의 정신전력강화의 핵심요체인 것이다.

나. 정신전력에서의 정신교육의 위치

현대의 전쟁양상은 이전의 전쟁에 비해 군과 사회의 정신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상대의 전투의지를 말살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사상전, 심리전, 선전전 등이 강조되고 전후방이 없는 배합전이 예상되는 전쟁에서는 정신전력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인 신념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며 단결을 강화하고 군기를 확립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신념은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왜 싸워야 하고 또 왜 이겨야 하는가 하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케 해주며, 전쟁 및 전투에 있어서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표1> 정신전력 육성활동 기능

전투와지를 불러 일으키고 원초적인 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신전력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장병들에게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이 바로 정신교육이다. 특히 정신교육은 군인의 가치관, 태도, 신념, 도덕성에 관한 교육이고 장병의 정신적 자질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은 정신전력 강화의 원경이 된다. 현재의 정신교육체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정신교육 체계도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정신교육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서도 정훈교육은 일부분이지만, 비중은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각 부대에서 시행되는 정신교육은 모두 정훈교육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정신교육의 현실태

정신교육의 체계도에서 보듯이 정훈교육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

는 정신교육에서 정훈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한만큼 정훈교육은 정신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훈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정훈교육 담당자와 정훈활동 방향변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훈교육 담당자의 문제

현재 공군에서의 정훈교육은 정훈장교와 정훈지도장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훈장교의 경우 국방부 지침에 의거, 1982년부터 인문사회계열의 석사출신을 선발하여 중위로 임관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정신교육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관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기대와 또한 계급구조에 있어서 교관의 계급을 한단계 상향조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려는데



〈표2〉 정신교육체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석사출신의 중위임관 정훈장교들의 장기복무 희망이 적음으로써 정관 사관학교 출신의 정훈장교들만으로 정훈장교 인력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정훈교육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표3>

한편 정훈장교의 부족으로 인해 정훈지도장교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대대의 행정계장으로 대대정훈지도장교의 직을 겸직하게 됨으로써 정훈교육보다는 여타의 업무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훈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정훈교육은 효과가 높지 못하고 정신전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신교육의 문제점인 것이다.

나. 정훈활동 방향변화의 문제

정훈활동은 그 내용상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정훈교육활동, 공부활동, 문화활동이 그것인데, 과거 정신교육이 크게 강조되던 시기에는 정훈교육활동이 매우 중

<표3> 정훈특기 기수별 석사장교 분류 현황

임 관 년 도	출 신 기 수	인 원 (명)	비 고
계		205	
1982	사후77기	6	
1983	" 78기	11	1년 연장:1
1984	" 79기	24	
1985	" 80기	18	
1986	" 81기	5	
1987	" 82기	10	
1988	" 83기	0	
	" 84기	27	장기신청:1
1989	" 85기	8	
1990	" 86기	17	
1991	" 87기	4	
	" 88기	20	
1992	" 89기	6	
	" 90기	18	4년연장:1
1993	" 91기	14	
1994	" 92기	17	

• 관련근거:국안사9161-299(80. 6. 26) 정훈장교 인사관리 지침

시되었으나 현재의 추세는 공보, 문화활동이 증시되고 있는 것이다.

예하부대에서 직접 정훈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참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정훈활동은 주로 교육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정훈활동 방향은 공보문화활동 위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표4 및 표5>

안보이념교육의 강조는 80년대 대학생들과 좌경사상 및 신좌경논리의 대두가 급팽창했던 데 기인하였지만 공산권의 붕괴와 탈냉전 시대의 전개로 말미암아 다소 퇴색되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도 국민을 위한 민주군대로서의 위상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공개개방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안보이념교육보다는 바람직한 군대상을 널리 홍보하고 위민군대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보활동에 치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사파 논란이 일어나는 등 안보의식의 해이현상이 문제가 되자 다시금 심리전 오염방지 차원에서의 안보이념교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훈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전문화된 사회일수록 특기분야가 더욱 세분화되는 것이지만, 정훈교육 전문 특기와 공보문화만을 전담하는 전문특기로 분류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훈장교가 과연 어떤 일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훈교육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은 지휘관의 태도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휘관은 정신전력의 총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기 어려운 정신교육을 추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표4> 현재 가장 비중을 두어 추진하는 업무 분야

구 분	계	정훈교육	공보활동	문화활동
인 원 (명)	23	13	6	4
비 율 (%)	100	56.5	26.1	17.4

<표5> 바람직한 향후 정훈업무 발전방향

구 분	계	정훈교육	문화홍보활동
인 원 (명)	23	7	16
비 율 (%)	100	30.4	69.6

특히 공군의 경우 임무수행의 특성상 매우 치밀하고 섬세한 지휘관리가 요구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더욱 어렵다.

임무특성상 비행작전을 위주로 모든 업무가 운영되고 있고, 전부서가 전문적능별로 세분화되어 소단위 근무장을 단위로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전장병의 집체교육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즉 비행훈련이 중지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정신교육이란 힘들다. 따라서 지휘관의 관심정도와 얼마나 출전수범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대간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방안

위와 같이 정신교육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신전력의 총책임자이고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휘관들이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정신교육문제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업무보다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힘들다.

공군본부에서는 1993년 11월 정훈활동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정훈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인보의식 제고를 위한 주요 역할담당자에 대한 설문문항이 있었는데 그 답변의 순위는 소속부서장이 34.7%, 부대 지휘관이 28%, 정훈장교가 20.1%로 각각

지휘관(부서장) 중심의 역할이 62.7%로서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체계 정립이 중요한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정훈교육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정과 교육시간 보장(50.6%)과 지휘관 관심 제고(39.7%)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신교육에 있어서 지휘관의 관심여부와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정신교육은 단지 정훈참모(장교)의 소관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정훈참모는 지휘관이 정신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보좌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줌으로써 부대지휘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가. 지휘관 참모회의의 활용

현재 예하부대의 경우 대체로 주1회씩 지휘관 참모회의가 열린다. 지휘관 참모회의시 참모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5분 주제발표시간을 만들어 참모들의 정신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스스로 정신교육의 핵심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정훈참모의 역할은 매주 단위로 주제를 선정해 주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있으며, 주제발표의 요령에서 발표문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정신

혼화 기법을 가르쳐주면 된다.

나. 정신교육의 날 운영

공군에서는 경계부대의 경우 매월 1,3주 토요일을, 지원부대의 경우 매주 토요일을 정신교육의 날로 지정, 운영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2.7%가 대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작전임무 위주의 지휘관리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매월 부별(작전부, 군수부, 기지전대)로 시범대대를 선정하여 3부장이 소속 부의 시범대대의 정신교육의 날 운영을 참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집체교육이 사실상 힘든 점을 감안하여 정신교육의 날 운영내용을 VTR로 편집 제작하여 각 대대로 배포하여 활용하거나 VTR유선망을 활용하여 방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VTR

편집,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은 VTR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1993년도 정훈활동 설문조사 결과, 정훈교육교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교재로서 VTR이 51.3%, 영화 28.2% 등 영상매체(시청각 교육교재)가 79.5%로 장별 들어 시청각 교육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표4〉

다. 신문별 주제발표회의 효율적 운영

현행 정신교육의 날 운영은 정신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바, 각군마다 정착발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별 또는 계급별 주제발표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는 매월 2회 또는 4회의 정신교육의 날이 실시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월1회 정

〈표6〉 인보의식 제고를 위한 주요 역할 담당자

설문내용	인원(명)	비율(%)
계	1,084	100.0
부대지휘관	304	28.0
소속부서장	376	34.7
정훈장교	218	20.1
일반참모	48	4.4
부대장교	126	11.7
무응답	12	1.1

도 소속 대대원 전원이 참가하여 주제발표회를 개최하는 방법이다. 규모가 큰 부대의 경우에는 계급별로 구분하여 주제발표자 2~3명을 사전에 선정하고 1인당 15~30분의 발표와 이에 대하여 45~90분까지의 토론을 실시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국방부에서 하달되는 각종 특별 영상교재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고 교육참여도를 보다 높여 결국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라. 정신교육과정 운영

집체교육이 관련한 공군부대의 경우 정신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2박 3일 내지 3박 4일의 합숙교육을 실시하는 정신교육과정의 운영이지만, 합숙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며, 각 사무실에서 교육인원 차출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휘관의 관심여부는 결정적이다. 각 대대별로 인원을 윤번제로 입과시키는 방안, 또는 일정인원을 할당하는 방안 등이 생각될 수 있겠다.

또한 지휘관 참모들이 윤번제로 정신교육과정의 교관으로 참여하게 되면 관심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대대장 정신훈화 및 정신교육교안대회

공군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많은 대대장들과 정신교육교

관들이 참여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평소에 관심이 없던 지휘관이라면 이 대회를 기피하거나 참여하더라도 대회를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훌륭한 정신훈화나 정신교육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매월 두번의 정신교육의 날을 이용해 대대장 정신훈화와 교안발표를 번갈아 실시하도록 정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각 대대를 관할하고 있는 무장들이 돌아가면서 참관, 제점을 하여 연중 최우수자를 선발, 차기 본선대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바. 특임 정훈장교제도의 다변화와 정훈장교의 충분한 확보

현재 정훈장교의 대부분은 석사출신의 장교로서 장기복무 희망자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장기복무 정훈장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시대적 변화와 육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문화적 욕구에 맞는 전문정훈장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안보이념교육을 전제로 한 특임석사제도와 병행하여 정훈장교의 일부는 신문방송학, 연극영화, 미술디자인, 음악 등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장기 또는 연장복무 희망자 중 홍보 및 문화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소위로 입관,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정훈장교의 인원은 현재원 115명에 대외부서, 위탁교육, 부관 등 활용요원을 제외한 103명 수준으로, 예하부대의 경우를 보면 비행단의 경우 정훈참모 포함 2명, 독립전대급 부대는 1명, 독립대대급의 부대는 정훈장교 비인가부대가 많다.

따라서 정훈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행단급 부대에는 3명, 독립전대급 부대에는 2명, 독립대대급 부대에는 1명 등 정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5. 결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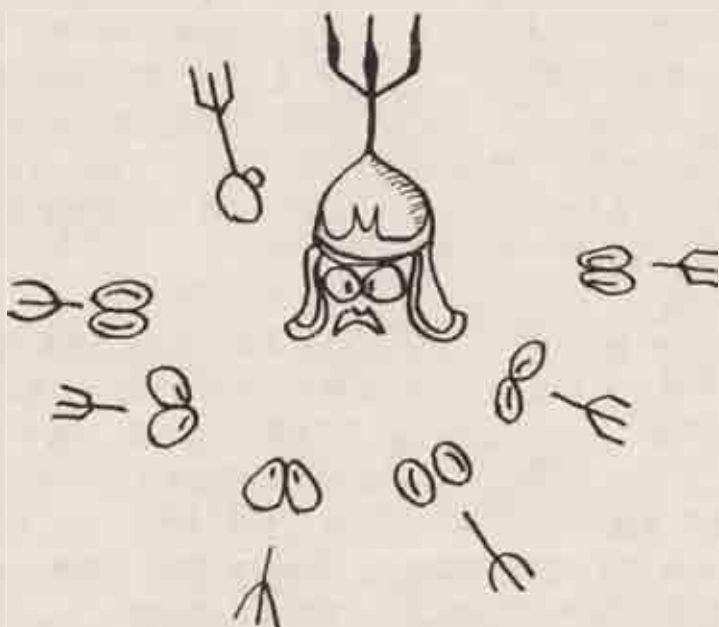
본자는 정신전력을 장병이 지휘관과 같은 뜻을 가진 상태라고 말하였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사고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에 직결되며 사고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장병의 사고를 지휘관의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방안이 곧 정신교육 강화의 지름길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휘관은 부대정신교육의 핵심으로서 부대의 성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지휘권을 행사하며 부하를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길될 경우에 그 소속 부대원들의 정신전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체계 정립은 정신전력 극대화의 첩경인 것이다.

위 글에서 논의된 방안 이외에도 지휘관의 정신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방위 임무완수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종결**



꿈 속에서 기환이는 휴전선 부근에 있는 멋진 전투기를 보았습니다.

“이야, 멋지구나! 나도 타보고 싶은데...”

그러자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던 전투기가 움직이며 투덜거렸습니다.

“흥! 멋지기는, 너희는 나를 단순한 전투비행기로 알고 헛된 공상을 하지만 나와 나를 조종하시는 공군아저씨들이 이 일을 재미로 하는 줄 아니?”

기환이는 물었습니다.

“어제서? 그 멋진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나는 상상만 해도 즐거워.”

전투기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늘을 나는 기분은 좋아. 하지만 우리는 나는 재미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아. 다만 한가지 꿈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기환이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뭔데?”

전투기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길었습니다.

“조국통일.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이런 고된 일을 해나가고 있단다. 기환이의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을 주름잡으며 다니는 나와 공군아저씨들의 꿈은 단 하나, 통일이란다.”

기환이는 아무말 못하고 고개만 숙었습니다.

-「하늘의 소원」에서 발췌

※ 제11회 호국문예행사 산문부문 수상작품

“공군 45년사” 제작을 마치고

이 남 진

중령/공군본부 정훈감실



공군이 창설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5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담은 “공군 45년사”가 제작되었다. 초창기 열악한 조건에서 마군으로부터 1~4연락기 10대를 인수받아 어렵게 출발한 모습에서부터 오늘날 F-16으로 현대화된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제작을 총괄했던 실무담당자로서 감회가 새로웠다.

처음 제작을 구상하면서 의욕만을 앞세워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서 우선 다큐멘터리 형식의 제작을 위해서 필수요건인 자료확보는 물론 자료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어 있지 못했다.

그리고 어차피 공군자체내의 기술이 불비한 이상 외부에 발주하여 편집 제작을 의뢰해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처리 문제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영상으로 재현된 공군의 역사는 공군장병의 교육이나 국민에게 공군을 홍보하고 이해시키는데 효과가 클 것이므로 언제 누가 하든지 꼭 해야만 될 일이며, 차제에 관련 영상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제작을 시도하게 되었다.

먼저 자료회득을 위하여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국립영상제작소, KBS, 그리고 국군홍보관리소의 필름목록을 점검하였다. 그 중 공군관련 목록을 뽑아 보니 어느 정도 자료가 될 것 같았다.

장군 당시와 6.25관련자료는 KBS와 국립영상제작소에서 주로 보관하고 있고 국군홍보관리소는 60년대 중반부터 국방뉴스를 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는

홍보관리소에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다행히도 국립영상제작소와 홍보관리소는 기대 이상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었다.

정함이 있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영상편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작품을 제작하는데 홍보관리소와 국립영상제작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사실적 나열에 다름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있으며 기획자의 의도가 반영되기 마련이어서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인물중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편계라든가 복제 등 구체적 변천사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대외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KBS는 정식으로 판매는 하되 무료제공은 곤란하다는 것이었고 정식으로 판매하는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유사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어서 제작에는 별 지장이 없었으나 이 기회에 공군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다는 부수적인 목표달성을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 취합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공군의 45년이라는 역사를 담아낼 것인가

공군 발전의 원천은 창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공방위라는 공군의 소명을 완수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전력증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또 역사의식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공군의 뿌리를 부각시키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공군의 역사는 1920년대 초반 선각자들이 조국 독립의 일념으로 이국의 하늘을 비행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러한 시도가 맥으로 이어져

해방후 공군창설의 기틀이 되었으므로 우리 공군의 정통성과 연관되는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여 기존에 서적으로 편찬된 "공군 25년사(76년 발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작품의 초반에 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게 되었다.

또한 생존해 계신 원로 선배님들의 육성 증언을 통하여 사실적 증명에 무게를 더하고 영구보존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다만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자칫 인물 중심으로 전개될 우려가 없지않아 광군이전 독립운동 당시 공군건설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에서 주역을 담당하셨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생존해 계신 추억들이 몇분 남지 않았다며 회상에 잠기시는 모습을 보며 잠시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내용구성은 전력증강을 중점사항으로 다듬으로써 창군에서부터 6.25의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은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나 60년대 이후 기종 도입은 사실적 나열로 단순함을 벗어나지 못해 후반부에는 국민의 군대로서 현재의 모습과 미래로 도약, 발전하는 공군의 모습을 담았다. 내용의 구성과 관련된 자료의 사용은 외부에서 획득한 勳

공군 선배들의 피와 땀이 혼이 숨쉬는 영상기록은 공군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대변하며 과거 역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래공군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은 김신 장군님, 공군 독립과 관련된 부분은 당시 작전국장을 맡으셨던 장지량 장군님, 6.25 당시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 하셨던 장성환 장군님, 그리고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의 금자탑을 세우신 김두만 장군님으로 정하여 증언을 화면에 담았다.

또한 6.25당시 강릉 여고생으로 출격조 종사들에게 꽃다발을 걸어 주었던 김비차여사(현 강릉시청 복지과장)의 증언도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무스탕기 인수등 공군

사진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동사진이 없는 경우 靜사진을 사용하되 구성상 꼭 필요하지만 자료가 없는 부분에는 호국화를 불가피하게 2군데 사용하였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의 자료를 종합하여 영상으로 제작한 데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군 선배들의 피와 땀과 혼이 숨쉬고 있는 영상기록은 공군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공군45년사"는 공군의 생동감 넘치는 역

사적 자료로서 길이 보전하고 후대에 전하는데 일차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사점에서 재평가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래 공군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로 공군의 구성원 모두가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공군발전을 위해 애진하는 원천으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못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제작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내용 전체를 사실적인 동사진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상당부분을 靜사진으로 대체함으로써 생동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고 외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몇몇 자료를 전부 획득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아울러 자료의 소중함을 다시금 실감하며 새로운 자료는 계속 획득하고 획득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공군의 역사를 재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94년도 여름에 바쁜 시간을 할애하며 후배들을 위해 증언을 해주신 원로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한 분량의 복록을 찾아서 여러형태로 보관된 자료를 메타필름에 정성스럽게 담아준 국군홍보관리소와 국립영상제작소 실무진들, 그리고 그 외 이 작업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자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는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하겠다. **김문**



진보총 MIG-19 귀순유도기

송 명 진

중령/제3579부대 157대대



공군지의 원고 청탁을 받으면서 나는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8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진보총의 MIG-19 귀순기를 요격하던 순간을 자세히 기억해 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순간적으로 내머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서..."라는 권고의 말을 듣고 얼떨결에 승락을 하고야 말았다.

그래! 기억을 더듬어 보자.

1986년 2월 21일.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도 좋았다. 2월의 날씨가 으레 좋기 마련이지만 쌀쌀한 추위

를 제외하고는, 파란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아 어느 누구라도 상쾌한 기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날씨였다.

그날의 임무는 공대공사격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나는 운중계도(?) 전방석에 임무가 할당되어 있었다.

운이 좋았다는 표현이 이상스레 들릴지도 모르지만 2년여의 팬텀교관을 하다보니 주로 후방석에 탑승할 수 밖에 없었던 팬텀대대의 현실에 비추어 전방석에 탑승하여 실제로 조종간의 방어쇠를 당겨볼 수 있다는

보아 나무랄데 없는 박강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격전에 우리는 그 무렵 빈번하게 발생하던 귀순기 조우시의 요격절차 및 유도절차 등 각종 불발사태에 대비한 절차를 포함하여 자세한 브리핑을 하였다.

이 당시는 중국의 오영군, 손천군, 북한과 이웅평등이 수시로 우리영공을 침범하여 귀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우리의 논바닥에 중국 IL-28 폭격기가 불시착하여 국회에서조차 우리 공군의 영공방위태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공군을 난처

이 당시는 중국의 오영군, 손천군, 북한의 이웅평 등의
영공침범뿐 아니라 중국 IL-28기의 불시착 등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국회에서조차 공군의
영공방위태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것은 어쨌든 산나고 기분좋은 일이었다. 더구나 날씨도 이렇게 쾌청하지 않은가?

이날의 편조는 목표기에 윤차영 대령(당시 소령)/장일규 중령(당시 소령), #1 박현계 중령(당시 대위)/박충식 중령(당시 소령) 그리고 #2에 본인과 이종관 대령(당시 비행대장, 19기)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모두들 비행기량 및 경험에 비추어 보아 나무랄데 없는 박강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들 비행기량 및 경험에 비추어

한 입장에 처하게끔 만들던 터였다.

더욱이 중국의 귀순기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야기시켜 왔는데 특히 군산 앞바다로 중국 경비정이 푸던 침범한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군용기 및 선박의 공·해상으로의 침투는 그것이 귀순기를 아니든간에 서로간의 뜨거운 감자로 간주되던 시절이었다.

어쨌든 나는 흥가분한 마음으로 어쨌든처럼 조종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약속된 동작에 의거 이동하였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

케 진행되어 나갔다. 5분 먼저 이륙한 표적기의 모든 것도 이상이 없었다.

우리는 15000피트의 고도로 서쪽 해상으로 계속 항진하여 표적기 후미 케이블에 달린 반짝이는 표적(DRT)을 멋있게 맞추어 야지 하는 마음에 계속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바로 이순간 우리는 비상 추파수를 통해 다급한 목소리로 지상관제소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지상관제소는 우리에게 임무전환을 통보하고 즉시 방위 320°로 최대속도를 유지하고 고도를 43000피트까지 상승할 것을 지시하였다. DART가 가까왔지만 표적기에 게 즉시 DART를 투하하도록 지시한 후 우리는 관제사의 지시에 응하였다.

이 순간 까지도 우리는 그간 임무전환 지시가 주로 있어왔던 터라 상황을 그리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피폭 "43000피트까지 고도를 상승하라"는 지시가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우리는 지시한 고도를 다시 물어보았다. 약간 풀기면서 들리기는 하였으나 관제사는 분명히 43000피트를 지시하고 있었다. 매우 높은 고도였다.

우리는 최대출력을 유지한 채로 급상승을 시작하였다. 이륙후 20분정도였으므로 연료는 충분했다.

고도계가 점프하듯이 항공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돌기 시작하였고 속도 역시 계속 증가하였다.



관제소에서 적기정보를 주었다. 우리 위치로부터 160마일! 기수는 남쪽! 고도는 43000피트! 순간적으로 적기와 마주칠 예상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지금 같은 고속상태로는 6~7분이내면 마주칠 것 같았다. 거리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평소에 훈련하고 연구했던 요격절차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아울러 얼마전 특별훈련을 받은 MIG-23 대응전술을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스페로우 미사일을 동조시키도록 스위치를 전후 조준기도 켜다. 레이더 작동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총발사시 내가 해야 할 손가락 조작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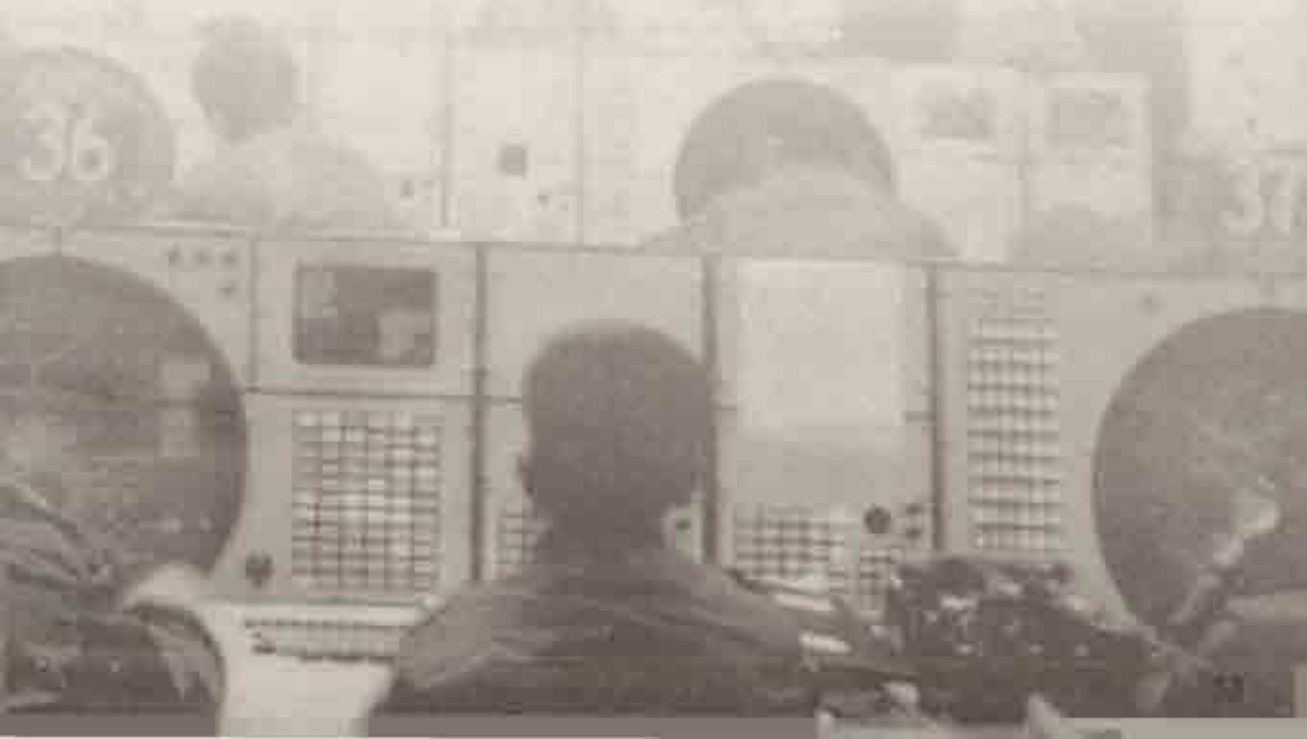
항공기 계기와 연료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스페로우 미사일이 정상작동임을 가리키

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꼈다. 최종 무장발사 스위치 작동은 잠시 보류하였다.

적기와의 거리는 무섭게 가까워졌으며 40마일까지 접근했을때 최종 무장발사 스위치를 켜다.

이제는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스페로우 미사일은 발사될 것이다. 잠시후 레이더상에 적기가 포착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이전까지 우리는 여너때처럼 적기도 다시 북쪽으로 기수를 돌릴 것이고 우리도 우리도 그에 따라 남쪽으로 기수를 돌리라는 지시를 받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습관처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랐다. 초(秒)가 바뀔에 따라 전개되는 급박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전의(戰意)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적기는 전방 좌측 30° 정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나는 교전을 결심하고 적기 포착사실을 관제소에 통보하였다.

임무전환 지시를 받은 후 불과 7분 후였다. 30° 좌측 29마일에 있는 적기를 이중 관 대령이 정확히 레이다로 LOCK ON하였다.

이때 내 눈앞에 북한의 순위도가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북방한계선 침범을 경고하는 시끄러운 경고방송이 폭포처럼 흘러나왔다.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였으

이 전개되었던 적은 거의 유일하였기에 관제사가 흥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고 적기를 찾았다. 눈으로 보아 분명히 적기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평생 우리 조종사가 해야 할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 순간 또다시 관제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로 급선회! 우로 급선회! 더이상 북진하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는 잠시 주춤했다. 여기서 우선회하

북한의 순위도가 눈에 들어 왔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북방한계선
침범을 경고하는 경고방송이 폭포처럼 흘러나왔다.
“우로 급선회! 우로 급선회!”

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내 모든 감각기관은 최대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적은 누구이며 적 조종사는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도 잠시뿐, 적기와 10마일까지 접근했다는 정보와 함께 무장발사 준비를 확인하라는 관제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한국전 이후 여러 유사상황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와 같은 급격한 상황

변 우리가 그대로 적기에게 팽무니를 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순간 11시방향 나의 시야에 아주 조그마한 점이 손살같이 접근해 오는 것이 보였다. 이때 1번기는 나의 우측 두시방향 1마일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1에게 교차선회를 지시하는 동시에 나는 최대출력을 유지하고 기수를 들어 적기를 향해 공격기동을 하였다. 커다란 스피클스가 앞날개에 하나씩 장착된 우유빛 MIG-19였다.

미그기는 11시방향에서 나의 정면하방을 통과해 그대로 우측으로 빠져 달아나는 중이었다. 1번기가 미그기의 후미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1번기가 미그기 후미 약 1마일 거리 이주 적절한 위치에서 추적하는 것을 보고 나는 즉시 여섯시 방향 경계를 하였다.

나중에 내려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당당시 우리 후방 약 20마일 정도까지 북한의 MIG-21기 들이 추적하였다고 한다.

스쳤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때 미그기가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귀순표시인 것이다.

한국전 이후 최초의 미그기 격추조종사의 영에는 이 순간 사라졌지만 우리는 마음이 흡족했다.

그때 우리 야군기들이 동쪽하늘 좌측 9시방향에서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까만 점들로만 보였지만 수많은 전투기들이 푸른하늘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련시절 만화

남쪽으로 계속 비행하는 MIG를 쫓아가면서
항상 공부하던 교전규칙의 내용이 머리를 스쳤다.
그때 미그기가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귀순표시인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북쪽에서 귀순 미그기와 조우하였다면 우리 편대는 미그기와 한 편 결전을 벌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남쪽으로 계속 비행하는 미그기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쏘기만 하면 여지없이 격추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적기 조종사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남쪽으로만 내려가기에 급급한 듯이 보였다.

항상 공부하던 교전규칙의 내용이 머리를

나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우리나오는 감격에 나는 잠시 몸을 벌었다. 너무나 마음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다. 연료를 확인해 보았다. 약 6,500파운드. 모기지화는 상당히 먼거리였으나 고도가 워낙 높았기에 연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후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귀순기를 수원에 착륙시킨후 모기지로 무사귀환하였고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 않은 무공훈장

을 가슴에 달았다.

돌이켜 보면 당시의 관제사는 우리에게 놀라울만치 정확한 정보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공군이 훌륭한 팀워크를 다져야만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 보람된 선배를 그 당시 관제사와 우리는 남겼다고 자부한다. 평소 같고 닮은 '훈련한 대로 싸운다'는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실천한

혹자는 우리가 전무후무한 완벽한 임무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이 좋았다는 말로 우리가 해낸 성과를 무심코 평가절하 하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수없이 있었던 조계 비행- 단순한 수평비행이 계속되던 임무를 수행할지라도 늘 여러 가상상황을 머리에 그리며 내가 해야할 조작과 공격 및 방어기동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다른 전술과목은 더 말할것도 없이 지상

후배 조종사에게 다음 두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하나는 평소 훈련시 목적의식을 갖고 훈련에 임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대상황의 정확한 인식하에

책임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다.

것이다.

이 글을 마치고 전에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우리 후배 조종사들에게 다음 두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그것은 평소 훈련시 항상 목적의식을 갖고 훈련에 임하라는 것이다. 모든 조종사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훈련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훈련의 효과는 자신이 어떠한 목적의식과 의지를 갖고 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확신한다.

에서 충분한 연구와 머리비행을 한 후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노력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운이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며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는 행운이 불운으로 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에게 닥쳤던 기체가 평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면 작전은 분명히 실패하였을 것이며 우리에게 닥

졌을지 모르는 비난과 공군이 또 다시 겪어야 할 불행에는 병약완화된 사실이었을 것이다.

두번째로 조종사는 시대상황을 정확히 보고 위기를 느껴야하며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사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보의식과 통하는 것이지만 특히 조종사에게 닥치는 여러사태는 그것이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사태로 급격히 변질 수 있

와 비슷한 북한군의 귀순사태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일수복 우리 조종사들은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모든 상황을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보고 평소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전규칙을 철저히 이해하고 현실로 닥쳤을때 정확히 상황을 판단,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불안과 계속되는 경제난은 과거와 중국의 귀순사태와 비슷한 북한군의 귀순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이제는 중국 군용기의 귀순사태는 거의 없어졌으며 수년전 대만이 귀순자에 대한 보상제를 없앤 후로는 더욱 그 가능성이 적어졌지만 그 대신에 아웅뎡찌 이후 끝난 북한 조종사의 귀순이 어느때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 못할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김일성 사후 계속되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구조와 계속되는 경제난은 이제 과거 10년전쯤 빈발하던 중국의 귀순사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쓸 기회를 주신 공군지 편집자에게 감사드리며 혹시 오래전의 일이라 수치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지라도 좀더 살갑나게 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공민**

비행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몸을 숙 내밀어
이날을 올려 본다.
비행기가 잘 오지 않는
남인의 작은 시골마을

수업이 끝나면
강기에서
물장구를 치고 애임을 치며
놀다가 지치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날을 향해
풀밭에 누워
비행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다 생각에 잠긴다.

인간쯤 되지
찾아 올까?
남쪽이늘 북쪽이늘
옳기 기며 날이기는 때가.

- 제15회 호국문예행사 동시부문 수상작품 -

공 / 군 / 논 / 딴

- 군용항공기의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
- 항전장비의 전자파 간섭현상
감소를 위한 제언
- Simulator Motion System에
의한 Sickness
-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의
아픈 기억

군용항공기의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

오 제 상

대령/국방과학연구소



I. 서 론

최근 수십년간 전자공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실에서 구현시키기 어려웠던 물리적인 현상을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시뮬레이터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비행훈련 분야에서도 실제 비행훈련을 할 경우 발생하는 항공기 감가상각, 연료소모, 정비, 비행사고에 따른 항공기/조종사 손실 등의 경제적인 이유에서 항공기 시뮬레이터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시뮬레이터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현실감 결여, 성능에 대한 의문, 방대한 데이터처리량 등의 문제점은 최근의 컴퓨터그래픽, 인간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병렬처리등의

연구에 의해 상당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미 해군 항공비행훈련의 경우 실제비행 대 시뮬레이터훈련 시간비율이 3:2에 이르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뮬레이터 운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컴퓨터의 저가격화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훈련관리, 학생훈련기록, 평가, 통제, 자원배분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화/자동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운용효율, 훈련과정의 일관성 유지, 행정처리에 따른 비용절감측면등에서 높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훈련중일때 컴퓨터 분석을 통한 통계자료 추출, 문제점 파악, 계획수립 등 신속히 결과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외 조종실절차훈련(CPT:Cockpit Procedure Train), 부분과목 수행훈련(PTT:Part Task Training)등에도 교관 통제, 영상처리 등을 위해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다.

II. 훈련체계분석

가. 분류

오늘날에 자동차 운전학원에서조차 자동차에 관한 학과교육 다음에 일정한 시간의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통한 운전의 안전교육 후 혹은 병행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운전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항공기 조종사 양성시에 지상학술교육 후 곧바로 실제 항공기를 탄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원래 인간은 고속 공중상황에 친숙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더우기 초중등과정에서 학생조종사가 비행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실제 비행을 탄다는 것은 비경제적(사고 유발)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관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시범이나 조종간을 가짐으로서 학생조종사들의 직접비행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시간에 따른 비행교육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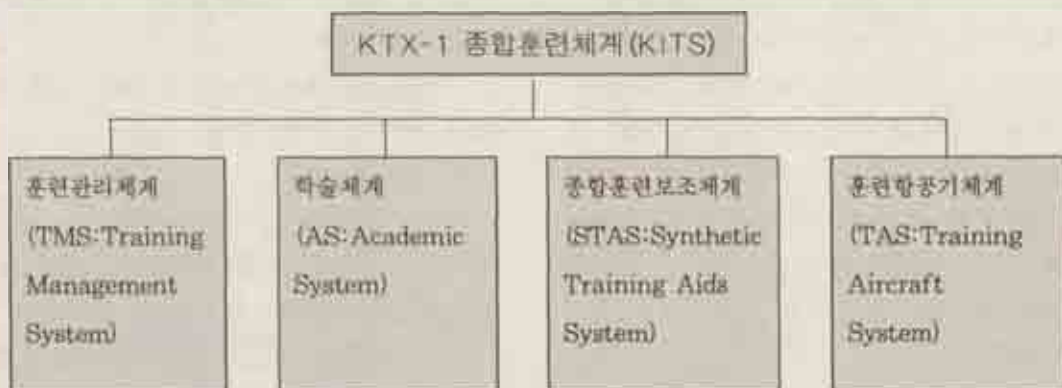
그러므로 비행훈련시간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를 위한 종합훈련체계는 다음과 같다.

나. 분류별 소개

1) 훈련관리체계

훈련관리체계는 학생조종사의 등록, 학과과목, 학생등급, 시험점수 등 각종결과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참고할 수 있다. 조종학생들의 각종 종합훈련 계획 및 관리가 용이하다. 훈련관리체계는 학생조종사들의 훈련취약점의 신속/정확한 발견이 가능하고 훈련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보완을 도우며, 행정체계, 성능관리체계, 훈련자원 배분체제로 구분된다.

행정체계는 다시 행정, 통제, 계획으로 나뉘는데 학생조종사 등록관리, 훈련과목관리, 비행 및 학술종합훈련 기록 관리(학생



훈련진도관리) 및 교관의 학생조종사 비행 특성 기록 관리를 자동화·행정처리하고 비행훈련과정의 운영에서 훈련계획에 따른 항공기 가동률 및 날씨영향 감독, 다양한 훈련요소 배합(비행/지상과목 및 항공기, 모의장비등) 및 조종사 개인별로 최소, 최대 요구시간 감독등을 자동화하며 현실성 및 연속성있는 비행훈련과목의 계획을 위하여 필요시에 재계획이 용이하도록 비행훈련과목을 계획한다.

성능관리체계는 한국공군이 유지해야 할 성능면에서 최소훈련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 되었으며 기록, 감독, 보고로 나누어져 학과과목과 시험자료, 최대, 최소, 평균점수, 표준편차, 합격, 불합격 통계 및 이수한 과목 목록등을 기록하고 시험결과 및 등급검색, 훈련목표 달성시간, 학생 개인 및 팀별 진척현황 파악 및 훈련시 주요 문제점을 감독하며 비행훈련 진척 상황 보고, 과정평가 자료보고, 장래 요구사항 및 대처방안을 신속하게 보고한다.

훈련자원배분체계는 훈련장비의 최대 유용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행훈련과정의 자료배포, 통제 및 감독, 각 과정 및 학생에 훈련자원할당, 자원의 가용성 및 현재의 상태 보고, 장래의 요구자원 판단을 위한 자료축적 및 각 학생조종사의 과정 진전에 따른 훈련준비 상태 및 이전 비행훈련결과에 따라 다음 비행훈련과목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과정에 따른 훈련자원 배분체계를 진상화 설계한다.

2) 학술체계

학술체계는 한국공군의 요구사항들로서 교과과목이 설정된다. 학술체계는 전산화보조교육장비(CAI)는 학생 개인별 보조에 알맞도록 학술체계로 크게 융통성 있게 설계 가능하다.

학습과목은 비행기 운용 교육(Aircraft operating instruction), 공기역학, 비행계기, 기상학, 시계비행운항 절차(VFR), 계기비행절차(IFR), 비행안전 및 항공 심리학등이고 학술훈련지원 장비로는 OHP, 35mm 슬라이드, 비디오 필름, 단판도 모델 등이 있다.

3) 종합훈련 보조체계

종합훈련체계는 훈련효율증대, 불안감 감소, 훈련비용감소를 위하여 다섯가지 세부하부체계를 갖는다.

가)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한국공군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비행훈련 시뮬레이터가 개발되고 시뮬레이터 운용은 12~16시간(시간/일)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시뮬레이터 능력은 실제 항공기 제원 및 성능면에서 정합성유지, 인공적 느낌과 모션 피이드백 생성, 6자유도 운동판의 가속도와 자세제어를 통하여 실제 비행감을 유사하게 구현한다.

또한 음향체계는 엔진 및 프로펠러, L/G 및 플랩의 UP/DN소리, 기상 환경음, 지상국 식별음 및 송수신 잡음등의 묘사가 가능하며 영상체계는 주야간 비행시

주변환경의 3차원영상을 projector로 실시간 제공 및 적진의 영상제공이 가능하다.

나) 조종실·절차훈련장비

PCT는 한국공군 요구사양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CPT를 통해 조종실의 정상, 비정상 상황절차 및 엔진조작의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다) 부분과목 수행훈련장비

PTT는 기본적으로 계기비행이나 항법같은 절차교육에 사용되며 단순한 컴퓨터와 모니터로 구성된다. 2개의 모니터에는 1개의 영상지도가 표현되고 다른 1개는 관련된 계기들이 표현된다.

제한된 계기비행이나 항법훈련을 위하여 항법지도나 조종실 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지원컴퓨터가 필요하며, 학생 스스로의 단계조절 훈련이 가능하다.

라) 전산화보조교육장비

전산화 보조교육장비는 학생조종사들의 개별학습용으로 지상학술교육의 중요한 과목들이 포함된다. 음향이나 그림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비와 가격이 결정된다.

다양한 자습교육장비로는 자가훈련용 문답식 훈련장비에서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학습과목교육, 정상/비정상 절차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마) 훈련보조장비

막업, 비디오 필름, 책/원판, 이동용교육 훈련보조장비, 단면도 모델 및 항공기 모델 등이 있다.

Ⅲ. 시뮬레이터 운용의 세계적 추세

독일공군의 경우 - 조종사 600명에 대한 180 비행시간의 시뮬레이터를 운용하며, TORNADO, F-4 실제비행훈련 대신 시뮬레이터훈련 10%시, 매년 1억 DM, 50%시 4억 DM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미공군의 경우 지상 비행훈련으로 실제비행 평균 33%를 대체하고 있다.

구 분	기본과정	고등과정	계
GBTS이전용(1962년)	132HRS	130HRS	262HRS
GBTS적용(1979년이후)	74.4HRS	101HRS	175.4HRS
관 소 율	44%	22%	33%

이는 세계적 추세로서 선진각국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행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비행훈련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고, 항공기 개발에 따른 노력과 시행오차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컴퓨터, 영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실용화를 증대하고 있으며, 지상 비행훈련체계라는 발전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Ⅳ. 결 론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 운용방안으로서, 전산화된 훈련관리체계, 항공기 시뮬레이터 등의 종합훈련보조체계의 활용으로 경제적인 항공기 비행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고, 시뮬레이터의 국내연구 개발로 후속 군수지원 용이, 신규훈련요소

	구분	항공기		시뮬레이터		계	
		시간 (HRS)	운영비 (\$)	시간 (HRS)	운영비 (\$)	시간 (HRS)	운영비 (\$)
미공군	GBTS 미작용	132	A	0	0	132	A
	GBTS 적용	74.4	$74.4/132 \times A = \text{원}$	120	$120/74.4 \times B \times 0.08$	194.4	$B + 120/74.4 \times B \times 0.08$
한국공군 (10%, \$175/h)	GBTS 미작용	100	17,500	0	0	100	17,500
	GBTS 적용	90	15,750	21	294	111	16,044
한국공군 1차수인원 (20명)	GBTS 미작용	2,000	350,000	0	0	2,000	350,000
	GBTS 적용	1,800	315,000	420	5,880	2,220	320,880
한국공군 1년(11차 수) 인원	GBTS 미작용	22,000	3,850,000	0	0	22,000	3,850,000
	GBTS 적용	19,800	3,465,000	4,620	64,680	24,420	3,529,680

발생시 간단한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훈련요구 충족이 가능하고, KTX-1, KTX-2 훈련기 개발과 병행해서 전산화된 훈련체계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미공군 사례를 한국공군에 적용했을 때의 비행훈련 비용절감을 예측해보면 미국방부 보고서(1982)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지상훈련체계 적용시에 실제비행훈련 감소율은 약 44%(미공군 중등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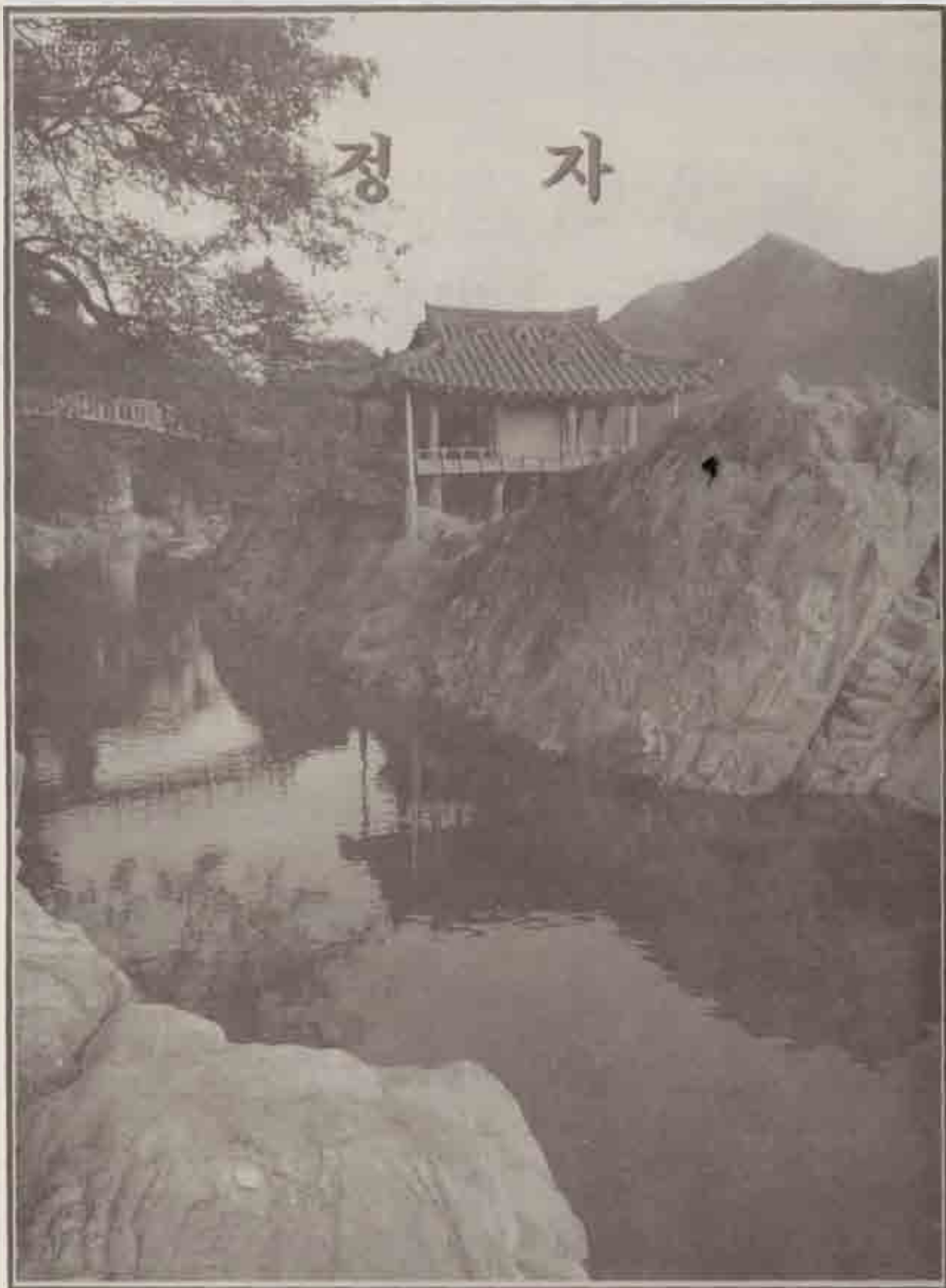
항공기 시뮬레이터 운영비는 실제항공기 운영비의 약 8%만이 소요되고,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행훈련 대체효과율은

약 0.48인 것으로 22개 항공기 기종의 운영분석결과 판단되었다.

KTX-1 운영비(KIDA, 1991. 6)를 \$175/h로 근거하면, 연간 약 \$320,320 ≒ 2억6천3백만원의 절감효과(\$1=820원일 때)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종합훈련체계 및 훈련관리체계 도입으로 실제 비행훈련의 기간단축, 비행안전 기여, 운용효율 증대, 비행훈련 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비행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한다. **당론**

정자



항전장비의 전자파 간섭현상 감소를 위한 제언

박 창 일

소령/공군본부 항공사업단



第 1 章 序 論

전자과학의 발달로 다양한 첨단 전자기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으로써 타 계통과의 전자파 간섭현상이 전자장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직계는 라디오나 TV의 잡음현상에서부터 크게는 자동차 공장의 로봇 오동작과 함께 항공기의 경우 탑재 전자장비의 작동방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기기의 작동에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간섭현상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간섭(RADIO FREQUENCY INTERFERENCE) 현상에서 처음 대두되었는데, 이는 라디오 방송의 수신에 간섭을 일으키는 전파잡음 문제만을 다루었고 그 대상은 대기층 잡음과 같은 자연현상들과 천기스파크와 같은 인공잡음이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장비로부터 방사되는 전자기의 복사정도를 나타내는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전파방해 없이 동작하는 전자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전자파 간섭은 1930년대 라디오 주파수

1960년대에 와서는 좀더 긍정적이고 포괄적 의미인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라는 불요 전자파의 방출을 억제할 뿐만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자파 환경에서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내성을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EMC는 신장비의 부품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험과 생산단계에 걸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었으며, 여러 다양한 잡음 제거 기법은 그동안 꾸준히 전자장비로부터 잡음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왔다. 그러나 EMC에 대한 고려는 장비의 생산단가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장비의 설계시부터 EMC를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첨단과학의 집합체라고 부르는 항공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자파 간섭의 문제는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항공기에 장착되는 장비의 개발에도 이제는 이러한 EMC현상을 초기 설계부터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간섭현상의 여러 발생상황을 현재 운용중인 항공기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의 전자장비들을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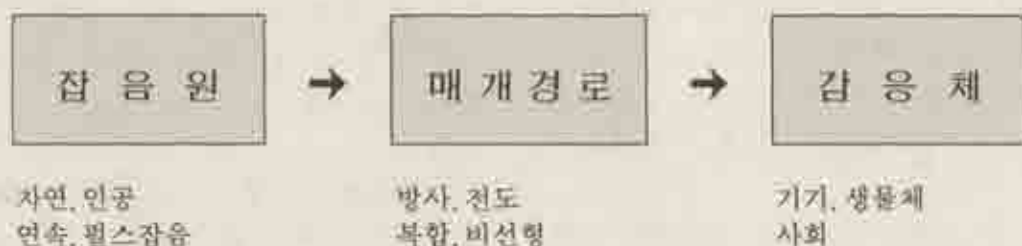
한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에서 간섭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몇가지 적용기법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적용기법을 항공기의 전자파 간섭현상 방지를 위해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는 전자파 간섭현상만을 전달하여 취급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설립함으로써 항공기의 결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第 2 章 전자파간섭 기본이론

第 1 節 간섭파의 전달경로

간섭파라고 함은 임의의 매체로부터 원하는 않는 전자파가 원하는 신호에 영향을 주어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신호를 왜곡시키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를 통틀어 일컫는다. 이러한 간섭파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전자파일 수도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파일수도 있다.

간섭파의 기본3대 요소는 <그림 1>과 같이 잡음원과 매개경로, 그리고 감응체로 구분할 수 있다. 잡음원으로는 자연적인 요인



<그림 1> 간섭파 전달의 3대 요소

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적 요인은 대기에서 발생하는 것과 태양, 은하계 등 외계에서 오는 것을 포함하여, 인위적 요인은 각종 전자기기들로 부터 나오는 것으로 레이다 전파나 통신 등에 사용되는 음도적 잡음과 스파크에서 기인하는 것과 같은 비의도적 잡음이 있다.

매개경로에는 방사성과 전도성, 그리고 복합성이 있으며, 방사성은 대기중에 전자기장을 형성하여 전달되고 전도성은 도체나 기타의 전도성 물질에 의해 전달된다. 즉 방사성은 안테나와 안테나, 장비와 선로, 안테나와 장비, 선로와 안테나, 선로와 선로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전도성은 선로와 선로사이의 공통접지선, 여파기 공통신호선을 통하여 발생한다.

잡음제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전자기기와 생물체가 이에 속하며 앞에서의 방사성 잡음원이나 전도성 잡음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되겠다.

第 2 節 잡음원의 分類

자연적인 잡음원이 비교적 저주파인 반면 인공적 잡음원은 비교적 고주파이면서 우세한 에너지 분포를 가진다. 인위적 매개경로와 형태에 따라 방사성 방해전파(Radiated EMI)와 전도성 방해전파(Conducted EMI)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성 방해전파는 안테나로부터의 전파나 방사나 도체주위에 형성되는 강력한 자장 등이 타신호에 방해를 주게되는 것이며, 전도성 방해전파는 접지선이나 상호연결된

도체를 통하여 의도하지 않는 전자파가 흘러 타계통에 유입됨으로써 방해전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 수신기 통과시의 기준대역폭을 기준하여 광대역 신호와 협대역 신호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파 간섭현상의 측정기준은 광대역 신호의 경우 주파수대역이 넓어 기준대역폭에 대한 진폭신호를 측정하고 협대역신호는 주파수대역이 좁은 경우이므로 단일 주파수로서 진폭만 측정한다.

第 3 節 전자파의 測定

전자파의 간섭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잡음원의 전파를 측정하는 것이다. 전자파의 정확한 측정은 간섭현상을 줄일 수 있는 철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비를 생산하여 시험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전자파 방출정도를 측정하고 과다한 유해전자파를 방출할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전자기기의 有害전자파 放出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측정장소의 문제이다.

보다 정확한 측정이 되기 위하여 주위에 다른 전자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가 반사되는 지형적 장애물이 없어야 하겠다.

그 대표적인 측정 장소로 전자파 무향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실내공간을 자유공간 상태로 만들어 주어 안테나 특성 및 레이다 단면적을 측정하고 반사가 없는 이상적 상태에서 전파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바닥에 전파흡수체를 부착하지 않을때는 이를 전자파 半無響室이라 부른다.

이는 야외시험장과 같은 效果를 가지도록 할 수 있으면서 야외시험장이 가지는 外部 환경에 대한 露出의 短點을 최대한 克服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야외시험장이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반사체가 없는 최소지역을 설정하여 妨害전자파를 測定하는 것으로 많은 제약조건이 따르게 된다. 이는 시험대상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잡음이 측정안테나에 직접 전달되는 경우와 접지평면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외에 일체의 전달되는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放出된 전자파의 측정장비는 센서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전자기장의 세기(Field Strength)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주파수에 따라 최적의 센서를 선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안테나 종류에 따라 일정주파수대역을 포착할 수 있는 範圍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측정에 스펙트럼 분석기나 자동동조 수신기등이 개발되어 이용됨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험장비들을 선택하고 교정하며 측정결과를 補正하기도 한다.

第 3 章 항공기에서의 電磁波 環境

항공기에는 많은 有無線 전자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空間의 制限으로 인해 密集되어 장착되어 있으므로 다른 어떤 시스템

보다 전자파 간섭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탑재장비들의 배치에서 부터 전송선의 접지, SHIELD, 그리고 무선 송수신 안테나의 부착위치 등 많은 조건들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심각한 전자파 障害現狀을 초래할 수가 있다.

第 1 節 전자파 발생장비

항공기에 장착되는 전자장비들은 많은 종류가 있으나 그중 중요한 몇가지 계통을 들어보면, 기본계통으로 通信계통, 航法계통, 飛行操縱계통이 있으며, 이밖에 레이더 및 電子戰계통이 있다.

가. 통신계통

항공기와 지상, 항공기와 항공기간의 플량을 송수신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자체의 내부 인터폰 기능을 제공한다. 통신계통에서 占有하는 주파수대역은 주로 UHF와 VHF대역, 그리고 HF대역이며, 송신출력은 10 Watt 정도를 사용한다. 근래 사용되는 통신장비 중에는 帶域擴散通信이라는 새로운 通信技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신계통이 전자파 간섭을 받거나 심할경우 통신이 杜絶되는 현상을 방지할수 있으며, 군용통신의 경우 保安性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신장비들은 주위의 고전압·고출력의 장비들로부터 유입되는 간섭파로 인해 잡음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航法계통

이 계통은 항공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지

점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많은 장비들이 사용되며, 이들중 電子航法, 慣性航法, 計器着陸裝置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밖에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LORAN(Long Range Air Navigation)장비들이 보다 정확한 항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전자항법장비인 TACAN(Tactical Airbone Navigation)의 송수신 주파수는 약 1GHz 대역이며 출력은 1Kw이다. 이들 장비들은 송수신 과정에서 간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나 他계통에 干涉原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精密 항법장비의 경우 약간의 干涉도 誤差를 증가시켜 비행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다. 飛行操縱계통

항공기가 비행하는데 필요한 기관이나 燃料, 油壓등의 상태를 계기로 나타내 주거나, 항공기의 자세유지를 위한 신호를 생성해주는 계통이다. 飛行操縱계통은 외부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신호로 變換하거나 기계적 信號를 전기적 信號로 만들어 전기·전자적 신호를 關係계통에 傳送하고 受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통에서는 외부로부터 간섭신호가 유입되었을때 계기상에서의 誤差를 발생시키거나 缺陷發生 코드를 시현시킴으로써 正常비행을 어렵게 한다. 특히 이 모든 장치들을 조정하는 컴퓨터계통에 간섭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비행이 不可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레이더계통

이 레이더계통은 民航機보다는 軍用機에 해당하는 장치로서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무기계통을 사용함에 있어 必須장비라고 할 수 있다. 레이더의 통상 출력신호는 160Kw의 고출력으로 10GHz 대역의 펄스파나 CW파(持續波)를 생성하여 송신한다. 따라서 항공기에 탑재된 많은 종류의 전자장비에 간섭현상을 가장 많이 초래할 수 있는 계통이다. 물론 고출력의 고주파가 타전자계통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수장비를 구비하고 신호선을 철저히 차폐하고 있으나 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 電子戰계통

레이다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장비라고 하면 電子戰계통은 적의 공격을 미리 확인하여 그것을 無力化함으로써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크게 두 部類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적 위협경보 受信계통과 적 레이더 攪亂계통이다. 前者는 항공기에 위협을 주는 적 무기체계의 발사나 탐지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이를 조종사에게 事前에 인지시켜줌으로써 조종사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後者는 적의 레이더나 무기체계의 무선주파수 수신계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출력의 妨害전파나 欺瞞전파를 송신하는 것으로 약 200Kw의 고출력으로 1 - 20GHz 대역의 전파를 발사한다.

적위협 수신계통에서는 적의 미약한 전파

도 感知할 수 있는 고감도의 수신기가 사용되므로 약간의 주파수 간섭신호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 적 레이다 방해계제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다와 마찬가지로 고출력의 주파수를 송신하므로 他전자계통에 심각한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도 항공기 외적 요소로서 지상과 관계계통의 많은 전자파 발생장비가 항공기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위협요소로 대두될 수가 있다.

第 2 節 전자파 간섭현상의 사례

항공기에서 전자파 간섭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가려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넓은 주파수대역에 걸쳐 동작되는 많은 계통들이 상호 聯關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항공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고출력의 전자파를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체 SHIELD선의 접지 위치가 그 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간섭현상의 분석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간섭현상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 장비중 위협경고신호 수신 장치에 있어서의 간섭현상이다.

항공기에 직접 위협이 되는 적 무기 발사 계통의 탐지, 포착, 발사신호를 사전에 感知하고 分析하여 그 위협대상을 조종사에게 인지시켜 주는 장비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신호의 수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전

차파 간섭현상으로 전자파의 특성이 변해 수신기가 다른 위협신호로 인식하므로 虛偽 신호가 시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간섭현상은 항공기내에 장착된 고출력 고주파의 타계통과의 간섭에서 오는 경우와 항공기 외부에서 수신되는 전자파와의 간섭으로 특성이 변했을 수가 있으나 이를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음성통신기 계통의 전자파 간섭현상이다.

항공기에서의 음성통신계통은 UHF대역과 VHF대역, 그리고 HF대역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他계통에 간섭을 일으킬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항공기에 형성되는 높은 전자장으로 인한 잡음이 항상 流入된다. 따라서 이는 통신에서 잡음이나 송수신시 차단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대역확산통신의 경우 이러한 내·외부의 간섭신호가 初期 同期時에 나타나면 통신의 큰 障害요소가 되거나 통신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셋째, 각종 指示器 계통의 SHIELD선을 통하여 흘러드는 잡음전류로 인한 전자파 간섭현상이다.

항공기의 指示計器 계통의 現狀態를 나타내는 물리적 값을 전기적 값으로 변환하여 조종사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때 導體를 통하여 흐르는 신호는 지주파 신호로서 외부로부터 실드선을 통하여 흘러드는 잡음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오차를 지시기에 나타낼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실드선의 접지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양단접지 혹은 한쪽접지를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드선의 길이와 접지위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으로 항공기에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전자파 간섭현상 몇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비록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간섭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양한 잡음원으로 인해 原因분석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항공기 상황에 맞게 전자파간섭 防止對策을 고려한 항공기 탑재전자장비들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부수적으로 발생가능한 전자파 간섭현상의 사례를 좀더 體系的으로 종합하고 분석하여 항공기 전자장비의 결함발생시 전자파 간섭현상으로 지인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정비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第 4 章 항공기에서의 干涉現象 減少를 위한 技法

第 1 節 도체의 SHIELDING 기법

항공기에서 導體의 완벽한 SHIELD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계통은 고주파의 發生 및 受信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영향은 전 계통에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고출력의 고주파 발생장치와 수신장치 사이에는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간섭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간섭현상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먼저 이

계통의 기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신호 전송선의 SHIELD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도체의 실드는 자체 전자파의 방사를 방지하고 외부로부터의 간섭파가 자체의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主目的이다.

도체의 실드는 그 자체는 전장의 효과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동시에 실드를 통한 전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磁場의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체에 흐르는 電流數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져 실드선의 틈새는 실드효과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실드선의 틈새를 없애면서 실드의 횡수를 증가한다. 때로는 도체에 알루미늄 포일을 감아주면 전장의 放射 및 侵入을 줄일수 있으나 이에따른 遮斷주파수의 증가로 자장에 의한 간섭현상이 증가하는 短點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잡음원의 전파경로를 볼때 잡음원으로부터 대략 $\lambda/2\pi$ 지점에서 전자파는 有機場에서 放射場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lambda/2\pi$ 이의 지역은 WAVE IMPEDANCE가 자유공간의 상태에 근접하나 이내 지의 즉 유기장 지역에서는 간섭현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잡음 방사체가 코전압 지전류일때 WAVE IMPEDANCE가 자유공간의 그것 보다 크게되어 자장보다 전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E/H)Z = 377\Omega$, E:電界의 세기, H: 磁界의 세기)

반면에 低전압 高전류일때는 $E/H < 377$ Ω로 되어 자장이 우세해 진다. 따라서 간섭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잡음원이 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간섭파의 주성분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실드의 종류와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즉 전장이 강한 지역에서는 導電率이 좋은 재료로 遮蔽하여 잡지하고 자장이 강한 지역은 투자율이 높은 페라이트나 鋼소강판을 이용하여 차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항공기에서 특히 실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 부분에 대하여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다와 같은 고출력의 고주파 발생장치는 전파원의 종류에 맞는 재료의 케이스로 철저히 실드해 주어야 하며 높은 주파수의 전송선은 가능한 도파관을 사용하여 輻射力의 損失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RWR(Radar Warning Receiver)수

신계통은 外部의 간섭파로부터 보호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수신장치와 케이스와 도체의 실드는 물론 적절한 잡지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셋째, 지주파 신호의 전송선일경우 잡지 선으로부터의 잡음전류가 실드선으로 유입되어 간섭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전송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실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기에서의 간섭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크게 놀랄 일은 못되지만 지나칠 경우 원래의 任務履行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실드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事前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第 2 節 導體의 GROUNDING기법 적용

앞 절에서 도체의 실드는 외부로부터의 干渉波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뿐만아니라 자체의 잡음원을 외부로 放出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실드선이 이러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림 3〉 거리에 따른 FIELD 특성

실드선의 적절한 접지가 先行되어야 한다.

앞장에서 여러가지 접지방범과 그에 따른 특성들을 考察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항공기에 이러한 기법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항공기에서 접지의 對象으로서 신호 전송선과 모터나 릴레이와 같은 잡음선, 그리고 케이스와 같은 하드웨어의 경우가 있다. 이 세 部類의 접지는 서로 直接연결 방식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서는 안된다.

먼저 전원선은 신호선과 함께 묶어서는 안될 뿐만아니라 신호선과 같이 접지하였을 경우 잡음원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신호선과 격리시켜야 한다. (60Hz 전원선일때 길이에 따라 일정 거리의 격리가 필요함)

計器의 指示계통에 전달되는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 저주파 신호가 많으므로 兩端접지 보다는 한쪽접지방식을 선택함으로써 GROUND LOOP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모든 실드를 단일 편에 연결하는 것은 신호선들 사이에 GROUND LOOP를 형성케하여 실드상에 잡음전류가 흐르므로 雜音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고출력의 고주파 발생장치인 레이더 계통의 送信部는 他계통과의 전자파 간섭현상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계통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항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가. 케이스와 케이בל 실드의 효과적 접지
나. 물리적 배치

다. 空間의 실드
라. 電源線의 필터링

항공기에서는 케이스의 접지선을 접지하였더라도 전위에 의한 EMI를 방지하기 위하여 $\lambda/10$ 이내에서 접지용 띠를 사용하여 접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축 케이블의 접지는 양단접지를 실시하며 이때 실드가 벗겨진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접지가 제대로 되지않을 경우에는 放射잡음이나 傳導잡음에 의해 교란될 수가 있다. 또 접지점의 주위의 잡음원에 의해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접지선으로 인하여 오히려 간섭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접지점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第 3 節 전자파 간섭현상의 관리

비행중 지시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신호신호가 나타나거나 하면 반대로 항공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신호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는 항공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指示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일단 이러한 오동작 현상이 발생하였을때 실제 그 원인이 간섭현상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장착된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를 밝혀내야 하는데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했으나 첨단장비를 장착한 신형 항공기가 개발될수록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파 간섭현상에 대한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상황을 분석하여 전자파 간섭현상이 작용하였는지를 우선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정확히 진행되기 위하여는 각종 항공기의 전자파 특성(주파수대역별 작동장비 현황과, 고출력 장비 유무, 상호간섭 가능장비, 사용주파수의 특성 등)과 간섭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수신되는 전자파의 주파수특성 분석 및 해당지역의 전파 발생장비 등)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한다.

이를위해 자료 및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등 專門활동을 수행할 全權부서를 설립하여 이 목적에만 집중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파 환경을 분석한다는 것은 고도의 측정기술이 요구되며, 아울러 정밀한 측정용 장비가 소요된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지역에 비해 過多한 電磁波 발생장비들이 밀집된 현실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밀장비가 없이는 간섭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간섭현상을 把握하려면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장비에 대하여도 그 특성을 알고 있어야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全權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앞으로의 항공기 전자장비의 缺陷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단 缺陷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

로 예상되며, 그 중 상당수가 이 전자파 간섭에 의한 직간접적인 결합이 될 것이다.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危害현상은 앞으로 임무수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지금부터라도 간섭현상에 대하여 關心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解決策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第 5 章 結 論

전자파 발생장비들이 密集되어 裝着된 항공기에서 電磁波 干涉現狀을 제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 전자장비들이 항공기의 정상비행에 필수적인 만큼 간섭현상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간섭현상을 최소화하고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간섭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몇가지 技法들을 고찰하여 그것을 항공기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향상된 탑재 전자장비의 동작환경을 保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SHIELDING 기법과 GROUNDING 기법은 전자파 간섭현상 방지를 위한 가장 核心이 되는 기술이면서도 그 적용 대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설도방법과 접지기준은 해당 周波數와 주변 電磁波環境, 그리고 접지점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함을 알수있다.

항공기에서 高出力의 고주파는 他계통에

잡음원으로써 작용할 수 있으므로 케이스나 도체의 철저한 실드를 통하여 有害전자파의 傳播 및 放射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고감도의 RWR 수신계통은 철저한 실드와 접지를 통해 잡음원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중 실드선을 사용하고 兩端접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指示계통으로 전달되는 저주파의 전송신호는 접지선으로 인한 LOOP 전류형성이 커다란 잡음원으로 작용하므로 그 주파수에 따라 접지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대개의 경우 한쪽 접지방식이 有用할 것이다. 항공기에서 전자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때가 종종 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전자파 간섭현상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보다 발전된 신장비들이 전자파 간섭에 대한 考慮없이 개발되어 항공기에 장착되었을 때는 이러한 간섭현상은 심각한 飛行不能상태로 끌고 갈수가 있

을 것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대개의 경우 전자파 간섭현상이 그 原因이었음을 인지해 내기가 극히 어렵다는데 있다.

앞으로 전자파 간섭현상의 除去를 위해서는 좀 더 統籌발전된 EMC 概念하에서 항공기 장착장비들은 어느 정도의 전자파 環境下에서도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항공기의 전자파환경을 분석하여 정립함으로써 이를 항공전자장비의 整備계통에 종사하는 모든 整備士에게 간섭현상의 실체를 전파하여 정비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항공기의 電磁波 간섭현상을 集中 분석하고 관련자료를 전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여기서 간섭현상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IMULATION MOTION SYSTEM에 의한 SICKNESS

이 창 호

대위/제3515부대
항공전자정비대대



1. 서 론

현대과학의 총아로서 SIM의 역할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제 경험할 수 없는 가상 상황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항공기 관련 SIM의 개발로 조종사 훈련시 비용감소 및 안정성 증대와 고가의 첨단 무기 체계 운용능력을 배양하여 근래 유발되었던 중동 및 세계의 국지전쟁에서 그 효율성과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

특히 SIM의 상설중 형식 운영 체제에서 조종사 훈련에 따른 비용 감소 및 안전성 증대 효과를 절감하고 있으며, 직전사령부에서 발행한 안전 주제발표 자료상 1953년부터 1990년까지 항공기 추락사고 총 438건중 66%인 289건이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였음을 감안하면 근래 항공기 SIM의 도입은 향후 조종사의 비행 SKILL-UP의

효과뿐만 아닌 비상 처치 훈련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뿐만 아닌 자재, 장비로 인한 항공기 결함시 대처 훈련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와같은 SIM'에 대한 공군의 희망적인 기능에 의해 공군은 신기종 도입시 동기종 SIM'의 구매를 병행하고 있으나 현대 과학의 한계는 최종 사용자인 조종사에게 다수의 순기능 이외의 SIM'탑승시 두통, 멀미 증상의 역기능을 유발시키기에 전투기 SIM'에서 발생 하고 있는 SIM'

SICKNESS의 원 인 중 MOTION SYSTEM에서 기인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최종 사용자로서의 대책을 제시하려 한다.

2. SIM' SICKNESS의 유형과 예상 원인

SIM' SICKNESS란 SIM'를 이용한 비행시 수반되는 질환 증상으로, 약간의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으로부터 심하게는 현기

종 류	비 율 (%)
헬 기	26 ~ 40
초계기, 수송기	37 ~ 47
전 투 기	10 ~ 31

〈표1〉

1,186회의 미해군
SIM' 탑승결과
SICKNESS 경험비율

AIRCRAFT	Simulator	Headache
High Incidence		
SH-3	2F64C	30.5%
E-2C	2F110	20.4%
P-3C	2F87F	20.3%
CH-53E	2F120	16.8%
Moderate Incidence		
CH-46E	2F117	12.0%
CH-53D	2F121	9.1%
Low Incidence		
F/A-18	2E7	7.1%
F/A-18	2F132	4.2%
F-14A	2F112	0.0%
Total=1111		

〈표2〉

미해군 SIM' 탑승결과
HEADACHE 경험비율

증과 구토까지 동반한다.

더욱이 SIM' SICKNESS는 숙련 조종사일수록 증상이 심함을 보면, 실제 비행과 SIM' 비행간의 차이점이 그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고 경험한 조종사들의 의견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조종사들은 실제 공중에서 비행할 때와 최신 개발된 고가의 SIM'를 이용하여 비행할 때 동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가? 불행히도 그 대답은 확실히 동일하지 못하다.

이는 SIM' 비행시 '발생하는 CRASH(추락) 횟수만으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SIM' 비행시 매 회 한번 이상 정도의 의도하지 않은 CRASH를 경험한다. 이 CRASH 횟수는 실제 비행 훈련 시간과는 거의 무관하며 해당 SIM' 비행 횟수와 반비례함을 보면 조종사가 해당 SIM'에 적응해 갔을 알 수 있다.

가. SIM' SICKNESS 유형

SIM' SICKNESS의 일반적인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다.

- NAUSEA
- DIZZINESS
- HEADACHE
- SPINNING SENSATION
- EYESTRAIN
- VISUAL FLASHBACK
- MOTOR DYSKINESIA
- CONFUSION
- DROWSINESS

이 증상들은 통상 복합적으로 두 세개 이상 또는 경미하나마 전체적인 복합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NAUSEA와 EYESTRAIN은 조종사들이 주로 거론하는 증상이다.

각 항공기 SIM'별 조종사의 SICKNESS경험 비율은 표1, 2에서와 같이 헬기나 초계기, 수송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전투기 SIM'는 시각 장치외에 조종석이 좌석의 특정 부위만 움직이는 G-SEAT로 이루어진 반면, 헬기나 초계기, 수송기 SIM'는 시각장치와 조종석 전체가

시 기	비 율(%)
입무즉시	45
1시간 후	25
6시간 후	8

〈표3〉

742명의 미 육·해군 조종사의 SICKNESS 지속시간

움직이는 MOTION SYS'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SIM' SICKNESS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수시간 지속되는 증상임이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일부 조종사들은 8~10시간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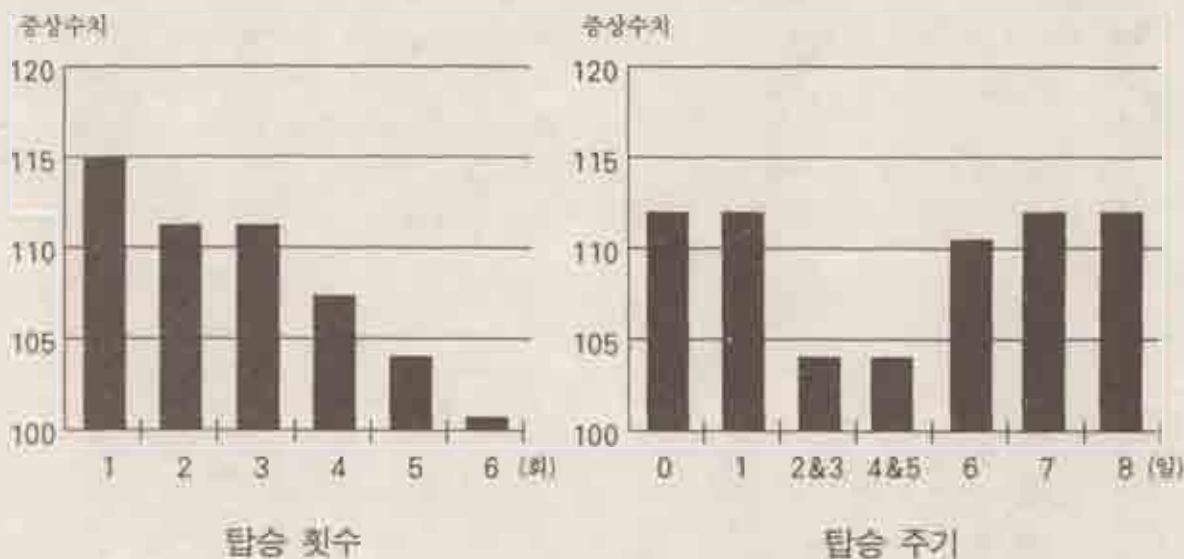
나. SIM' SICKNESS의 예상 원인

미 공군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SIM' SICKNESS는 비행시간이 많은 조종사(1,500시간)들과 특히 그들중 SIM'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 심하다.

이는 숙련 조종사들이 항공기와 더욱 친밀하므로 SIM'와 항공기간의 작은 차이점도 무의식적으로 쉽게 알아 차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상은 SIM' 5~6회 이상 탑승 후부터는 적응 기간을 거쳐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며 탑승 주기는 2~5일 간격이 가장 SICKNESS증상이 적게 나타남을 <표4>에 의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종사 SICKNESS원인을 예상하기 위해 인간 감각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는 주위 상황의 변화(조종석 내에서의 환경 변화)에 대해 시각적 감각기관과 비 시각적 감각기관의 감지(SENSING)를 뇌에서 종합하여 인식(PERCEPTION)하게 되며 이에 대한 반응(REACTION)을 관련 신체부위에 지시하게 된다.

이때 비 시각적 감각기관은 주로 촉각기(TACTILE SENSOR), 자기 수용 감각기(PROPRIOCEPTIVE), 피하기관(SUBCUTANEOUS SENSOR)을 통해



(표2) SIMULATOR 탑승횟수 및 탑승주기의 영향

주로 지각되는데 자기 수용 감각기는 內耳의 전정기관(VESTIBULAR SYSTEM) 관절(JOINT) 및 내부 기관(INTERNAL ORGAN) 등이 포함된다.

內耳 기관중 비정각 기관인 전정 기관의 삼반고리관(THREE SEMICIRCULAR CANALS)은 회전 운동 감각기로 각속도계의 역할을 수행하며 0.1 DEGREE/SEC² 이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기타 자기 수용 감각기로 신체 전체에 위치하여 머리의 운동, 몸통에 대한 팔·다리의 운동 및 내부 기관의 운동에 따른 근육의 확장을 탐지하고 촉각기는 신체 외부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나 힘을 탐지한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외부 변화는 복합적인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고, 신경학적인 신호로 변환되어 뇌에서 종합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의 판단기준은 대부분 사전 경험에 의하여 반복 교육된 판단자료에 의거하므로, SIM² 탑승시 감지된 각종 신호들이 실제 비행시 감지되는 신호들과 차이가 발생될 때 뇌는 그 인식 단계에서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이에 대한 뇌의 반응과 신체 기관의 통계 신호도 혼선을 조래하여 결국 조종사는 예상치 않은 SICKNESS와 STRESS를 경험하게 된다.

3. 전투기용 G-SEAT SYSTEM의 한계

항공기 훈련용 SIM²의 MOTION SYSTEM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6자유도

MOTION PLATFORM SYSTEM으로서 MOTION PLATFORM 위에는 조종석이 없어지며 3지점 각각에서 한 쌍의 HYDROIC CYLINDER로 저지를 받게 된다.

MOTION PLATFORM SYSTEM의 기하학적 형태는 다양하나, 통상 최대 회전 확장각이 $\pm 30^\circ$ 이므로 대부분 헬기나 수송기 SIM²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급격한 기동과 배면비행도 해야 하는 전투기 SIM²는 NON PLATFORM 형태의 MOTION CUE 생성 장치인 G-SEAT SYSTEM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된 조종석 내에 좌석 하단과 후면에 10~20개의 각각 독립된 CELL들이 유기적으로 상하운동을 통해 조종사에게 자기 수용 감각기관 및 촉각기 등에 항공기 비행과 유사한 자극을 제공한다.

강한 G에 대한 BLOOD-POOLING 영향에 대해 ANTI G SUIT가 전투기 SIM²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생리학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조종사에게 G와 관련된 훈련된 감각을 제공하여 가속 및 각 가속 변화들의 CUE를 인지하게 한다.

또한 엔진 추력 증가에 의한 기체 진동 및 기류 TURBULENCE와 피탄시의 진동 효과 제공을 위해 각 CELL은 수직적운동을 통한 대략 3~40Hz의 진동을 제공한다.

여기서 G-SUIT을 이용한 MOTION CUE 제공의 한 예를 들면, 실제 비행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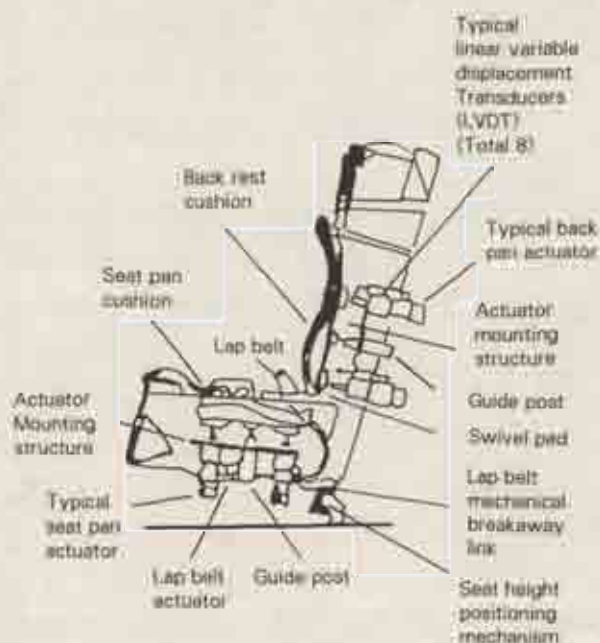
조종사가 좌선회 상태에 들어갈때 선회각에 비례하는 원심력에 의해 조종사는 <그림2>에서 보듯 α 각 정도의 몸의 기울어짐과 우측 다리에 무게 중심 이동으로 인한 초과압력을 느끼고,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REACTION으로 우측 다리 상단에는 더욱 심화된 압력을 느낀다.

G-SUIT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원심력에 의한 무게 중심의 이동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때 생성 예상 부위의 CELL 높이를 높여주므로 조종사의 우측 다리에 압력을 가하도록 작동된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 감각기관 시각기관을 통한 영상자료의 변화와 촉각기관을 통한 피부압력만으로 조종사는 각종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즉, 이 경우 작동하는 시각적, 비시각적 인지기관중 평형상태 및 각 가속도 인지 계통인 자기 수용 감각기 계통의 신호는 전무하게 되며 심지어 그림3의 경우 우측 SEAT의 상승으로 인해 미세하게나마 신체의 무게중심은 좌측으로 이동되어 자기 수용 감각기 계통의 인지 신호는 실제와 반대로 뇌에 전달되고, 이같은 반복적 오류신호와 감각기관의 불일치 (SENSOR CONFLICT)로 인해 각종 SICKNESS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G-SEAT SYSTEM만이 SICKNESS를 유발 시키는가, 그리고 MOTION PLATFORM SYSTEM을 사용하면 SICKNESS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그림 1>
G-SEAT SYSTEM

유감스럽게도 그 대답은 NO이다.

MOTION PLATFORM SYSTEM과 G-SEAT SYSTEM의 SICKNESS 발생 비율은 연구 기관 및 접근 방법에 따라 상이하나 미공군의 경우 MOTION PLATFORM SYSTEM이 높은 것으로 표1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4.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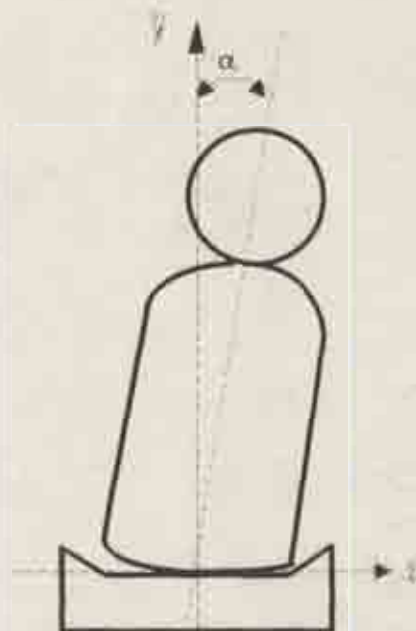
현 시점에서 SIM' 최종 사용자들은 SIM' SICKNESS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수해야 하기에 본 비행단에서는 SIM' 탑승후 일정시간 경과후 실제 비행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임무 직전에 SIM'로 연습을 하고 싶은 조종사들의 희망을 제한

하므로 SIM' 자체의 유용성의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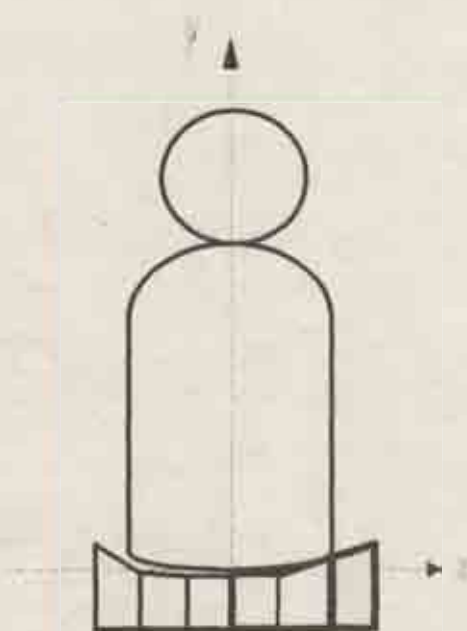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SIM' 관련 제작업체와 사용부서는 SIM' SICKNESS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SIM' 제작사들의 최종 사용자 중심의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각 제작사는 이론적인 검증은 거친 각종 SYSTEM의 적용시 반드시 최종 사용자의 의견과 실제적 탑승, 검증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FEEDBACK 시킴으로 SYSTEM 개발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는 SIM' SICKNESS 최소화에 노력해야 하기에 미해군 FIELD MANUAL중 몇가지 권장사



〈그림 2〉 항공기에서의 좌 선회시



〈그림 3〉 SIM'에서 좌 선회시

항을 소개한다.

- SIM' SICKNESS 증상에 관한 사전 지식 습득
- 훈련 조종사에게 각종 증상에 대한 사전 브리핑
- 선회시 영상화인이 필요치 않다면 눈을 감음
- 장 시간 탑승지 양 (탑승 시간과 SICKNESS 발생률은 비례)
- 영상을 끄거나 수평 직전 비행 상태에서 조종석 출입
- 필요치 않다면 GROUND TAXING, TURNING과 저고도 비행 삼가
- 2~5일 간격의 탑승 주기 유지.
- 비행중 SICKNESS 증상 발생시 MOTION SYSTEM OFF

- 두통, 감기등 다른 질병 증상이 있을때는 SIM' 탑승제한
- SICKNESS 증상 발생시 HEAD TRACKING/EYE SLAVED SYSTEM 사용 지양
- SICKNESS 증상 심화시 말미약 복용

끝으로 SIM' SICKNESS의 역기능은 SIM'의 준기능에 비해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서 SIM'를 이용하여 비행훈련및 비상조치 훈련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고 이런 우수한 SIM'를 제공해준 SIM'제작사들과 국내외 관련업체, 그리고 공군사업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당크**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의 아픈추억

최 회 수

중위/공군본부 정훈감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한다. 그럼으로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한 민족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반만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개되어 왔던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찬란하고 화려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기의 역사도 그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기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찬란하고 화려한 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되새기기 싫은 기억이라 할 지라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역사를 되새겨 봄으로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살릴 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역사의 한 편린을 보고자 한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틀라고 하면, 고려시대의 몽고지배기와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꼽는데 누구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는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외세의 지배 아래 빼앗겼던 가슴아픈 우리 역사였던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시대이다. 다음에 소개될 이야기는 바로 일제강점기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구한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금광의 광맥을 찾았거나 한 군데서 많은 이익이 쏟아져 나올 때, 흔히 '노다지'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손대자 마!'라는 뜻인 'No Touch!'의 발음에서 유래한 이 용어의 뒤편에는 1894년 반세 반봉건의 기치 아래 일어났던 동학농민 운동(혹자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필자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택한다)이 좌절된 뒤, 우리나라 경제가 반(半) 식민지 경제로 바뀌던 시기의 아픈 역사가 배어 있다.

1894년의 농민운동이 외세(淸, 日)의 개

미국에 넘기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 알렌이었다. 그는 1882년 미국이 조선과 수교한 뒤 주한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민비가 총애하던 민영익을 치료해 준 인연으로 왕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조선 왕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또한 미국은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조선의 경제 이권을 침탈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였다. 이미 1871년에 미국이 조선을 군사 침략(辛未洋擾)한 이유 중 하나가 '조선에 풍부하게 매장된 황금 개발'에 있었듯이, 미국은 일찍부터 조선의 금광 개발권에

운산 금광의 미국인 관리인들은 조선인이 광산에 접근하면 '금을 훔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무차별 총질을 했으며, 이때 No Touch! 하던 말이 변하여 노다지가 되었다.

입으로 좌절된 뒤,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은 광산 개발권, 삼림 채벌권, 철도 부설권과 같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이권을 빼앗으려고 굶주린 이리떼마냥 앞다투어 침략하였다. 이때 당시 부흥하고 부패했던 조선 왕실은 경제 이권을 지키기보다는 이를 팔아 자신을 보호해 줄 나라가 없을까 하면서 당시 강대국이던 제정 러시아와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이런 조선 왕실의 사정을 잘 알고 적극 이용하여 조선의 많은 중요한 경제 이권을

가장 근침을 흘렸고, 그 가운데서도 조선 최대 금광으로서 총생산량의 1/4을 차지하던 평안도 운산 금광에 눈독을 들였다.

알렌은 이런 사정을 알고, 본격적으로 운산 금광의 침탈에 뛰어 들었다. 그는 고종에게 접근하여 "운산 금광의 개발권을 미국에게 넘겨 주면, 돈이 필요한 왕실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며, 운산 금광의 개발권을 미국에게 넘겨 주도록 고종을 설득하였다. 알렌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고종은 마침내 운산 금광의 개발권을 미국인 자본가에게 넘겨 주기로 하였다.

알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신문에 "조선의 금광은 좋은 시설과 기술만 있으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임금은 하루 5~10전의 싼 값이므로 금광 개발로 인한 이익은 막대하다."고 선전하여, 운산 금광을 개발할 미국인 자본가를 모집하였다. 이 광고를 보고 나타난 미국인 자본가가 모스(J. Morse)였다.

그는 알렌의 중개로 1895년 7월, 고종과 금광 개발 계약을 맺었다. (한편 그는 운산 금광 세굴권 이외에도 경인 철도 부설권을 갖게 되었다.) 계약 조건은 '채굴 기한 25년, 소유 자본 가운데 1/4은 왕실 소유, 광산 채굴에 필요한 자금·기기 등의 면세'라는 특혜였다. 그런데 모스는 자본이 부족하여 개발을 하지 못하고, 1897년에 운산 금광 채굴권은 다시 미국인 자본가 헨트에게 넘어갔다.

이 때 헨트는 계약을 다시 맺어, 고종이 가진 주식의 1/4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개발권을 완전히 독점하였고 계약 기간도 1938년까지 15년을 더 연장하였다. 필요하다면 20년을 더 연장하여 최소한 1958년까지 독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헨트는 동양광업 주식회사를 세우고, 미국인 감독관, 일본인 기술자, 팔레시아와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산 금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미 이 곳에서 광산을 개발하던 조선인 광산 주인과 광산 노동자들은 강제로 쫓겨나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광산 개발 지역이라고 하여 주변지역에 널따랗게 울타리를 치고는,

이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던 조선인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았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인 토지나 산, 집 등에 대해 한 톨의 보상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알렌은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이용하여 미국인 광산 관리인에게 "만약 그곳의 조선인 관리가 말을 듣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이 그 관리를 바꾸어 버릴 테니 즉시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미국인 광산 관리인이 조선인 농민을 두 차례나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미국인 관리인들은 조선인이 광산에 접근하면 '금을 훔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무차별 총질을 했으며, 이 때 "No Touch!"하던 말이 변하여 '노다지'가 되었다. 이렇듯 그들은 광산 개발권의 탈취에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주권까지 유린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기 전인 1930년대까지 운산 금광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통계 자료가 없어 그 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당시 미국인 감독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897년~1915년 사이의 금 생산액만도 약 4950만원이었다고 한다.

약 4950만원, 이 액수는 현재의 화폐 가치로 따질 때 얼마만한 금액이며,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 무렵, 한강 철교공사에 든 비용이 약 40만원이었다고 하니, 4950만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10년 8월, 일본이

선언한 한일 병합의 구실 가운데 하나가, 조선 정부가 일본에 진 빚 45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산 금광 하나만 미국에 빼앗기지 않고 개발할 수만 있었다면, 일본에 진 빚을 갚고, 나라를 잃는 절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운산 금광은 결국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의 운산 금광 채굴권 획득은 곧바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중요한 경제이권들을 빼앗기는 구실이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여하였고, 몇달 후 다시 러시아인에게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의 삼림에 대한 채벌권을 허락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서 프랑스인 상사(商社)인 뫼브 리에(Fives Lille)회사에게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주었고, 영국인 상사(商社)인 호름링거(HolmRinger)회사에게는 인천지점 개설권을 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 경제는 제국주의 열강의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값싼 노동력 시장이라는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 구조로 탈바꿈해 갔다.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 오늘날의 우리는 흥겨울 때 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

‘노다지, 노다지, 금 노다지...’ 오늘날의 우리는 흥겨울 때 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러나 그 흥얼거림에 얽힌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금광 개발권을 주었으니, 자기들에게도 공평하게 경제 이권을 달라며 달려들었다. 미국에게 운산 금광 개발권을 넘겨준 것이 계기가 되어 경제 보호의 벽이 한번 무너지자, 경제 이권 침탈은 광산 개발권에 그치지 않고, 철도 부설권, 삼림 개발권 등 한 나라 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 기간 산업과 지하 자원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만 들어 보면, 모스에게 운산 금광 채굴권을 준 시기와 동시에 러시아인인 니시첸스키(Nisichensky)에게 함경도의 경원·경성 광산 채굴권을 허

려나 그 흥얼거림에 얽힌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쩌면 가난에 찌든 당시 우리 백성들의 한을 노래하는 듯 결코 흥겨울 수만은 없는 이 ‘노다지’는 한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에게는 조선의 경제이권이 ‘황금알을 낳는 기위’와 같은 그야말로 ‘금노다지’였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자신의 중요한 재산이면서도 스스로 개발할 수 없었던 ‘금단의 사막’과 같은 ‘No Touch!’였던 것이다. **【당문】**

부 · 대 · 탐 · 방



▲ 축소모형장비를 이용한 교육



▲ 각종 장비의 정비교육 장면



▲ 시청각 교육을 위한 방영실 내부

학교교육은 양성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양성교육은 신병별 초임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수교육은 관리직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무기전문교육, 지휘통솔 능력배양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 수료전 습득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 결산하는 전술종합훈련(장교·하사관 병 과정)이 통합하여 장비 이동 설치, 작전 임무수행, 전술조치 등의 종합훈련은 실무적응 및 적용의 연계성있는 통합훈련으로서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포교는 교관뿐 아니라 시뮬레이션에서도 각종 첨단 장비의 시청각 시설 등을 구비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교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체계의 무기체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요원들로 구성된 전문부서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방공포병부대의 전투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공군 방공포병학교는 이상과 같은 시설과 활동들을 통해 일발일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을 길러 각 부대에 배속함으로써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참병을 육성하는 막중한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공군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며 이들을 정예 용사로 길러내는 방공포병 학교가 있는 한 조국의 하늘은 평화롭고 안전한 영공이 될 것이 틀림없다.

부 · 대 · 탐 · 방

이 학교의 주된 역할과 임무는 무엇보다 방공무기 및 운용에 관한 교육이다.

당 학교에서는 현존 방공전력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방공유도무기 체계 즉 지대공 장거리 유도 미사일, 니아키와 지대공 중거리도 유도 미사일 호크 그리고 단거리 무기의 발칸과 휴대용 유도 미사일 미스트랄, M56, M40포 등의 무기 운용과 정비 그리고 방공포병 전술, 전기기술 실전 심정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체제는 각 무기체계별 이론 및 실습교육과 전술 및 지휘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크와 니아키 무기 운용은 포대 통제소 및 각종 레이더로 구성된 사격 통제 그룹과 발사대 및 유도탄으로 구성된 발사 그룹으로 나뉘어져 이론 교육후 실무부대 여건과 동일한 호크, 니아키 포대에서의 실정비 실습을 통하여 배출후 즉각 전투작전 임무 수행 가능토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호크, 니아키 포대에서는 각 정비를 1/5로 축소하여 만든 실제 기능과 동일한 모형정비(Mock-up)를 보유하고 있어 실의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비지원대에서는 호크, 니아키 무기에 대한 예방 및 이진정비 수리 기술을 이론 및 실정비 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단거리 무기인 발칸, M56/40mm포를 위시하여 최신에 휴대용 유도탄 미스트랄 무기에 대한 집중 교육으로 '84년 1월 부터 운용요원을 배출하고 있다.



▲ 니아키 발사대 레이더 정비교육



▲ 단거리 유도무기 미스트랄 조작교육



▲ 발칸포 교육장면



▲ 나이키 발사대 교육장면



▲ 호크발사대 작전통제실 교육장면



▲ 나이키 발사대 작전통제실 교육장면

정확한 이착륙기를 가리며 올라와 지는 별사들의 우렁찬 함성, 굉음을 내며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나이키 발사대의 위용, BCO에서 들려오는 조금은 유란한 모터소리와 전 지면을 그려가 하면 교실에서 들려오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 활기찬 대화의 토론 웃음, 그리고 이 모든 풍경들 속에 함성 보이는 빨간 모자와 초록색 모자, 실재없는 호루라기 소리를 알개로 38주년을 맞는 공군 방공포병학교의 모습이다.

공군 방공포병학교는 공군사에서 도 조금은 색다른 이색지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당 학교가 1967년 육군 고사포병학교로 창설된 이래 71년 광주 포병학교와 77년 대구의 육군 방공포병학교 시절을 거쳐 81년 7월 1일 효율적인 통합전력 확보를 위해 공군으로 전이된 독특한 전력대우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군하면 으레 비행기를 떠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은 생소한 방공무기 분야의 체계와 전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당 학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의 영공을 방위하는 임무를 어디 하늘이라는 공간으로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저성대사부터 적의 침공을 저지하여 영공을 지키는 것 또한 공군력의 한 부분으로써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이렇듯 공군 전체에서 방공포가 갖는 중요성이 점차 증진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경계공군 방공포병 장병육성을 목표로 방공포병 요원을 양성하는 방공포병학교의 역할 또한 오늘날 더욱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방공포병학교를 찾아서 ...

一發必墜 百發百中の 정예 방공포병 육성의 요람



방공포병학교는 적의 영공침입을 지상에서부터 저지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정예방공포병 요원을 양성하는 교육 부대로서 현존 방공전력을 구성하는 나이키, 호크, 미스트랄 등의 방공유도무기와 발칸, M55mm, M40mm포 등의 운용과 전술전기들을 실전상황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사진은 호크발사대 교육장면)

제9회 공군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 대회

— 온몸으로 가르는 푸른 창공 —

제9회 공군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 대회가 10월22일 (토)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1995년 토함산 대회 이래 전군 최고 수준의 대회로 발돋움한 금년 경기에서 대학부와 일반부에서는 삼각거리 경기 방식을 통해 이재성 공군사관생도와 최근수씨가 각각 개인 최우수상을, 공군사관학교와 운봉클럽이 각각 단체 1위상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생도 퍼레이드와 고공 낙하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으며 500여명의 관람객들이 모여 인기 항공레포츠인 행글라이딩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 이륙장소인 성무봉을 이륙하는 순간



▲ 온몸으로 느끼는 시원한 비행감





▲ 교육시령부에서는 지난 10월 7일 이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비성 일들시장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21세기를 대비한 군 발전방향'이란 주제하에 '94추계 한국 군사운영분석 학술대회가 계룡대 기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이훈구 부총리겸 국토통일원 장관의 축시장면 (10.28)

PHOTO N.E.W.S



▲ 제 3726부대 237대대가 8만 시간 무사고의 기록을 수립
김종래 참모총장의 치하와 함께 표창을 수여받았다. (10. 28)



▲ 수석에 취미를 가진 육·해·공군 장병들의 수석연합 회원전이 계룡대
개나리 화관에서 열려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다. (11.5~11.7)

PHOTO N.E.W.S



▲ 제 3591부대 201 대대도 7만시간 무사고 기록을 수립, 시상식을 가졌다. (11.15)



▲ 계룡대에 근무하는 중령 이상의 간부들이 국토대청결 운동에 솔선수범, 계룡산의 명소 숲옹추에서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2.3)

壽♥石♥사♥랑



황 의 철

원사/제3515부대 인사처

취미생활로 흔히들 말하는 등산, 테니스, 낚시, 골프, 분재, 난...

서로의 취미는 다를지 몰라도 오천만의 한민족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가지씩 취미가 다 있을 것이다.

나는 취미생활로 수석모으기를 좋아한다. 내가 수석모으기를 좋아하여 탐석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누구의 권유도 아니고 수석을 많이 모아 재산을 형성하여 잘살아 보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냥 수석에 관심이 있어 79년도 갈봉비

행단에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생활로 탐석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덕분에 수석 전문가가 될 때 비록 수준높고 값비싼 명석은 아닐지언정 나의 마음과 우리 집안의 허전하고 적적한 공간을 배워줄 수 있는 몇점의 수석을 소장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낚시와 분재에 취미를 가졌었다. 그런데 낚시는 낚아 올릴 때의 짜릿함이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 흐른뒤 남은 것이 없었고(고기는 씹어버리니까), 분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답시고 했건만 뉘뉘이 말라죽는 경험을 하고 나니 더이상 고귀한 생명을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생각 끝에 '돌은 변치않을 것이다'고 생각

을 하고 돌 수집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내의 수석가게 주인의 조언을 들었으며, 가게 주인의 권유로 배주말이면 탐석활동모임에 따라가게 되면서 아제는 제법 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

돌! 돌들은 말을 한다.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돌들은 말을 한다. 내가 가끔 시간이 있어 돌들을 어루만지며 손질할때나 출·퇴근전 돌을 보며 물뿌리는 스프레이로 밥을 줄때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자태를 뽐내며 말을 한다.

스마일형으로 생긴 돌은 누구라도 볼때마다 항상 밝게 웃으며 화가난 사람도 웃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웃음을 팔고 있는 돌. 아주 못생기고 억울하게 생겨서 누구나 볼때마다 인상을 쓰고 못생김을 한탄하며 칭 그리고 울고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나쁜 표현을 최대한 토해내는 돌. 어떤 돌은 벼랑에서 떨어지고 바바람에 할퀴어져 여기 저기 몸이 깨지고 일그러진 채 아프다고 소

리지르는 돌, 또 어떤 돌은 한 폭의 산수를 자아내며 춘·하·추·동의 산을 연상케 하는 돌. 구멍이 크게 뻗 뿔려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과 후련함을 나타내는 돌. 아무 것이든 주는대로 배불리 먹어 배가 많이 나와 식적대는 비만형을 나타내는 돌. 몇 년을 굶었는지 바짝 말라서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돌. 전쟁터에서 파편을 맞았는지 여기저기 구멍뚫린 돌, 그중에서 가장 아끼는 돌은 크로마뇽인을 닮은 인물석인데 이는 82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주운 것이다. 원래 앞사람이 먼저 보기는 했는데 발로 차고 지나가 버린 것을 쫓아가 주워보니까 마음에 들어 나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보기만해도 웃는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상을 쓰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밖에도 산 모양을 닮은 돌, 그리고 뱀돌처럼 구멍이 뚫린 관동석도 내가 아끼는 소장품이다.

이 각양각색, 천태만상의 돌에 대하여 열거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

돌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



이 지나도 변치않는 심장생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쳐다보아도 싫증이나 짜증이 나지 않는다. 우주와 자연을 그 속에 가득 담도 여럿이서 같이 감상할 수 있어 또한 좋다.

그러기에 정감을 느끼며 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돌은 산이나 강 또는 어느 곳이든 팔이 뻗어 있다.

그러나 수석에 전혀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돌들이지만 비파말에 켜지고 수천 수만년의 세월이 새겨준 영원한 진리와 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타내는 현대판상의 돌들, 내가 92년 9월 충원지역 수석동호인 모임을 결성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다/

날로 각박해지고 공해와 오염으로 점점 더럽혀져가는 이 지구상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다줄 한 폭의 자연이기에 남다른 조건을 지닌 군인들 이지만 군무에 충실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을 찾아다니며 자

연과 진숙해 지고 또한 개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병 및 군무원중 수석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석동호인 모임 "석심회"를 결성하였다.

이제 막 태어나 걸음마조차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연륜이 아주 적은 동호인 모임이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으로 승화발전 시키고, 석심회원들이 탐석한 예석들을 한자리에 놓고 부대내 전장병 및 군무원이 감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부대내에서 수석전시회도 개최하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수석전시회에도 출품하여 석심회원 개개인은 물론 제3515부대를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 석심회 회원들이 굳게 뭉쳐 탐석활동을 계속하는 한 언젠가는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명석탐석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어젯밤 이 글을 쓰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딘가에 명석이 살짝 한부분을 드러내며 나를 기다리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부인과 아이들에게 꿈이야기를 나누면서 탐석가기를 제의하였다.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의 꿈이야기를 듣고 싶어는 많은가보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만든 김밥, 음료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봉지를 차에 싣고 꿈꾸었던 장소를 찾아 가족탐석을 나갔었다. 돌밭에 도착하여 배낭을 둘러메고 찾아봐도 찾아봐도 꿈에서 나타났던 명석은 보이지 않고 돌밭을 한없이 헤맨 덕분에 배에서는 벌써 배고프다고 소식이 왔다.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아내가 만든 도시락과 준비했던 음료수로 배를 채우며 가족간 서로 바빠 못다했던 대화를 마음껏 나누었다.

돌이 있기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화기에애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며... 오늘 찾지 못하면 다음에 또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일생에 한번은 꼭 만져볼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천하명석 탐석의 꿈을 안고 탐석활동을 계속할 작정이다.

마지막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은 점점 삭막해지고 썩들어가는 자연환경과 남다른 조건을 지닌 불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수석에 취미를 가지고 탐석활동을 계속한다면, 전국적으로 수석인구가 많아 어느 산지를 찾아가도 명석은 고갈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천하명석이 숨어 있으리라 믿는다.

'나도 한번...' 하는 장병들을 위해 한마디 남기고자 한다.

수석에 입문하려는 사람은 경험많은 사람들의 탐석활동을 따라다니면서 돌 고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돌을 고르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나도 초심자였을 때에 모든 돌이 다 좋아보여 닥치는대로 줍다보니 한 자루 가득 담아 겨우겨우 메고 온 적이 있다. 경험자들의 버리라는 말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서는 많은 돌을 내다 버리기도 했다. 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돌의 불편성만큼이나 인내하고 묵직한 심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동근**



“당신들은 모두 양반이요”

이즈 500년을 단숨에 개혁(甲申政變)하려다가 실패한 서재필(徐載弼), 그후 10년간에 걸친 미국 망명생활 끝에 귀국해 그가 처음으로 민중 앞에서 한 말은 “당신들은 모두가 양반이요”였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한 만민(萬民) 평등사상(平等思想)을 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재필 박사의 말씀 속에는 ‘민주주의란 모두가 상놈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양반이 되자는 것이요’라고 새길 수 있지요. 사회와 인간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서재필 박사의 민주주의식이 우러러 보입니다. 서재필 박사는 손아래 후배들한테도 존댓말을 썼다고 하지요.

조국 광복이 되어 귀국하셨을 때 일입니다. 1947년 3월 10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10주기였습니다. 당시 명동 시공관에서 있었던 추도식에는 이승만, 김구, 서재필 선생 순으로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맨 먼저 이승만 박사는 조국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신 도산 선생을 애석해 하는 울음 소리로 만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김구 선생께서는 두루마리로 질서있게 세운 추도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세번째로 등단하신 서재필 박사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한인들에게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도약하고 비난하고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울고 불고 어떻게 할 모릅니다. 독립하는 나라의 국민은 이때서는 안됩니다.”

서재필 박사의 유해가 조국 땅에 4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어른의 공적이나 그가 우리 겨레에게 남긴 유산은 이미 많이,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주둥이 되어 세운 독립문도 서대문에 남아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서재필 박사님의 무덤을 찾아, 그 어른이 사신 세월과 그 어른이 겪으신 고난과 남기신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은 당직 사관님께서
관물함 상태를 검사
하셨다고 한다

어떤 신세대



내가 내무실장으로서 먼저 사전
점검을 실시 하겠다



넌 옷 좀 빨아
입어라



어제 전입한 우리 막내는
특별히 바치야 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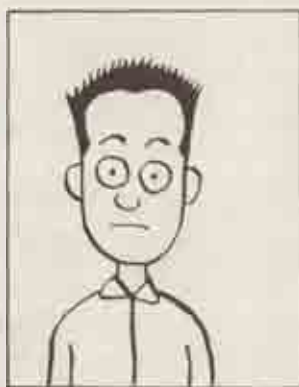
세면백 좀 꺼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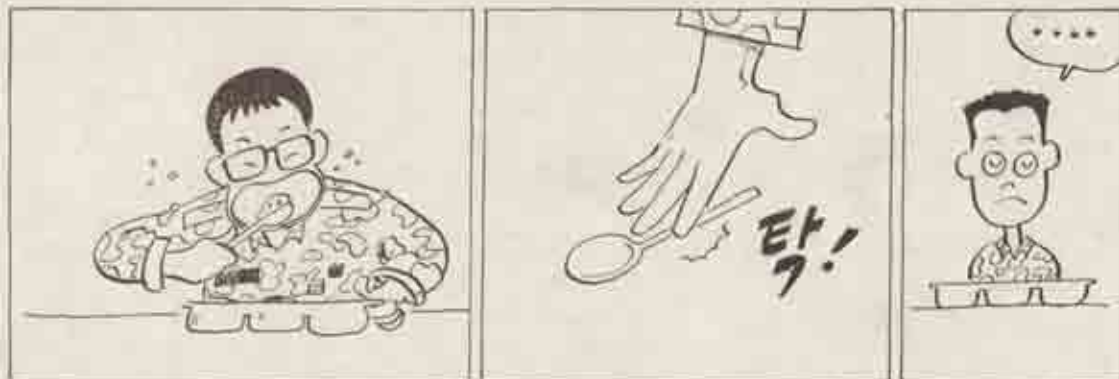
이게 다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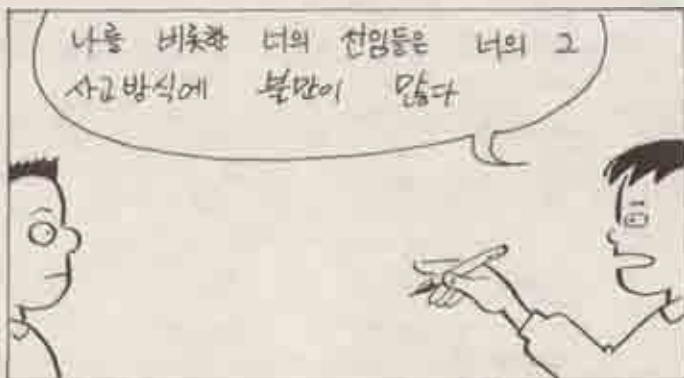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떤 신세대입니까?
 스스로 개선하려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는 멋진 신세대입니까?
 아니면 겉보기 뿐인 나약한 신세대입니까?
 멋진 모습으로 신성한 의무를 값지게 수행합시다

2000년



에베레스트 등정

— 변화는 쉬운 것부터 절저히 —

산악인들은 무조건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봉에서 시작해 험난한 산악 코스들을 두루두루 거친 후에야 티벳으로 향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바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게 아니죠. 그 후로도 또다시 길고 긴 준비와 적응 훈련을 하면서 점심을 함께 한 계단씩 발이 올라갑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자세도 에베레스트 등정과 같습니다. 쉬운 일, 간단한 일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덟 시간 자는 사람은 하루에 5분만 잠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팔굽혀펴기를 5회씩만 하고 배운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음식에 물을 한 방울씩만 넣어 먹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일 분씩만 바뀐 나가더라도 365일, 3650일을 계속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뀔 줄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벌 사람, 겹을 사람, 앓을 사람

— 변화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

‘앓을 불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앓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변할 수 있는 의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도저히 변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벌 사람은 뛰고, 겹을 사람은 걷고, 걷지도 못할 사람은 앓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능력,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잠시 앓아 쉬더라도 널 뛰고 걷는 데 방해하거나 지나가는 길에 드러눕는 뒷다리 잡기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뛰는 사람들을 걸루하는 대신, 잘 한다고 박수쳐 주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체력을 회복해서 걷다가, 더 회복하면 뛰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뛰는 사람 역시 앓아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격려해 주고, 빨리 걷고 벌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진정한 동지애와 단결된 힘이 발휘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앓아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갈 때 뛰어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일정 기간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단지 쉬는 동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공군문단

★독후감

- '한국상고군사사'를 읽고

★수필

- 아빠 사랑해

★시

- 눈오는 날을 기다리며

★장병들의 이야기

- Mission First, Satety Always
- 겨울나기
- 선택된 나
- 신병의 다짐
- 따뜻한 커피한잔
- 알찬공군

★영화감상

- 나와 주위를 돌아보는 게기가
영화 '발췌X'를 보고

독후감

‘韓國上古軍事史’를 읽고

진중문고로 배포된 「대조선제국사(大朝鮮帝國史)」를 읽고 저마다 느낀 감정은 다를지라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그 책을 읽으면서, 세계를 움직였던 우리 민족의 장대함과 아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세계로 펼쳤던 그 기개에 가슴이 뛰고, 온 몸이 뜨거워옴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韓民族의 역사속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공군정신교육원이나 국방정신교육원에서 몇 번의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上古史가 일제시대의 날조된 한국역사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부터 韓國의 上古史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리라 마음먹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던 중 「대조선제국사(大朝鮮帝國史)」를 통하여 새삼 일깨워진 우리의 역사를 펼쳐보게 된 것이 다행이지만 스스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국 上古史에 관련된 「단기고사(檀奇古史)」, 「한단고기(桓檀古記)」등을 통하여 우리민족 上古史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에 「한국상고군사사(韓國上古軍事史)」를 접하면서, 現代史에서 또는 古代史에서의 戰爭史외에는 미흡했던 한국의

上古時代 軍事史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풀어주는데 이 책은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임진왜란때에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만 자랑할 뿐, 정평구(鄭平九)가 만든 ‘바거(飛車)’가 30리를 날아 왜군의 포위망을 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신기전(神機箭)’이 세계 최초의 ‘다연발포켓’이라는 사실은 그 분야 학자들 몇 사람만 알 뿐, 이를 가르치는 선생들조차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지경이다.

무예(武藝)만 해도 그렇다. 동양무예(東洋武藝)가 바로 동이무예(東夷武藝)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에서 정동제 무기가 처음으로 「치우천왕(蚩尤天王):배달(倍達)나라 14세 환웅(桓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과 정전제(井田制)로부터 비롯된 치수법(治水法)이 하우(夏禹)에게 전해지면서 단군조선의屯田兵制(屯田兵制)가 중국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숙신(肅愼):朝鮮의 이두식 발음」의 활과 화살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뛰어난 무기여서 오랜동안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공물(貢物)로 바쳤

다고 하며 왜곡하는 데도 우리는 그런 줄만 알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 역사의 뿌리를 캐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여 몇 권의 책을 내면서 上古時代 우리 무예와 軍事에 관해 집한 많은 자료와 강의내용, 논문 등을 정리한 후 戰史동 군사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韓國上古軍事史』를 펴내게 되었으며, 이 책을 통하여 동양에 있어서의 軍事武藝의 뿌리가 동이문명(東夷文明)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중국에 전수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上古時代—삼국시대 이전— 동이거레의 군사전반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다. 東夷거레는 배달(倍達)거레이며, 우리 거레인 韓民族을 말한다. 東夷거레의 활동무대는 한반도와 만주는 물론, 중국대륙의 동쪽이다. 이곳을 누비며 文明을 일으키고 文化를 꽃피우면서 세력을 키웠던 東夷거레의 軍事史는 東夷거레의 역사 바로 그것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군사상고사(韓國軍事上古史)』는 전체 6장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한국시대(檀國時代), 배달(倍達)나라시대, 단군조선(檀

君朝鮮)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의 武藝倫理, 동양武藝의 源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6장 동양무예의 원류에서는 우리 조상이 누비고 살았던 지금의 중국대륙의 동쪽은 한족(漢族)의 땅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東洋武藝가 東夷武藝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중국무술이라고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중국무술이 東洋武藝의 뿌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져서 우리 것을 바로 알고 찾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民族史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 역사의 뿌리와 줄기를 바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면이 세나라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더구나 우리처럼 어려운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일수록 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民族的 自覺이라는 바탕위에서만 보다 나은 내일이 약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必讀을 권하고자 한다. **동근**



권 이 현

대령/공군본부 기획참모부

- 朝鮮: 원래 우리 말음은 '유신'이며, 그 뜻은 우리 배달민족이 사는 온 누리를 뜻하며
 - '유신'의 이두의 한문표기는 朝鮮, 韓, 朱世羅, 眞, 文眞, 後世들이다.
 - 唐風, 苗風, 勿吉, 靺鞨, 女眞, 靺鞨들의 民族이 唐들은 모두 '유신'족과 동일한 배달민족이다.
- 김산호 저, 『大朝鮮帝國史(대유신제국사)』 동아출판사 1994.

아빠 사랑해!

우리집은 아파트의 중간인 3층에 살고 있다. 아파트 바로 뒤에는 담벼락이 있고 그 너머엔 소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야트막한 동산이 있다.

그 어느해 보다도 더웠던 올 여름철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지더라도 하면 비 바람속에 푸르름을 한아름 안고 우리집에 다가오는 소나무의 향취와 노래소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부풀어 준다. 우리집은 다른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하겠지만 「가화만사성」이라는 가훈을 모토로 하고 있다.

물론 만인에게 있어 가정은 소중한 삶의 안식처요 생활의 터전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따뜻한 가정을 중심으로해서 만남은 시작되었고 이웃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사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곧 사회요, 사회속에 가정이 있기에 가정의 활력이 곧 사회로의 활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 따뜻한 가정을 축으로 우리 집에는 가장 큰 행복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아들, 딸을 일컫는 것인데 사내는 믿음직해서 좋고 딸아이는 애교만점이라서 엄마, 아빠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하루일과가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여 현관을 들어서면 꾸러기(아들)와 토끼(딸)가 두 손을 번쩍들고 “아빠 사랑해!” 하며 달려나와 꾸러기는 내 목에 걸터앉아 목마타고 토끼는 품안으로 파고들며 거실로 향한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노래 배웠는지 알아?” 하고 물으면 “글쎄 우리 토끼는 어떤 노래 배웠을까? 한번 예쁘게 불러봐요”하고 대답하면 잘봐 아빠! 오른발 왼발 뛰어라 돌아서 돌아서 앉았다 일어나...” 고사라 짙은 손과 발을 열심히 흔들며 흥겹게 노래를 한다. 그러면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내아이는 “아나 즐겼어 이렇게 하는거야”하고 해방을 놓으며 노래를 한다. 이에질세라 딸아이는 더 큰소리로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른다.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다투곤 한다. 이럴때 나는 “동생이 예기니까 동생 먼저하고 오빠는 나중에 하는 거야”라고 오빠를 달래며 순서를 정해주면 사내녀석은 “싫어 나 안해”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고 난 싫어해”하면서 무뎛뎛하게 들어서 버린다. 해서 나는 딸아이에게 하루에도 한번씩 하는 작전을 쓰게 된다. “우리 토끼는 아빠 사랑해”하고 물으면 “응

아빠 사랑해"하고 대답을 한다. "그런 아빠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우리 토끼도 오빠 사랑해"하고 물어보면 잠시 생각을 하다 슬며시 "오빠 사랑해"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들, 딸을 감싸 안으며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제일 사랑한다."하는 말로 달래미 가슴 가득 끌어안게 된다.

이러한 내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는 애들 엄마가 입가엔 옅은 미소를 머금으며 바라볼 때 "이게 바로 행복한 모양이구나."하는 상념에 늘 젖게 된다.

물론 일련의 이러한 일상들은 평범한 보통 가정에서 반복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일들을 통한 가정에서의 따뜻한 행복을 알고 살아오는지 모른다. 누구나 평화와 기쁨, 행복을 찾고 있겠지만 그것은 생활주변에 가득한 작은 부분과 일상 생활들을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할 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일 것이다.

「삶이란 다른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요, 다른이와 가진것을 나누는 것이며 다른 이와 협력하여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의 얘기가 요즘들이 가슴저리게 다가오고 있다.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된 삶의 자세는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회의 한 지면에서 깊은 세정으로 맺어질 때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그 모든 행복의 출발은 가정이기요 한 가정에서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이요, 참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가정에서의 사랑을 통해 나의 사무실에서 이어기려 노력하고 있다. 자칫 매마르고 딱딱하게 흐르기 쉬운 군대내에서 서로가 사랑의 실천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사랑이라는 아름다움으로 풀이 버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랑의 질점 다리를 쌓자, 우리 우리자, 토끼의 힘자고 밝은 합창 소리를 들으며 "아빠 사랑해!" **동근**



이 봉 길

소령/8531부대 관제반

저 멀리 푸르름을 기다리며

저 멀리 보이는 저 큰 산위에
푸르름이 사라진 회고 맑은
모습을 기다립니다.

양상히 남은 나무가지에
화려하게 장식하도록 소복히
쌓이는 눈을 기다립니다.

뛰어 노는 아이들처럼...
뛰가 그리도 좋아서
날뛰는 강아지처럼
즐거운 모습을 보기위해
하얗고 맑은 눈을 기다립니다.

하얗고 작은 솜가루가
파란하늘을
뒤덮는 그 날을 나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눈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천 사 웅

하사/제8793부대 근무지원대

Mission First, Safety Always!

제237대대 창대 20주년 및 8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기록 수립을 맞아

공군 제237 비행대대는 1974년 10월 10일 지금의 서울기지에서 14대의 O-2A 항공기로 탄생된 이래 20여 성상이 홀려 巔冠의 나이가 되었다. 이제 어엿한 공군의 주역이요 하늘의 統制官으로써 그 역할을 능숙하게 감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237대대를 통하여 양성된 A/FAC(Airborne Forward Air Controller) 조종사만도 200여명에 이른다. 그간 공군 우수비행대대(83년) 및 공군 우수비행안전대대(87년) 수상경력과 올해 10월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수립(75. 10. 23~94. 10. 11)이라는 찬란한 업적을 이루어 왔다.

또한 서울기지에서 창대되어 원주기지로 이동(75년) 다시 서울기지에 입성(92년)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이년간 空, 地, 海 합동작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왔다. 우군의 지·해상군과 근접하여 대처하고 있는 적을 지·해상군의 화력만으로 격멸하지 못할 때 또는 조직적인 화력지원 및 통합이 요구될 때 지·해상군이 요청에 따라 전술 공군력을 투입하여 표적을 공중

공격하는 임무인 CAS(Close Air Support : 근접항공작전)의 통제관 역할이 바로 237 대대의 주임무인 것이다.

따라서 표적에 대한 전술기의 공격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이루어지도록 공중에서 유도통제하는 역할과, 전장상황의 명확한 분석 및 폭격피해 평가(BDA : Bomb Damage Assessment)를 산정함으로써 장차 작전구상에 있어서 전력운용에 유용한 최신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장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역할로 인하여 육·해상군 화력의 오묘한 조화는 물론, 각군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간의 이해증진에 牽引車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O-2A 항공기의 CAS에 대한 기여는 월남전에서 입증된 바 있다. O-2A 항공기가 드리운 그림자 뒤에는 엄청난 후속전력이 예고되어 있었다. 베트남 전사들은 O-2A항공기 소리만 들어도 魂飛魄散하였고 그들의 척주는 무참히도 무너졌던 것

이다. 그후 한반도에 도입되어 팀스피리트, 울지 포커스렌즈, CAS EXERCISE 및 육군의 사단, 연대, 대대급 기동훈련에 이르기까지 근접항공작전이 요구되는 그 어떤 장소에도 0-2A 항공기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차 전쟁의 주요 거점이 될 F-51B를 주무대로 동해에서 서해 그리고 남해에 이르기까지 237대대 조종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우마차가 지나갈만한 작은 교량에서부터 단 한채뿐인 건물에 이르기까지 A/FAC 조종사의 입을 통해 설명이 가해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는 위장되고 은폐된 적의 숨통까지도 A/FAC 조종사에 의해 TARGET으로 식별되어진 한 전투기에서 리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지형을 항법을 위해 참조하지만, 우리 237대대 조종사들에게는 그 엔진가 자행될지 모를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지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국토의 일부로, 하서라도 항공표적화 할 수 있는 TARGET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조국의 산하를 손바닥보듯 원하게 파악하고 비행에 임하는 대대원들 가슴속에 스며있는 국토사랑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더우기 한반도의 짧은 전투종심과 그에 따른 적과의 근접된 전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확실한 적의 식별과 정확한 공격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전장특성 때문에 A/FAC 조종사들의 책임과 사명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우기 과거 일련의 戰史와 걸프전을 통

하여 대두된 육·해·공군 화력의 적절한 조화와 공군력의 효율적 운용이 현대전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는 현실속에서 공군의 唯一無二한 공중 통제관으로써의 자부심은 가일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많은 근접항공작전을 수행하여 오면서 한반도 전장특성에 맞는 CAS 교리를 발전시켜온 결과 MASS CAS 및 PUSH CAS 개념과 같은 새로운 CAS 교리를 도출하여 낸 것이다. 이제 신 CAS 개념에 입각하여 그동안 성숙된 기량을 바탕으로 현대 근접항공작전이 요구하는바 다량의 전력을 신속, 정확하게 전장투입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방향으로 戰技를 연마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창대 20주년 성년을 맞이하여 237대대원의 가슴에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 신 CAS 개념과 현대 근접항공작전의 양상은 더 빠른 TEMPO와 더욱더 다양한 성능을 갖춘 통제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의 長期就役한 0-2A 항공기는 때때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날로 증가하는 적의 지대공 화기위협과 전자전을 포함한 통신제압 등 전장환경 변화는 우리 A/FAC 조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발휘와 사기에 차해요소로 남는다. 새로운 성능과 능력을 구비한 통제항공기의 출현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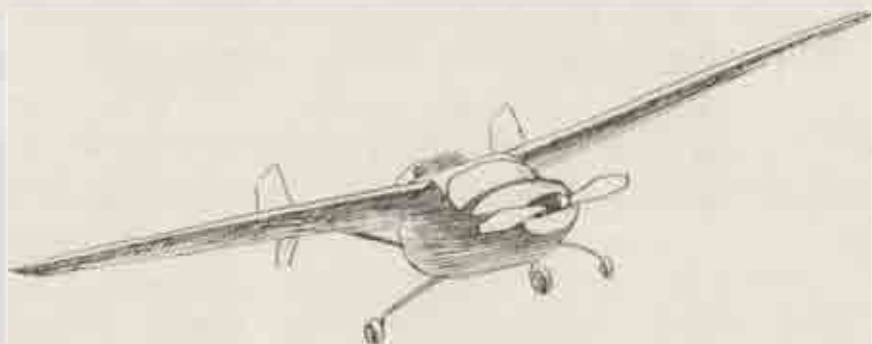
실례로 걸프전에서도 A-10 및 F-16과 같은 최선에 항공기가 CAS 임무에서 PATH FINDER와 KILLER SCOUT 역할을 수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그러나 성숙된 기량의 소유자인 237 대대

원은 이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 또한 대단하다.

적의 대공위협 유효사거리 밖에서 사용 가능한 원거리 표적 MARKING (STAND OFF사격) 방법을 개발 적용중에 있으며 통신제방을 극복할 수 있는 제한된 장비보유와 기타 장비의 보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더우기 237 대대원은 대대장인 하정태 중령 취임이후 天下二三七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如蘭(주해:온누리의 237인들이 마음을 합하면 금강석도 자를 수 있고 그 한마디의 말은 난의 향처럼 천하를 진동시킨

다.)이라는 뜻아래 人和團結로 결속을 다지고, 역대 선배조종사들의 뜻을 받들어 溫故知新하며, MISSION FIRST, SAFETY ALWAYS라는 새로운 구호로 뭉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기필코 完遂하고, 나아가 철저한 安全意識으로 전력손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起爆劑로 空軍初有의 最長時間 무사고 비행대대 기록수립을 꿈꾸며 근접항공 작전의 성공적 수행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 창대 20주년을 기념하여 서예 대가이신 一中 金忠顯 선생께서 친필로 하사하신 현판을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새롭게 내건다. **63**



김 기 준

대위/제3726부대 237대대

겨울나기

아침에 일어나 세면을 하기 위해 세수대야에 손을 넣었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손끝으로 스며드는 찬기를 느끼면서 이제 바야흐로 겨울이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느낀다. 머리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털어 내면서 달력을 살펴보니 오늘은 이십사 절기 중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언제부터인가 계속해서 접수되는 월동대비 관련 문서들이 있었음에도 나는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겨울이 다가옴을 애써 거부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동안 우리 부대가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많은 월동준비를 해야 따뜻한 겨울이 되리라. 적지 않은 일과중에서도 오늘은 부대차원에서 겨울철 싸리비를 배려하는 작업이 계획된 날이다. 낮, 장갑, 고무마, 라면등을 챙기고서 병력을 동원하여 부대 인근에 위치한 야산으로 작업 감독을 나갔다.

차창밖으로 펼쳐진 황금 들녘은 마음의 포근함을 안겨주나 옷깃을 파고드는바람은 더이상 가을의 향취를 전해주지 않고 조금은 매섭게 느껴졌다. 목적지에 도착! 모두들 숫돌에 날을 세우고 싸리나무를 베러 흠어져갔다. 나는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서둘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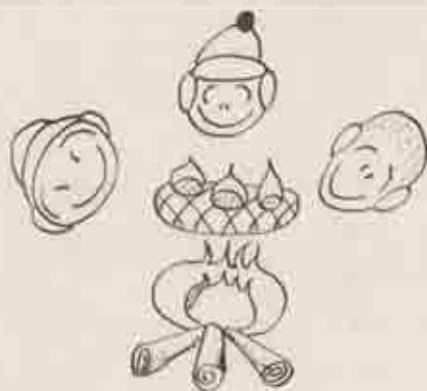
그렇지만 열심히 싸리를 베면서 문득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군대의 겨울은 싸리비를 만듦에서 시작된다."라는 글귀를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 왔다가 이제서야 비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에선가 짧은 외침이 들려왔다. 얼핏 어리숙으로는 '아! 안전사고가 났구나! 낮에 배인 것일까? 아니면 뱀에게 물린 것일까?' 등 여러가지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갔다. 그러나 애써 그러한 생각들을 부정하며 소리가 난곳으로 달려갔다. 도착해서 보니 이상병이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발을 줄고 있었다. 부대 주변 야산인지라 사람들의 손이 닿지않아 밤나무 밑에는 굵은 알밤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잠시 불길 했던 생각과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알밤들을 열심히 전투복 옆주머니에 주워 담으며 다람쥐들에게 약간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많이 주웠는지 걸을때마다 전투복 바지가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오전 작업을 모두 끝내고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박이병이 전입후 처음으로 부대에서 야외로 나왔다는 해방감에 들며 달걀을 가지고 오다가 들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

에 통닭라면의 꿈은 무산되었지만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또한 별미였다. 후식으로는 부대 텃밭에서 캐온 고구마를 삶아 먹고도 모자랐던가 작업 도중에 주운 밥도 구워 먹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 어디에서 구했는지 합석판을 하나 구해서는 못으로 구멍을 뚫어 석쇠를 만들어서 밥을 구워 먹었다. 다 먹고난 장병들의 입주위와 손은 그윽음으로 모두 새까맣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의 우수한 얼굴을 쳐다보고는 모두들 배를 잡고 한바탕 웃음 바다를 이루었다. 잠깐의 휴식후 오후 작업에 들어갔다. 한 시간 가량 싸리나무를 더 베고난후 베어 놓은 싸리나무를 한곳으로 모아 차에 싣으니 꽤 많은 분량이 되었다. 이렇게 베어낸 싸리나무가 한 자루의 싸리비가 되기 위해서는 잎사귀를 말리고, 털어내고, 몇개의 다발로 나누어 철사를 베고, 불필요한 부분을 톱으로 잘라 내야하는 등 여러단계의 손질을 해야 한다.

• 이처럼 한자루의 싸리비를 만드는 마을과 정성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한다면 단한권의 월동사고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날수 있으리라. 작업후 돌아오는 차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런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올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될것같은 예감이 든다. **당근**



이 기 원

중위/제8531부대 관제반

선택된 나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약 3~5억마리의 정자중 오직 한마리만이 난자와 결합하여 인간이 태어난다.

그토록 많은 정자중 하나, 이것은 투쟁이라기 보다는 神의 선택이 아닌가 싶다. 그로보면 과연 인간은 고귀하고 위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귀중함을 잊은채 살아가고 무언가 뜻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스스로 자학하고 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기 일생에 오점을 남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단 한번의 판단 잘못으로 살인, 사기등 각종 범죄행위로 인하여 囹圄의 몸이 되기도 하고, 퇴색된 음주 문화로 저지른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발생된 추태는 그 여파가 그일생을 좌지우지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실로 짧은 60~70의 인생旅程 속에 20여년의 학창 시절을 빼고나면 그리 많지 않은 삶을 망쳐버리는 例가 바일비재 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군업의 길, 이는 과연

선택된 길일까?

물론 모든 직업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랴 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수없이 말들을 한다. 이에 반해 모든일에 나는 선택 되었다 라고 생각 한다면 능률도 기쁨도 두배가 될 것이다. 궂은 일도 내가 선택되었고 좋은 일도 내가 선택된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가장 바라는 전급이나 포상 또는 유리한 선발과정에서 내가 뽑혔을 때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저 우연이 아닌 본인 자신의 최대한의 노력의 결과로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또한 궂은 일에도 내가 아니면 동료나 선배나 후배나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도 내가 선택되었다는 자세로 임할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순간의 희열을 느끼려 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공군 의무요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대민의료 자원을 나가곤 한다. 그 곳은 중증장애자 요양 시설로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자 가는 곳이다. 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정신 박약아, 지체 부자유자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생각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된다.

그들은 본인의 선택과는 달리 가정 환경적인 요인이나 특수한 질병속에서 그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衣食만이 해결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배움도 없고 말조차도 통하지 않고 자의

생각없이 살아 가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채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는지 그저 감사할 뿐이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때는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모르는 법이다. 그가 중증에 시달릴 때라야 건강의 참 의미를 알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질때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국가와 사회에서 선택된 자로서 보답을 해야 할 것이다. **당근**



송 영 남

삼시/제3515부대 항공의무대대

신병의 다짐

힘든 훈련소생활 속에서 부르던 이동병의 원지라는 노래가 가슴 뭉클하고 코끝을 찡하게 했는데 이젠 그러한 낭만조차 가질 수 없고 짝을 볼 시간도 없는 바쁜 병생활. 그러나 나에겐 커다란 목표가 있다. 꿈을 목표로 바꾼지 얼마 안됐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다. 작은 계획부터 실천하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틀 나는데로 영어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군생활 동안 더욱 깊이 공부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군에 온 지 3개월. 졸병이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잠을 줄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누구나 새해가 밝으면 지창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지만 한 두달 지나면 실천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정도 아니면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은 결코 아니다. 나와 삶의 좌표에 직선을 긋는 것이다. 인생이 두번 이라면 한번은 멋있게 늙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인생은 뭐가 의미있게 살 것이다.

나 또한 군생활이 끝나면 미리카락을 모두 짊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려한다. 어리석고 유치한 것에 웃고 즐겁게 계

미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그것은 이미 첫번째 인생에서 얼마든지 했고 두번째 삶에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다시 국민학생이 된다면 아니면 중학생 몸이라도 된다면...". 아버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 "내가 너희들이면 크게 살아보겠는데...". 바로 이것이다. 난 20대라는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 나이가 40이면 지금이 시간을 그리워하고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난 또 지운 정열을 가진 젊은 사나이이다. 건강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서 꼭 큰 목표를 이룩하고야 말겠다. **공공**

서 태 민

이병/제5718부대
야전절비대대



따뜻한 커피 한 잔

얼마전 전역한 지병장을 생각하며 이 글을 씀까한다. 내가 자대에 전입을 온 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나와 다른 동기들을 불러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자기에게 말하라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던 것이 생각난다. 정말 보이지도 않는 황고환이었던 그분이 어쨌든 친분관계도 없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게 조금은 이상해 보였지만 같이 생활해보면서 전입오는 신병마다에게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분의 인간성을 알고나서는 정말 좋은 고참이고 때론 친구같이 때론 형님같이 느끼며 생활하였다. 비록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생활이었지만 정말 나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언젠가 내가 군에와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날이었다. 별일도 아니고 지금 내 신분이 군인이라는 생각에 크게 상심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생활했는데 어떤지 조금은 쓸쓸하게 보였는지 그분이 조용히와서 이유를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엔 알게되어 그날 저녁에 따뜻한 커피한잔을 같이하며 많은 좋은 얘길 나누게 되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오도록 고마웠고 정말 친형님같이 느껴지는 그 일이 아직도 그분에 대한 나의 기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그분이 전역하던날, 우리 내부실은 축하와 아쉬움으로 가득찼었다. 열심히 살기를 바랐고 혹자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나 역시 그랬지만 하지만 모두 사회에서도 성공한 지병장의 모습을 보려고 훈련 눈물이 아니었을까?

5개월이란 짧은만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의 지병장소식을 듣게되었다. 역시 성공시대의 성공인간이 되려고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말을 듣게되었다.

많은 일에 대한 책임감, 모든 일에 승전수범하는 자세, 때론 친구같이 때론 형님 같이 때론 알찬 고참같이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부러웠고 또 본받고 싶다. 앞으로 나의 군대생활속에 적지않은 시련이 닥칠지라도 고참으로서, 인생선배로서의 지병장을 생각하며 훌륭 털어버리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다. **정리**

박 노 태
병장/제5718부대
야전정비대대



알찬 공군

설 계 훈

일병/제3579부대
항공전자대대



공군에 몸을 담고 있는 병사라면 한번쯤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

‘왜 공군에 입대 하셨습니까?’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대답한다.

‘주위 분들의 권유가 있어서, 비행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공군의 깨끗한 이미지가 좋아서, 특과지원이 가능 하기에 등등’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한참 바쁘게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고, 현장 작업에 투입되고, 그렇게 일에 익숙해자는 동안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공군에 복무한지 이제 9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절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가꾸기 위한 반성과 고찰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이유로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을까? 사촌형의 공군 복무 지원제를 통한 군입대 시기 조정수월, 특과 지원 등등...

이 중에서 제일 나를 유혹했던건 바로 특과 지원이었다. 기왕이면 군대를 통해 무언가 하나의 기술을 배워 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병들도 간호학원, 행정학원, 운전학원 등이나 사회에서 쌓은 경력, 전공 등을 통해 공군 기술병으로 지원했고, 잘만 활용하면 군복무 기간인 2년 6개월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원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난 희망했던 분야에 몸을 담지 못해 못내 아쉬워 했었다. 고백하자면, 그 이유로 여러가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며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곧 '나의 손끝이 아니면 전투기 정비'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현실과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공군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공군은 나의 훌륭한 보람의 일터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군에 매료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일반 사회 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처럼 대학 생활중에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사회 생활의 준비 과정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곳에 와서 알게된 사실인데, 군대라는

곳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더욱 견고한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믿음직한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서의 성공을 미리 접쳐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 공군에서 배운 중요한 사회적 덕목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과정과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다해라.'

더불어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을때, 빨리 인정하고 수습할 수 있는 프로다운 자세를 몸에 익히 나간다면 앞으로의 나의 사회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건 자명한 일이다.

나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할찬 군대 생활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사회에서 보다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근**



나와 주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

영화 '말콤 X'를 보고

어두운 화면에 말콤엑스의 육성이 짙게 깔리고, 이어 화면 전체에 성조기가 확 차면 말쑥 많았던 로드니 킹 구타사건이 반복적으로 보여진다. 킹이 시속 150Km로 달렸다는 흰색 액셀이 비쳐지고, 말콤의 "이 지구상에서 잔악한 살인자이며, 유죄범 백인을 고발한다."는 목소리가 배경으로 깔리며, 성조기가 좌상단에서부터 불타기 시작해 "X"자만 남아진다.

상당히 충격적인 프롤로그로 시작되었던 영화 '말콤 X'는 총 3시간15분짜리 대작이며, 비교적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질 만한 영화다.

영화는 말콤X의 어린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며 시작된다.

말콤 리틀(말콤X의 본명)은 친구 쇼티를 만나 이발소에서 백인처럼 보이기 위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펴는 고통을 겪어가며 백인처럼 되고자 애쓴다.

회상이 끝나고 화려한 댄스홀에서 애인 로라와 격정의 춤을 추는 말콤, 그리고 그에게 유혹의 손길을 던지는 금발의 백인여자 소피아의 등장, 후에 로라는 거리의 여자로 전락하게 되고 말콤은 소피아와 사랑에 빠진다.

열차식당 웨이터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던 말콤은 할렘의 125번가 역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거리를 배회하던 말콤은 아치의 부하가 되어 암흑가 생활을 시작한다.

보스턴에 돌아온 그는 소피아와 쇼티 등과 어울려 도둑질을 일삼다가 결국 체포되어 수감된다. 말콤은 이를 백인여자와 함께 한 것이 미움을 사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방 동료 베인즈로부터 모슬렘 교리를 배우고, 흑인의 인권에 눈 뜬 말콤은 새사람이 된다. 도서관에서 감방에서 열심히 책을 보고 기도하여 다시 태어난 말콤은 '잃어버린 뿌리를 찾기까지는 X를 성으로 쓰라.'는 모슬렘 지도자 일라이자 무하메드의 말을 따라 이름을 '말콤 리틀'에서 '말콤 엑스'로 바꾼다.

출감후, 착실한 종교인이 된 말콤은 열성적인 포교활동을 한다.

그러나 지도자 무하메드의 부도덕함을 확인하고 회의에 빠진 말콤은 교단의 내분과 협박을 뒤로 하고 메카 순례에 나선다.

같은 갈색의 시막을 둘러보던 말콤은, 잠시 '아메리카'라는 '인간군도'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결을 호소하지만, 그의 뒤로 검은 안경의 사내들이 무비 카메라를 들고 계속 미행하고 있다.

메카 순례 도중, 루하메드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말콤은 "보는 파부석의 인종들이 하나의 '인간'으로 모여 신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귀국길에 오른다.

미국으로 돌아온 말콤은 무장을 하고 경계를 하지만, 테러와 협박은 계속되고, 말콤은 연설 준비를 위해 뉴욕 힐튼호텔에 투숙한다.

정렬되어 있는 연설장의 최자들, 연단에 올라온 말콤, 그리고 뒤를 잇는 총성.

'흑인끼리 총을 겨눌 수는 없다'고 '파부와 머리털, 생김새, 언어는 달라도 모든 인류가 한 형제'로 살아가자면 말콤X는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인종차별은 인간역사 속에 주어져 있는 가장 뿌리깊은 편견중의 하나인 것 같다. 사실상 서구 민주주의는 백인들의 민주주의였고, 그네들이 자유와 평등과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 결과에서도 다른 유색인종은 제외되어 왔던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면,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마도 불가능한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자유와 평등과 인간 존엄의 권리는 보다 많은 사람

에게 개방되어 왔고, 그것은 많은 투쟁과 혁명의 결과이거나, 그로인한 제도적 개혁과 또 그밖에 인간의식의 고양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말콤X는 그런 역사적 과정속에서 눈부시게 드러난 한 존재였다.

그가 일찍 암살당하지만 않았어도 미국에 있어서(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흑인 인권 운동은 보다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다.

어쨌든, 자주 영화를 보러 나시지 못하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느껴보는 감동을 선사해 준 영화다.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 기독교와 회교의 관계, 흑백 갈등의 문제 등...

말콤X의 눈에 비친 기독교란 '위선' 그 자체여서 진정한 흑인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슬람교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다. 400여년간의 인습과 굳어진 사고방식을 한다는 것이 백인에게 있어서는 흑인에게나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말콤X가 왜 혁명을 주장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가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인간이성'의 한계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기에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관망했다.

그러한 '구도'는 人間事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제도적으로 人權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적 폭력'은 결국 또다른 폭력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가? 이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어디에 동그라미를 써야 할지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 구도에 의해 만들어졌고, 흑인 내부 즉, 다른 흑인 집단과의 관계나 백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또 거의 동시대를 활동한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발콰시의 어족을 중심으로 비교적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잘 만들어 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일찍 접했다라면 흑인에 대한 쓸데없는 백인에 의해 심어진 편견을 불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영화가 던져주는 또하나의 메시지는 '인간의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느 인간도 자신의 태도에 따라 세상의 밑바닥에서부터 "변신"하여 한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진정한 내면적 발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영화다.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도둑질, 마약

거래를 일삼다가 6년 반동안의 수감생활 후 그는 무식한 범죄자로부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교육받은 대변인으로 변신해 있었다.

그는 모든 인종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의 피부색깔이 아닌 영혼의 질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흑인들의 인권을 얻기 위한 그의 투쟁은 진세제적인 단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월 200만원 이상의 직장파 예쁜 마누라 얻어 사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웃지못할 얘기들을 접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숨죽이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무관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둔감함을 한탄만 할 수 밖에 없는 절가?

욕력과 섹스가 난무하던 스크린에서 진지한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보게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동문**



최 호 준

병장/제3175부대 정훈과

신세대, 그들과 우리

신세대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부터 젊은이들은 늘 존재해왔고 그때마다 '요즘 젊은 세대를 큰일났다.'는 기성세대의 불만들이 있어 왔는데, 요즘 들어선 신세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 안 되어 보이는 모양이다.

사실 과거에도 젊은 세대는 존재했다. 4.19세대도 있었고 통기타세대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신세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신세대는 70년대를 전후해 태어났고 87년을 전후해 대학문에 들어선, 기성세대와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다. 단순한 세대차이로 볼 수 없으며 과거의 젊은 세대와도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신세대'라는 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그들 신세대의 사고나 행동양식의 중심은 '자기중심주의'이다.

기성세대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것도 그들의 자기중심성에 맞춰놓고 머리를 쓰다 보면 대충 이해가 됐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 사고는 갖고 있기 마련이다. 또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중심주의이며 개인주의이기는 하지만 이런 종류가 다르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청소년일 시기에 때와 형편에 따라서 자신을 굽히기도 지냈지만, 신세대 그들의 가치판단근거는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옳고 그르고의 판단보다 자신이 옳으나 싫으나 어찌나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생활양식을 몇가지 짚어본다.

신세대는 형제가 몇안되는 핵가족시대에 태어나 어지간하면 방하나씩을 차지하고 자랐다. 게다가 자기방에 TV와 오디오, 더하면 전화와 컴퓨터까지 갖춰 놓고 산다. 자기만의 성에 들어가 성문을 닫으면 외부의 도움없이도 자급자족 가능하다. 슬프고 외로울때는 음악을 듣거나 컴퓨터를 두드리면 된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묻지도 않는다. 내가 남을 간섭하지 않으므로 간섭받기도 원하지 않는다.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도 '나'다. 신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적은 것도 그것이 나의 실생활과 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사는것이 정의'라고 믿는 그들이다.

반면에 나와 관계있는 일이라면 순식간에 달라진다. 93년 한약분업 논쟁때 약대생과 한의대생의 쟁기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국민학교에 들어가기전부터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주장하면서 다 커서 결혼하고 나서까지 경제적 독립은 원치 않는다. 즉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

온거다. 어려운 일들을 다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손해 보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연애상대도 여건에 맞추어 상품고르듯 한다. 사랑할때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사랑과 결혼은 별개라는 사고방식이 너무도 뚜렷하다.

신세대는 대기업과 같은 틀에 박힌 직장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전문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대기업이라도 경리, 기획부문은 일만 많고 개인시간이 없다고 기피하여 관·검사보다는 전문번호사를 원하는 이가 늘고있다.

퇴근후에는 어학공부나 운동을 하는등 자기개발에 열중이다. 그렇다고해서 신세대 직장인들이 회사일 소홀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터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주면 그들은 일을 놀이처럼 열심히 해낸다. 바야흐로 세상은 신세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세대의 이같은 자기중심적·개인주의적 성향이 과연 그들이 특별히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사회호르몬이 혹시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농경사회도, 공장위주의 산업사회도 아니다. 의식하건 안하건간에 정보로 상징되는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가족의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급기야는 붕괴의 위협에 와있다.

가정보다 사회보다 개체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진정한 개인주의적 세대가 신세대이다.

신세대의 출범과 탄생을 같이한 영상매체를

위어놓고 보면 모든 것은 보다 명쾌해진다.

TV만 놓고 봐도 그렇다. 어느 한 장면을 봐도 신세대는 대변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차린다. 책처럼 증증대고 읽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신세대는 또 돈이 많다. 거꾸로 말하면 풍요롭지 않으면 신세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70년대에 열심히 일해 오늘날의 부를 일구어 낸 아버지를 둔 그들은 소비를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이 자기마음에 들면 그만이다. 튼튼하거나 오래 쓸 수 있는 건 뒷전이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사는 시기에 청춘을 맞은 행복한 아이들이다.

이들 신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과 우리는 어찌보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며, 또 그들이 곧 우리들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일거다.

신세대에게는 엄청난 자생력이 있다. 기성세대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들이 가야할 방향으로 걸어간다.

에너지의 에너지는 앞으로 흐르는 법이라고 한다. 기성세력이 아무리 그 에너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대의 조류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지금의 신세대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앞으로 흐르는 시기이다.

그들 신세대의 에너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사회에 이끌어 올바르게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물고울 파장과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요즘 군인들을 신세대 군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까지 말했던 신세대들이 군에 들

어울 나이가 되었고 곧 그들이 입대를 하기에 그들이 당연히 신세대 군인인 것이다.

하지만 신세대들이 군인이 되기위해선 위에서 이야기한 그들의 특징들이 바로 군인이 되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장려되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군대란 조직은 모두들 알듯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상하관계가 엄정한 사회이다. 그런데 남을 간섭하기도, 자기가 간섭받기도 싫어한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기성세대 군인들과의 상호 폭넓은 대화와 교류를 해나가고 군대의 교육체계를 통해 군대의 특성과 가치관들을 그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이 조직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개인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자기 맘에 맞는 물건만 쓰던 생활이 있지만 군대에 들어온 이상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운용되는 군장비를 바로 자기 것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신세대 그들에게겐 위의 개선해야 될 면모도 있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면도 부각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자신에게 맞고 흥미가 있으면 열과 성을 다해 일한다. 즉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하면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충분하다. 곧 이런 장점을 군대조직안에서 충분히

히 살려 그들이 군대생활과 일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나 어떤 통로를 기성세대군인들이 긍정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영생활속에서 그들 자신의 개발이나 소질함양, 사회에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이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시간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바로 신세대 군인이다. 그리고 우리도 신세대 군인이라면 이전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신선하고 활기찬 군인이 되어 신세대의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자신이 자발적으로 우리 군을 젊고 새롭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국군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더불어 젊음이 넘쳐흐르는 힘찬 병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도 저 멀리 석양의 붉은 저녁에 힘찬 평음과 함께 전투기가 날아오른다.

그 모습이 꼭 우리 신세대 군인의 힘차고 발랄한 모습같아 기분이 좋다. **김호민**

김 호 민
상병/제3579부대
정비대대



요즘 신문을 접하며

단 강원도 동부 최전방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늘 지역군인과 함께 생활했으며 군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국민학교 4학년때로 기억된다.

한 여름밤 몹시 아파 사정을 해낸적이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넘겨 차도 들어오지 않고 마을에는 차 한대도 없는 시골이라 부모님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을때! 어떻게 왔는지 기억조차 없지만?

군 트럭이 대문앞에서 경적을 울렸고 난! 그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었던 일등병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를...

그 미소를 간직한 채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날을 군인이 된 지금도 난 기억한다.

11살 꼬마에게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강한 믿음으로 낳았던 그 일등병 아저씨의 미소는 어린 나로 하여금 군에 대한 믿음을 키웠고 그 미소를 믿고 성장했었다.

그러나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보면 세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져 가는가? 난 이런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은 세월을 살아보지 못하고 남들보다 많은 생각이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얕이는 짐해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사회의 패륜아적 행동에 세목조차 삭막해지는 뉴스와 신문사회면에 가득메인 소식에 절로 의문을 제기해본다.

그러면서, 연일 흐르는 신문속에 거론되는 군기강 문제와 군 조직에 대한 사회 불신문제를 접하면서 국민의 신뢰속에 싸워서 이겨야 할 군대가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쉽게 엿볼 수 있었고 내가 속해 있는 군이기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떤 신문사설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있어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 적이있다. "고의로 상관과 동료들 향해 총을 휘갈기는 일은 군법 적용사례집에나 나올만한 이야기라 이런 한심한 사고는 오늘날 우리 군의 백빠진 군기와 정신진력을 엿보게 해준다."

"사분오열된 군이 전투력이 약화돼 승리할 수 없으며 승리하지 못하는 군은 그 존립근거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6일 전쟁에 아랍이 가장 단시간내의 패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무엇인가?

"사병과 장교의 불화" 즉, 죽어버린 군기 속에서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군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코알의 적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적을 만들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국민이 믿는 군은 과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로서 국민들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 남아 생업에 종사하며 군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군의 기강을 육성하지 못하는 나라는 몰락하고 만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 또한 군에 가장 군기강이 살아있어야 할 사병들의 의식없는 생각에서 형성된 우리군의 본질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황금 만능주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경쟁속에서 의식이나 정서가 없이 삭막한 사회 환경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군이라는 개인집단이 아닌 단체집단으로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우리군의 군기강을 헤이시키고 단합을 저지시키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다.

첫째로 왕자병이라는 스타의식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사회 속에서 자라며 성장한 지금에 “많은 사병들”...

황금 만능주의가 만들어 낸 X세대 그들은 자신의 멋에만 살면서 앞을 생각하지 못한다. 어떤 환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군조직이 단체생활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군이 군다운 집단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

1인칭 대명사의외에는 모르는 사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이 맡은 일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타인이 하는 일을 중요시하지 못하고 타인의 일을 하

찮게 생각하는 사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하나의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적이 아닌 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군은 이 사회 속에 속해 공존하고 있다. 사회를 벗어난 군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살아온 사병을 군조직이 관심과 관찰을 통하여 작은 사회인 군의 군기를 확립하고 군 본연의 자세를 잡아 사병 하나하나가 땀배인 군복을 땀뿜게 생각하고 자신의 짧은 머리가 곧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정신이라 믿고 있을 때 우리군이 이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군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같이 우리군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비난을 받고 군기강 따위를 논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더욱더 국민이 믿는 군으로 인식시키고 국민들 기억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군으로 다시 역동할 때 온 국민이 나라를 믿고 군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수**

정 동 수
병장/제3526부대
야간정비대대



조직인이 지켜야할 에티켓

우리 공군은 인간미와
도덕성에 있어
어느 조직보다도 모범적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구속에 얽매어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몇몇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지면을
제공한다.

1.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는가?

- 대답이 없으면 한참지 또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알기 쉽다.

2. 약속시간은 지키고 있는가?

- 남의 시간을 늦게 여기게 하는 자는 신뢰받지 못
한다.

3. 전업의 상관의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가?

- 전업은 업무내용과 예정시간 등을 상관에게 보고
한후 허락을 받는다.

4. 지시받을 때는 예모하는가?

- 정확하게 일하기 위해 예모한다.

5. 언제나 수동적으로 적당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 일은 계획을 세워 한다.

6. 마음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일에는 반드시 끝내야 할 기분이 있다.

7. 끝까지 듣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지 않는가?

- 힘에 겨운 일이라도 우선 얘기를 듣고 대처하도록
한다.

8. 보고는 빠를수록 좋다.

- 보고를 미뤘을 때까지는 일은 끝난 것은 아니다.

9. 보고의 요령을 알고 있는가?

- 상대가 판단하기 쉽도록 사실을 정확히 전한다.

10. 술자리라 해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 역할과 입장을 생각하자.

11. 직장에 가정을 들고 오지는 않는가?

-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 역할과 입장을 생각하자.

12. 부대행사에 함부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재미없어 빠진다는 생각은 어린이에 같은 발상이다.

13. 동료일을 모른 척 하지 않는가?

-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14. 멋대로 휴가를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휴가는 팀워크(Team Work)를 생각하고 얻도록 한
다.

15. 만일의 경우에는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 너무 앞전을 해도 반쪽을 산다.

16.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 얘기하고 싶지만 듣는 일도 중요하다.

17. 동작이 느린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 조직은 재빠르고 활기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 조직은 재빠르고 활기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18. 중요할때 도움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 재치가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

19. 함께 살고 있는 청소와 설비를 제대로 손질하고

있는가?

- 직장온 모두의 장소이다. 서로 깨끗이 손질하도록 한다.

20. 출장이나 검열에서 돌아온 동료를 따뜻이 맞이하는가?

- 한아다 따뜻한 말이 직장을 밝고 활기있게 만든다.

21. 직장에서 「묵혀 면해줄」임을 자랑스레 내세우지는 않는가?

- 직장은 일하는 일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2. 평소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유익하고 있는가?

- 건강치 못하면 동료에게도 폐를 끼치게 된다.

23.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가?

- 관혼상제 등에 도와주신 분들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말 하자.

24. 사무리를 제대로 하는가?

- 체크하는 습관을 익히자.

25. 행동이나 업무처리가 거칠어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 상대방의 마음을 진지한 행동이 필요하다.

26. 사무실에서의 신발 잘못 되지는 않았는가?

- 슬리퍼 신고 침침, 직장에 맞지 않는다.

27. 보기 흉할 정도로 다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닌가?

- 절도있 넓은 친숙한 태도는 직장에 적합하지 않다.

28. 무신경한 말로 타인을 상처받게 하지는 않는가?

- 성직인 말도 좋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다.

29.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지 않는가?

- 젊은 사람이라도 협력할 수 있는 「이성」이 필요하다.

30. 선배를 하석에 앉히지는 않는가?

- 말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에 용이리가 남은 경우도 있다.

31. 공군의 이미지를 멸구지 않는가?

- 여러분의 목소리, 표정, 태도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든다.

32. 상대방의 이름을 묻지않고 연결하는 것은 아닌가?

-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부서명이나 이름을 확인 하자.

33. 정확한 전화응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전화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실례이다.

34. 용건을 물어보지 않고 연결하는 것은 아닌가?

- 「네, 제입니다」는 곤란한 경우

35. 말할 순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가?

-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배오하는 것이 중요하다.

36. 청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 「의중입니다」만으로는 유어의 용어나 바깥까지이다.

37. 구두로 전달하여 접객중인 상관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 접객중에 숨어서 매모로 용건을 전달하자.

38. 방문객이나 전화에 「회의중입니다」만으로는 끝내는 것은 아닌가?

- 책임을 지고 용건을 물어본 다음 적절한 대응을 하자.

39. 부대의 수치스런 일을 외부로 무심코 「공개」하고 있지 않는가?

- 거짓말도 때로는 방한이다.

40. 타 부서의 이미 재가를 피하고 있는가?

- 이미 세기는 전보의 근원,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 하라.

공군 1994년 겨울호(통권 제229호)

글을 기다립니다.

구분	내용	분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 안보	— 군 진화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외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바움의 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수상록	20매 내외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	35매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7~8매
기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시선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향상과 건전한
위울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개제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전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연중

▶보낼곳 : — 각 부대 정훈참모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함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전 화 : (호) 3532-4 (02) 506-3532~4
(042) 552-3532-4

▶제책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출무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일 : 1995년 12월 30일
■인쇄처 : 종합인쇄 금성산업
T. 042-254-7434, F. 256-7434

바로 당신이
만들어
갑니다



